

B L A C K L A B E L



정답과 해설

A N S W E R

I. 음운

STEP A 1등급 도전문제

01 ②	02 ③	03 ①	04 ③	05 ①	06 ⑤
07 ②	08 ②	09 ③	10 ③	11 ⑤	12 ①

01

정답 ②

보기 분석 <보기>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단모음 하나가 탈락하는 경우,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한 개의 단모음이 반모음이 되는 경우,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반모음이 첨가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보기>의 ㉔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한 개의 단모음이 반모음이 되는 경우, 즉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단모음과 반모음의 구성을 가진 이중 모음이 되는 용례를 찾는 문제이다. 이중 모음이란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의 처음과 나중을 서로 다르게 하여 내는 모음을 말하며, 이중 모음은 하나의 단모음과 하나의 반모음으로 구성된다. 이중 모음으로,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ㅢ', 'ㅤ', 'ㅥ', 'ㅦ', 'ㅧ' 따위가 있다.

정답 해설 ㉔는 단모음 'ㅣ'와 'ㅓ'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ㅣ'가 반모음 'ㅓ'로 바뀌고 어미의 'ㅓ'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ㅓㅓ'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㉔의 경우도 단모음 'ㅓ'와 'ㅓ'가 결합할 때 어간의 'ㅓ'가 반모음 'ㅓ'로 바뀌고 이것이 어미의 단모음 'ㅓ'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ㅓㅓ'가 된 경우이다.

오답 해설 ㉔ 어간의 단모음 'ㅓ'와 어미의 단모음 'ㅓ'가 결합할 때 하나의 단모음 'ㅓ'가 탈락한 경우이다.

㉔ 어간의 단모음 'ㅣ'와 어미의 단모음 'ㅓ'가 결합할 때, 반모음 'ㅣ'가 첨가되어 어미의 모음이 이중 모음이 된 경우이다.

02

정답 ③

정답 해설 ㉔는 잇몸소리인 'ㄷ'이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섹입천장소리(경구개음) 'ㅈ'으로 바뀐 경우이다. 잇몸소리가 뒤의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㉔의 '잡는다'는 첫음절 끝의 파열음 'ㅂ'이 뒤의 자음 'ㄴ'과 결합하여 비음인 'ㅁ'으로 바뀌어 [잡는다]로 발음된다.

② ㉔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뒤의 자음 'ㄴ'이 유음인 'ㄹ'으로 변해 [갈랄]로 발음된다.

④ ㉔는 파열음 'ㅂ'이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 'ㅁ'으로 바뀐 경우이고, ㉔도 비음 'ㄴ'이 유음 'ㄹ'을 닮아 유음 'ㄹ'로 바뀐 경우이므로 둘 다, 조음 방법이 동일한 소리로 동화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㉔는 비음이 유음으로 바뀐 것으로 조음 방법이 변동한 사례이고, ㉔는 잇몸 소리가 섹입천장소리로 음운의 조음 위치가 변동한 사례이다.

03

정답 ①

정답 해설 단모음 체계 표를 보면, 'ㅐ'는 'ㅓ'보다 혀의 높이가 높은 중모음이다. 즉 입을 벌리는 정도에 있어 'ㅐ'는 'ㅓ'보다 입을 작게 벌리는 반개모음에 해당된다. 따라서 'ㅐ'를 발음할 때는 'ㅓ'보다 입을 작게 벌려 혀의 높이를 높여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ㅐ'는 'ㅓ'보다 입을 작게 벌리는 반개모음에 해당되므로 'ㅓ'보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입을 작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ㅐ'와 'ㅓ'는 모두 평순 모음에 해당되므로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려서 내는 원순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ㅐ'와 'ㅓ'는 모두 단모음이므로 'ㅐ'와 'ㅓ'는 모두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이 없이 발음한다.

⑤ 'ㅐ'와 'ㅓ'는 모두 전설 모음에 해당되므로 혀가 아랫니에 닿지 않고 혀의 정점이 입 안의 뒤 쪽에 위치하게 하는 후설 모음으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

04

정답 ③

정답 해설 ㉔의 '입문하여'의 발음은 [입문하여]이다. 이는 파열음(ㄱ, ㄷ, ㅂ 계열)인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인 'ㅁ'으로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예다. '만누이'에서도 파열음 'ㄷ'이 뒤의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㉔ '옳겨서'를 [옳겨서]로 발음하는 것은 음절 말의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인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한다. '굵기다'도 역시 [굵기다]로 발음하여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음운 탈락이지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는 음운 현상이 아니다.

㉔ '굳이'가 [구지]로 발음되는 것은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이다. '뽕때다'는 [뽕때다]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된소리 현상이다.

㉔ '더듬지'는 된소리되기 현상의 사례인데, '곰갈이[곰가치]'는 구개음화의 사례이다.

㉔ '듬직한'에 나타난 것은 거센소리되기 현상으로 둘 이상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의 음운 현상이다. '한여름[한너름]'은 ㄴ 첨가 현상의 용례로 음운 축약이 아니다.

05

정답 ①

정답 해설 '식용유'는 합성어로 '식용+유'의 결합이다. ㉔에 근거할 때 앞 단어의 끝자음 'ㅇ'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유'인 경우로 'ㄴ'이 첨가되어 '뉴'로 발음되고, 다시 앞 단어의 '식용'이 연음된 [시공]과 결합하여 [시공뉴]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㉔ '종로'는 ㉔가 아니라 ㉔에 근거하여 [종노]로 발음된다.

㉔ '물약'은 ㉔에 근거하여 [물략]으로 발음해야 한다.

㉔ '활는다'는 겹받침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대표음 'ㄹ'로 발음되어 [활는다]가 되고, 이것이 ㉔에 근거하여 [활른다]로 발음된다.

㉔ '견는다'는 ㉔에 근거하여 [견는다]로 발음된다.

06

정답 ⑤

정답 해설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아닌 음운이 구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달하다[다치다], 굳히다[구치다]'는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했을 때 먼저 두 자음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된 후 이것이 다시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 'ㅈ'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㉔의 사례는 자음 탈락이 이루어진 후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음 축약이 이루어진 후 구개음화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오답 해설 ㉔ '붙여[부처], 묻혀[무처]'는 모두 'ㅌ'이 'ㅓ'의 영향을 받아 'ㅈ'으로 발음되고 있다. 'ㅓ'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ㅓ'가 결합한 것이다. 또한 '붙여'의 '여'와 '묻혀'의 '혀'는 모두 어미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㉔ '마디[節][마디], 티[티]'는 모두 한 형태소이고, 뒤에 결합하는 형식 형태소가 없으므로 [마디]나 [티]로 발음되지 않는다.

㉔ '해돋이[해도지], 날날이[난나치]'는 '해돋' 다음에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으므로 앞의 'ㄷ'이 'ㅈ'으로 구개음화되어 [해도지]로 발음되고, '날날' 다음에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으므로 앞의 'ㅌ'이 'ㅈ'으로 구개음화되어 [난나치]로 발음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음절 이후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의 ‘발이랑[반이랑], 흠이불[훈니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ㄴ’ 첨가’가 일어났다. 구개음화는 ‘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의 결합에서만 일어나므로,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에서 앞의 받침 ‘ㄷ, ㅌ’ 다음에 ‘이’로 시작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7

정답 ②

정답 해설 | ‘첫눈’은 [천눈]으로 음운이 교체되고, 다시 [ㄷ]은 ‘ㄴ, ㅁ’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는 현상에 의해서, [천눈]이 [천눈]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첫눈’이 [천눈]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운 첨가가 아니라 음운 교체에 의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인접 음운의 영향이 없는 ‘낫[남]과 달리 ‘신라’의 ‘ㄴ’은 인접 음운인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음운이 교체된 경우이다.

③ ‘ㅎ’을 끝소리로 가지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ㅎ’이 탈락된다.

④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운 첨가하여 [니, 나, 너, 뇨, 뉴]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에 의해, ‘답요[답뇨], ‘논일[논닐]처럼 ‘ㄴ’이 첨가되는 용례로 ‘늑막염[늑망염]을 들 수 있다.

⑤ ‘국화’, ‘막히면’은 ‘ㄱ’이 ‘ㅎ’과 합쳐져 ‘ㄱ’으로 축약된 경우이므로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08

정답 ②

정답 해설 | ⑥ ‘낱다’의 어간 ‘낱-’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와 결합할 때에는 ‘낱고’로 표기하고, [나고]로 발음한다. 이때 ‘ㅎ’은 뒤 음절의 ‘ㄱ’과 만나 ‘ㄱ’으로 축약된 것이다. 반면 어간 ‘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할 때에는 ‘낱아’로 표기하고, [나아]로 발음한다. 이때 ‘ㅎ’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처럼 ‘ㄹ’을 끝소리로 가지는 용언의 어간이 어미 ‘-니’와 만나면 반드시 ‘ㄹ’ 탈락이 일어난다. ‘알다’도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한다.

③ ㉠의 ‘ㅈ’처럼 ‘답그다’도 어미 ‘-아’와 결합하면 ‘답가(답그-+아)’가 되어 ‘ㄴ’이 탈락한다.

④ @에서 어간 ‘가-’ 뒤에 어미 ‘-아’가 연결되면, ‘가’가 되는데 이는 어간과 어미의 모음이 동일할 때 하나가 탈락한 것이다.

⑤ 표준 발음법 제14항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도록 하고 있다. ㉠에서도 ‘맑아’는 연음되어 [말가]로 발음되므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9

정답 ③

보기 분석 | 탈락은 두 음운이 만났을 때, 그중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로,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으며 음절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하나의 다른 음운으로 줄어드는 경우로,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다.

정답 해설 | ‘닿는다’는 기본형 ‘닿다’의 어간 ‘닿-’에 어미 ‘-는다’가 결합한 말이다. ‘닿는다’는 받침 ‘ㄷ’이 ‘ㄱ’으로 교체된 후(음절 끝소리 규칙), 뒤의 어미의 영향으로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비음화) [닿는다]로 소리 난다. 즉, ‘닿는다’는 음운 교체를 뒷받침하는 용례이다.

오답 해설 | ① ‘옳지’는 ‘ㅎ’과 ‘ㅈ’이 ‘ㅈ’으로 축약되어 [올치]로 소리 난다.

② ‘낙하산’은 ‘ㄱ’과 ‘ㅎ’이 축약되어 [나카산]으로 소리 난다.

④ ‘값어치’는 겹받침 ‘ㅈ’에서 ‘ㅈ’이 탈락한 후, 받침 ‘ㅂ’이 뒷말에 연음되어 [가버치]로 소리 난다.

⑤ ‘꿀일’은 겹받침 ‘ㅈ’에서 ‘ㅎ’이 탈락한 후, 받침 ‘ㄹ’이 뒷말에 연음되어 [끄릴]로 소리 난다.

blacklabel 특강 ‘값어치’의 발음

‘값어치’는 ‘값’에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어치’가 결합한 말이다. 그렇다면 ‘값어치’는 어근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겹받침 중 하나가 뒷말에 연음되어 [값서치] → [값씨치]로 발음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버치]로 소리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준 발음법의 해설에서는 이에 대해 “값어치[가버치]는 ‘0원 어치, 백 ₩ 어치, 팔 푼 어치’ 등을 고려하여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해석한 결과다. ‘어치’는 지립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사전에서 이를 접미사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학습할 때에는 현실 발음을 존중하여, ‘값어치[가버치]임을 기억해 두자.

10

정답 ③

보기 분석 | 제17항: 구개음화 관련 조항

제18항: 비음화 관련 조항

제23항: 된소리되기 관련 조항

정답 해설 | ‘막론’의 받침 ‘ㄱ’과 연관된 조항은 제18항과 제23항인데, ‘막론’의 받침 ‘ㄱ’과 결합하는 뒤 음절 첫소리인 ‘ㄹ’과 연관된 조항이 없다. 따라서 ‘막론’이 표기 그대로 발음할 수 있는 단어인지 아닌지는 <보기>의 규정만으로는 답을 할 수 없다.

한편, ‘막론’은 표기 그대로가 아닌 [막논]→[망논]으로 발음되는데, ‘막론’이 [망논]으로 발음되는 것은 받침 ‘ㄱ, ㄷ’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9항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제23항에서 받침 ‘ㄷ(ㅌ)’ 뒤에 연결되는 ‘ㄱ’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웃고름’은 [온꼬름]으로 발음한다.

② 제17항에서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고 하였고, 제23항에서 받침 ‘ㄷ’ 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하였으므로, ‘꿈이든다’는 [고지든따]로 발음한다.

④ 제18항에서 받침 ‘ㄱ(ㅋ)’은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키웁만’은 [키웁만]으로 발음한다.

⑤ 제18항과 그 붙임 조항에서 받침 ‘ㄱ(ㅋ)’은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흙 말리다’는 [홍말리다]로 발음한다.

11

정답 ⑤

정답 해설 | <보기>의 ‘ㄷ’ 규정에 따라 ‘ㄷ’는 표기와는 달리 [ㄷ]로 발음하고 [ㄴ]나 [ㄹ]로는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늬바람’은 [하늬바람]으로만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의 ‘ㄷ’ 규정에 따라 ‘값을’은 [갑술]로 발음해야 한다.

② <보기>의 ‘ㄷ’ 규정에 따라 ‘앞에는’ [이페]로 발음해야 한다.

③ <보기>의 ‘ㄷ’ 규정에 따라 ‘계집’은 [계집/계집]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보기>의 ‘ㄷ’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의’는 [우리의/우리에]로 발음해야 한다.

12

정답 ①

정답 해설 | ㉠ ‘되+마루’를 [되:마루]로 발음하는 음운 변동에서 비분절 음운인 ‘소리의 장단’은 음운 변동 양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합성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잇소리가 개입된 현상으로,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어 일어난 음운 변동일 뿐이다. ‘되마루’에서 첫 음절의 모음이 길게 발음되는 것은 많은 단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다.

오답 해설 | ② ㉠은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하는 경우인데, ‘ㄴ’이 하나 더나는 ㉡보다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더 늘어났다.

③ ㉠~㉢은 모두 사이시옷의 [ㄷ] 발음이 ‘ㄴ, ㅁ’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 예다.

④, ⑤ ㉠~㉢은 모두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사잇소리 현상이고, 앞말이 모음으

로 끝나는 경우에는 받침에 ‘ㅅ’을 표기한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음운 2	
13 ③	14 ④	15 ⑤	16 ②	17 ④	18 ④		
19 ⑤	20 ⑤	21 ③	22 ⑤				

13

정답 ③

정답 해설 | 자음 중 ‘파열음’은 조음 방법 즉,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ㅂ’, ‘ㅃ’, ‘ㅍ’, ‘ㄷ’, ‘ㄸ’, ‘ㅌ’, ‘ㄴ’, ‘ㄷ’, ‘ㄹ’ 등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자음 중 마찰음은 조음 위치가 아니라 조음 방법(입 안이나 목청 파위의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소리)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ㅅ, ㅆ, ㅎ’이 있다.

② 자음 중 비음은 조음 위치가 아니라 조음 방법(코맹맹이 소리)에 따른 분류로 ‘ㅁ, ㄴ, ㅇ’이 이에 속한다.

④ 모음은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되는데 ‘ㅣ’는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조금만 벌리고 발음하는 고모음이다.

⑤ 분절 음운은 문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자음과 모음을 분절 음운이라 하며 우리말에서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로 총 40개이다.

14

정답 ④

정답 해설 | ‘색연필’은 ‘색’과 ‘연필’의 합성어로 앞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의 단어의 첫 음절이 ‘여’인 경우에 ㄴ이 첨가되어 [색년필]이 되고, 또 앞의 음절 말 자음 ‘ㄱ’이 뒤의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어 [생년필]로 발음된다. 따라서 색연필에서는 음운 첨가(ㄴ 첨가) 현상과 음운 교체(ㄱ→ㅇ) 현상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 ① ‘만형[마텽]’에서는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음운 축약(㉔)만 일어난다.

② ‘넷가[넛까]’는 ‘내’와 ‘가’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이시옷인 ‘ㅅ’이 첨가(㉔)되었고, 다시 ‘ㅅ’이 ‘ㄷ’으로, ‘ㄱ’이 ‘ㄴ’으로 교체(㉔)되었을 뿐, 음운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서른여덟[서른너덜]’에서는 ‘ㄴ’ 첨가와, 겹받침 중 받침이 하나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㉔와 ㉔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⑤ ‘학여울역[학너울력]’에서는 ‘ㄴ’이 두 곳에 첨가되고 ‘ㄱ’이 ‘ㅇ’으로, ‘ㄴ’이 ‘ㄹ’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학여울역’에서는 ㉔와 ㉔가 아니라 ㉔와 ㉔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15

정답 ⑤

정답 해설 | ‘(신문 내용을 처음부터) 훑었다’에서 ‘훑었다’는 [훑턴다 → 훑턴파]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받침 ‘ㄷ’ 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㉔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건을) 없지만’에서 ‘없지만’은 어간 ‘없-’에 어미 ‘-지만’이 결합한 형태로 ‘없-’의 겹받침이 ‘ㄴ’으로 소리 나고 뒤의 예사소리 ‘ㅈ’이 된소리로 발음하여 [언찌만]이 되는 것

으로 ㉔에 따른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박사’는 ㉔의 규정에 의해 [박싸]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나 ‘(머느리로) 삼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㉔이 아니라 ㉔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어간 ‘삼-’에 어미 ‘-고’가 결합한 형태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므로 ㉔이 아니라 ㉔의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② ‘(싸움으로 그와) 갈등’에서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만 그것의 대한 규정은 <보기> 세 항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갈등[갈똥]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인 표준 발음법 제26항에 따른 것이다.

③ ‘(말을) 껴안고’의 [껴안꼬]는 ㉔에 따른 것이지만 ‘(네가) 할 바를’에서의 된소리되기는 ㉔에 해당된다.

④ ‘(가슴에) 품을 적어’는 ㉔에 따른 것이지만 ‘(땅을) 밟지도[밟찌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㉔이 아닌 ㉔에 따른 것이다.

16

정답 ②

정답 해설 | ㉔에서 ‘닭이’의 표준 발음은 [달기]인데, 엄마는 방언으로 [다기]로 발음하고 있다. ‘닭’은 단독으로 발음하면 ‘ㄹ’이 탈락하고 대표음 ‘ㄱ’으로 발음되지만(자음군 단순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가 오면 제 음가를 그대로 살려서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그래서 ‘닭+이’는 [달기]로 발음해야 한다. ㉔의 사례는 엄마가 표준 발음을 구사하지 않아서 ‘ㄹ’ 발음이 없이 [다기]라고 발음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흙’이 단독으로 발음할 때 [흑]이라고 하는 것처럼 ㉔에 해당하는 ‘닭’도 단독으로 발음될 때의 표준 발음은 [닥]이다.

③ ㉔은 조사 ‘이’와 결합하는 상황이므로 기본형을 ‘닥’이라고 해야, 연음되어 [다기]라고 발음할 수 있다.

④ ㉔은 ‘닭’에 조사 ‘만’이 결합한 구조인데, ‘닭만’은 먼저 닭의 겹받침에서 ‘ㄹ’이 탈락하고 [닥만]으로 발음되고 이것이 다시 비음화 현상을 거쳐 [당만]으로 발음된 것이다. 따라서 ‘닭+만’에서 ‘닭’의 겹받침은 자음 앞에서 ‘ㄹ’을 탈락시키며 발음된 것이다.

⑤ ㉔에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음운 탈락이 이루어져 표준 발음이 되었지만, ㉔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음운 교체(비음화)가 이루어져 표준 발음이 나타났다.

black label 특강 자음군 단순화

음운 변동 중 음운 탈락 현상으로, 음절 끝에서 겹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싫[심], 흙[흑], 울대[읍따], 찢고[찢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정답 ④

정답 해설 | ‘꽃눈’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꼰눈’이 된 후, 뒷말 ‘ㄴ’의 영향으로 앞말의 받침 ‘ㄷ’이 비음 ‘ㄴ’으로 변하여 [꼰눈]으로 소리 난다. 따라서 ‘꽃눈[꼰눈]’은 뒷말의 영향으로 앞말이 변한 역행 동화이며, 동화의 결과 앞뒤 음운이 완전히 같아졌다는 점에서 ‘닫는[닫는]’과 같다.

오답 해설 | ① ‘늪름[늪름]’은 앞말의 비음 ‘ㄹ’의 영향으로 뒷말의 ‘ㄹ’이 ‘ㄴ’으로 변한 경우이다.

② ‘섬리[섬니]’는 뒷말의 ‘ㄹ’이 ‘ㄴ’으로 교체된 후, 뒷말의 ‘ㄴ’의 영향으로 앞말의 ‘ㄷ’이 ‘ㄴ’으로 변한 경우이다.(섬리 → 섬니 → 섬니)

③ ‘종로[종노]’는 앞말의 비음 ‘ㅇ’의 영향으로 뒷말의 ‘ㄹ’이 ‘ㄴ’으로 변한 경우이다.

⑤ ‘부역문[부영문]’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부역문’이 된 후, 뒷말의 비음 ‘ㄹ’의 영향으로 앞말의 받침 ‘ㄱ’이 비음 ‘ㅇ’으로 변한 경우이다.

18

정답 ④

정답 해설 | 가. ㉠ ‘여덟이나’의 ‘여덟’에서 겹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여 [여덟]로 발음하는데, ‘여덟’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나’가 붙은 ‘여덟이나’의 겹받침은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여덟비나]로 발음하게 된다. 홀받침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가 오면 홀받침의 제 음가 그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 ‘발+을’은 [바틀]로 발음해야 한다.
 라. ㉡ ‘농고’는 받침 ‘ㅎ’과 ‘ㄱ’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ㄱ’으로 축약되어 발음되고, ㉣ ‘국화’도 ‘ㄱ’과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ㄱ’으로 축약되어 각각 [노코]와 [구과]로 발음된다.
 마. ㉤ ‘발이랑’은 ‘발’과 ‘이랑’이 결합한 복합어로서 뒤 단어의 첫음절이 ‘ㅣ’ 모음으로 시작되어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반니랑]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반니랑]으로 최종 발음된다. 마찬가지로 ㉦ ‘한여름’은 ‘한-’과 ‘여름’이 결합된 복합어로서 뒷말의 첫음절이 ‘여’로 시작되어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고 [한너름]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 나. ㉠ ‘홀지’는 두 개의 자음인 겹받침 중 하나(ㅈ)가 탈락하여 [홀찌]로 발음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 ‘밖’의 받침 ‘ㅍ’은 겹받침이 아니고 홀받침 즉, 자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운이다. 따라서 ‘밖’이 [박]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 끝소리규칙에 의해서이지 겹받침의 음운 탈락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
 다. ㉢의 ‘끝이’가 ‘ㅣ’ 모음의 영향으로 ‘ㅈ’이 ‘ㅊ’으로 교체되어 [꼬치]로 발음되는 것은 맞으나 ㉤의 ‘쌍인’은 음운 교체가 아닌 음운 탈락(ㅎ)에 의해서 [싸인]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blacklabel 특강 표준 발음법 제29항

‘ㄴ’ 첨가 현상: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운 첨가하여 [나,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19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의 ㉡은 구개음화로서 동화이다. <보기>의 선생님 설명처럼 ‘ㄷ’이 ‘ㅣ’의 영향을 받아 ‘ㄴ’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구개음 ‘ㄸ’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은 동화가 아니다. <보기>의 선생님 설명에 맞게 동화가 되려면, ‘ㄱ’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조음 위치 혹은 조음 방법이 같게 변해야 한다. 그런데 ‘ㄱ’과 비교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② ㉢은 동화가 아니다. <보기>의 선생님 설명에 맞게 동화가 되려면, ‘ㅎ’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조음 위치 혹은 조음 방법이 같게 변해야 한다. 그런데 ‘ㅎ’과 비교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③ ㉤은 비음화로 동화이다. 그런데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같은 조음 방법인 비음 ‘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ㄴ’과 ‘같은 위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유음화로 동화이다. 그런데 ‘ㄴ’이 ‘ㅎ’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ㄹ’의 영향을 받아 ‘ㄹ’과 동일한 소리인 ‘ㄹ’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화이다.

blacklabel 특강 음운 동화

우리말의 음운 동화(同化)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있다. 파열음이 비음과 만나 같은 소리인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ㄴ’이 유음 ‘ㄹ’과 만나 유음으로 동화되는 ‘유음화’, 구개음이 아닌 소리(ㄷ, ㅌ)가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소리의 위치가 ‘ㅣ’와 비슷한 구개음(ㄸ,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음운 동화에 해당된다.

20

정답 ⑤

정답 해설 | 밤물이 [밤물]로 발음되는 것은 파열음인 ‘ㅂ’이 뒤의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변하는 것으로 비음화 현상의 사례이다. ‘꽃말’도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한 대표음 ‘ㄷ’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변해 [꼐말]로

발음되는 사례이다. 두 사례 모두, <보기>에서 탐구하고 있는 ‘ㄹ’과 관련된 음운 현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례이다. <보기>와 연관 없는 두 사례를 새로운 추가 항목으로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거나 그 사례로 쓴다는 내용은 적절한 계획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④ 2의 사례 ‘닿는’은 겹받침의 대표음 ‘ㄹ’로 발음되고 있어 뒤의 ‘ㄴ’과 만나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반해 ‘읽는’의 겹받침의 대표음은 ‘ㄱ’이기 때문에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뵈는’도 겹받침의 대표음이 ‘ㅂ’이기 때문에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ㄹ’이 들어간 겹받침의 경우 탈락하는 자음에 따라 유음화의 적용 여부가 달라짐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21

정답 ③

정답 해설 | ‘설익다[설릭따]’는 복합어(설-익다)로, 뒷말의 첫 음절이 ‘이’로 시작하는 경우 ‘ㄴ’ 첨가가 일어나 [설닉따]로, 다시 음운 교체인 유음화, 된소리되기에 의해서 [설릭따]가 되면서 7개에서 8개로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어났다. ‘물엿[물려]’도 복합어(물-엿)로서 ‘ㄴ’ 첨가와 유음화, 음절끝소리규칙에 의해 음운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5개에서 6개로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어났다.

오답 해설 | ① ‘없으면[업쓰면]’은 겹받침이 탈락한 것이 아니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면서 된소리화(음운 교체)가 되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음운의 개수는 7개로 동일하다.
 ② ‘웃맵시’는 [온맵시→온맵시→온맵씨]로 세 번 음운 교체가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④ ‘넌네[널레]’는 탈락(자음군 단순화) 및 교체(유음화)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다. 그러나 ‘부엌문[부영문]’은 음운 교체(음절 끝소리,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났을 뿐 탈락이 없고 음운의 개수도 변하지 않았다.
 ⑤ ‘침하교[치카고]’와 ‘넙죽하다[넙쭈카다]’는 모두 겹받침의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다. 여기에 ‘넙죽하다’는 된소리되기라는 음운 교체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22

정답 ⑤

정답 해설 | ‘갑기’는 ‘ㄱ-ㅏ-ㅓ-ㄱ-ㅣ’로 발음하는데,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므로 <그림 1>의 9에 해당되고, ‘ㅏ’는 입이 열리는 개모음이면서 후설 모음이므로 <그림 2>의 혀가 뒷부분에 있고 입이 벌어진 ⑥에 해당되고, ‘ㅓ’는 입술소리로 <그림 1>의 5에 해당된다. 그리고 ‘ㅣ’는 다시 여린입천장소리로 <그림 1>의 9, 마지막으로 ‘ㅣ’는 폐모음이고, 전설 모음이면서 고모음으로서 혀가 윗잇몸에 닿는 소리이므로 <그림 2>의 ㉢에 해당된다.

STEP		A				음운 ③
		1등급 도전문제				
23 ②	24 ④	25 ②	26 ③	27 ⑤	28 ②	
29 ②	30 ④	31 ⑤	32 ②	33 ②	34 ④	
35 ①						

23

정답 ②

보기 분석 | 이중 모음의 개념과 발음 원리, 반모음의 개념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정답 해설 | 모음 ‘ㅟ[ju]’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ㅜ’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오답 해설 | ① ‘ㅓ[e]’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ㅓ’가 결합하여 나는 이중 모음이다.
③ ‘ㅓ[je]’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ㅓ’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고, ‘ㅓ[wæ]’는 반모음 ‘ㅓ/ㅜ’와 단모음 ‘ㅓ’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④ ‘ㅓ[ja]’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ㅓ’의 결합하여 나는 이중 모음이다. 반모음 ‘ㅣ’는 ‘ㅣ’의 자리에서 발음될 때의 입술 모양을 취한다. 즉 고모음인 ‘ㅣ’의 위치에 혀의 최고점이 위치해 있다. 그러나 단모음 ‘ㅓ’는 저모음으로 혀의 최고점 위치가 ‘ㅣ’에 비해 낮다.

⑤ 모음 ‘ㅓ’를 발음할 때 처음에는 입술 모양을 둥그랗게 오므리는데, 이는 반모음 ‘ㅓ/ㅜ’가 입술 모양을 둥그랗게 오므리는 반모음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단모음 ‘ㅓ’를 발음하는데, 단모음 ‘ㅓ’는 원순 모음이 아니라 평순 모음이기 때문에 입술을 오므리지 않는다.

blacklabel 특강 이중 모음

이중 모음이란 발음하는 도중에 조음 기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을 일컫는다.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두 개의 음운이다. 반모음은 단독으로 발음될 수는 없지만 이중 모음의 발음 시 단모음 앞에서 발음되는 음운이라 할 수 있다. 보통 ‘ㅣ’, ‘ㅓ/ㅜ’ 두 개의 반모음으로 분류한다.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은 ‘ㅓ, ㅓ, ㅓ, ㅓ, ㅓ’가 있고, 반모음 ‘ㅓ/ㅜ’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은 ‘ㅓ, ㅓ, ㅓ, ㅓ’가 있다.

한편,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 평순 모음으로 나뉜다.

24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유음에 의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두 용례를 보여 주고 있다. ㄱ은 유음화의 예이고, ㄴ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음 탈락의 예이다.

정답 해설 | ㄱ은 유음인 ‘ㄹ’에 인접한 ‘ㄴ’이라는 음운론적인 조건만 주어지면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지만, ㄴ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다. 동일한 음운론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유음 탈락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ㄱ에서는 음운 ‘ㄴ’이 음운 ‘ㄹ’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반면에 ㄴ에서는 ‘ㄹ’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② ㄱ은 음운의 동화 현상이지만, ㄴ은 음운의 탈락 현상이다.

③ ㄱ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지만, ㄴ은 음운의 탈락이라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다.

⑤ ㄱ과 ㄴ 모두 ‘ㄹ’에 인접한 ‘ㄴ’에 변화가 생기는 음운 현상이다. 다만 ㄴ은 <보기>와 같은 음운론적인 조건 외에 용언의 어간 말이라는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덧붙여져 있을 뿐이다.

blacklabel 특강 유음(ㄹ)에 의한 음운 변동

유음화는 유음인 ‘ㄹ’에 인접한 ‘ㄴ’이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동화의 방향으로 볼 때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모두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 내에서도 ‘물난리[물랴리]’의 경우에서 보듯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모두 일어날 수 있다.

유음 탈락은 ‘ㄹ’이 ‘ㄴ, ㅅ’ 등과 같은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유음 탈락은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거나 또는 어근들끼리 결합하여 복합어를 만들 때 일어난다.

용언 어간에 적용되는 유음 탈락의 경우 ‘ㄴ, ㅅ’ 앞에 오는 어간 말의 ‘ㄹ’은 예외 없이 탈락한다. 이러한 예를 용언의 활용 측면에서 언급할 때 ‘ㄹ’ 탈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복합어에 적용되는 유음 탈락은 ‘ㄴ, ㅅ’ 외에 ‘ㄷ, ㅌ’도 포함되지만 세력이 그리 강하지 않고 ‘활사위, 돌도끼, 물질’ 등처럼 동일한 적용 환경에서 유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5

정답 ②

보기 분석 | 비음화의 개념과 과정을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비음화에 있어서 독특한 모습을 띠는 ‘ㄹ’의 비음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정답 해설 | ‘입는[입는]’에서 ‘ㅍ’과 동일한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은 ‘ㅁ’이고 ‘믿는[믿는]’에서 ‘ㄷ’과 동일한 조음 위치에 있는 비음은 ‘ㄴ’이다.

오답 해설 | ① ‘종로[종노]’는 ‘ㄹ’의 비음화로 동화음이 ‘ㅇ’이고 피동화음이 ‘ㄹ’이다. 즉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앞에 위치한 순행 동화에 속한다. 그러나 ‘국물[궁물]’은 동화음이 ‘ㅁ’이고 피동화음이 ‘ㄱ’으로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뒤에 위치한 역행 동화에 속한다.

③ ‘떡 만들다[똥만들다]’를 보면 첫 번째 단어의 종성인 ‘ㄱ’과 두 번째 단어의 첫음절 초성인 ‘ㄱ’ 사이에서 비음화가 일어나 ‘떡’의 종성인 ‘ㄱ’이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인 ‘ㅇ’으로 바뀌어 알 수 있다.

④ ‘흙만[흙만]’은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 ‘흙만 → 흑만’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에 비음화가 일어나 ‘흑만 → [흑만]’으로 바뀌게 된다.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있는 → 인는’이 된다. 즉 음절의 끝소리가 평파열음인 ‘ㄷ’으로 먼저 바뀐다. 이후에 비음화가 일어나 ‘인는 → [인는]’으로 바뀌게 된다.

blacklabel 특강 비음화

비음화는 파열음(ㄱ, ㄲ, ㅋ, ㄷ, ㄸ, ㅌ, ㅊ, ㅌ, ㅍ), 파찰음(ㅈ, ㅉ, ㅊ, ㅊ), 마찰음(ㅅ, ㅆ, ㅎ)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자음들은 비음화가 적용되기 전에 음절의 종성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먼저 받는다. 결과적으로 비음화의 피동화음은 파열음 중 ‘ㄱ, ㄷ, ㅌ’에 한정되게 된다.

일종의 조음 방법 동화인 비음화가 일어날 때 피동화음(ㄱ, ㄷ, ㅌ)은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뀐다. 즉,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경구개음에 속하는 ‘ㄱ’은 동일한 경구개음이자 비음인 ‘ㅇ’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ㄷ’은 잇몸소리이자 비음인 ‘ㄴ’으로 바뀐다. ‘ㅌ’은 양순음이자 비음인 ‘ㅁ’으로 바뀐다.

26

정답 ③

보기 분석 | ㄱ은 구개음화가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된 경우로 역사적 음운 변화로서의 구개음화를 보여 주고 있다. ㄴ은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으로서의 구개음화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 해설 | ㄱ은 구개음화로 인해 형태소의 모양 자체가 ‘티다’에서 ‘치다’로 바뀌어 버렸지만, ㄴ은 형태소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음운이 바뀌었을 뿐이다.

오답 해설 | ① ㄱ, ㄴ 모두 음운론적인 제약에 의해 일어난 변화일 뿐, 의미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

② ‘ㅌ’이 ‘ㅣ’모음 앞에서 구개음 ‘ㅊ’으로 바뀌는 것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다.

④ ㄱ처럼 역사적으로 일어난 구개음화의 예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예로 ‘털>절(寺)’, ‘뉘>천하(天下)’ 등이 있다. ㄴ의 또 다른 예로는 ‘굳이, 같이, 미닫이’ 등이 있다.

⑤ ㄱ은 구개음화가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적용되어 형태소의 모양 자체까지도

바꾸어 버린 경우에 해당하는 동시적 음운 변화이며, ㄴ은 구개음화가 실질 형태소의 받침 'ㄷ'이 '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서 일어나는 공시적 음운 변동이다.

27

정답 ⑤

보기 분석 | 음운론적인 제약의 개념을 밝힌 후에 그것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음운론적 제약의 단위는 음소, 음절 등으로 '용언의 어간 말'이라는 조건은 음운론적인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ㅎ'과 예사소리는 인접할 수 없다는 음소 배열 제약으로 인해 이를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ㅎ'과 예사소리가 축약되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게 된다.

② 'ㄹ' 앞에 올 수 있는 자음이 'ㄹ'밖에 없다는 음절 배열 제약으로 인해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게 된다.

③ 'ㄱ, ㄷ, ㅂ' 뒤에 'ㄴ, ㅁ'이 결합할 수 없다는 음절 배열 제약을 어기게 되면 'ㄱ, ㄷ, ㅂ'이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게 된다.

④ 음절의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종류만 올 수 있다는 음절 구조의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ㅅ'처럼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ㄱ, ㄷ, ㅂ' 중 한 자음으로 바뀌게 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게 된다.

blacklabel 특강 음운론적 제약

음소나 음절 같은 음운론적 단위들의 구조 및 배열이 일정 정도의 제약을 받는 것을 음운론적 제약이라고 한다. 음운론적 제약은 예외없이 적용되는 매우 강력한 것도 있는가 하면 높은 비율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ㄱ, ㄷ, ㅂ'과 같은 평파열음과 비음 'ㄴ, ㅁ'이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은 예외가 전혀 없는 제약이다. 그러나 'ㄷ, ㅌ'과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ㅇ'이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경향성은 있지만 '디디어, 마디, 잔디' 등과 같은 예외가 있다. 음운론적 제약은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등저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28

정답 ②

보기 분석 | 음절 단위로 발음이 될 때 음절 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한 가지만 일어나기도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기>에 제시된 예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 '읽는[잉는]'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굴잎만[굴림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ㄴ첨가, 유음화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밭이랑[반니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첨가, 비음화가 일어난다. '색연필[생년필]'은 'ㄴ'첨가,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 네 가지 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비음화이다.

오답 해설 | ① 음절 끝소리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 'ㅎ'탈락, 유음 탈락 등이 있는데 <보기>에 제시된 예 중에 이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읽는[잉는]'이다.

③ 'ㄴ'첨가와 비음화와 관련있는 내용으로 '굴잎만[굴림만]', '밭이랑[반니랑]', '색연필[생년필]'만 이를 충족하고 있다.

④ 된소리되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에 제시된 단어 가운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예는 찾을 수 없다.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에 제시된 예 중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굴잎만[굴림만]', '밭이랑[반니랑]'뿐이다.

blacklabel 특강 자음군 단순화와 'ㄴ' 첨가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일 때 이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음운 현상이다. 국어의 음절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는 최대 하나이다. 그러나 형태소끼리 결합하거나 한 형태소가 단독으로 쓰이는 과정에서 두 개의 자음이 음절 종성에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두 자음 중 하나를 없애게 된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겹받침의 종류에 따라 어떤 자음이 탈락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ㄴ'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음운 현상이다. 이때 선행하는 말은 접두사이든 일반 단어이든 상관없지만 후행하는 말은 실질 형태소이거나 한자 계열의 접미사이어야 한다. 어미나 조사를 포함하여 고유어 계열의 형식 형태소가 후행하면 'ㄴ' 첨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ㄴ' 첨가는 항상 일어나야 하는 필수적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3·1절[사밀절처럼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9

정답 ②

보기 분석 | 음운 변동의 네 유형에 대한 설명과 두 가지 이상의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 해설 | '백분율[백뽀율]'에서는 음운의 교체와 첨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백분율 → 백뽀율'에서 첫 번째 음절의 파열음 'ㄱ'이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인 'ㅂ'에 영향을 주어 된소리되기(음운의 교체)가 일어나고, '백뽀율 → [백뽀율]'에서 'ㄴ'첨가(음운의 첨가)가 일어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꽃히다[꼬치다]'는 파찰음 'ㅈ'이 뒤의 'ㅎ'과 축약되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결막염[결망념]'은 '결막염 → 결망념'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결망념 → [결망념]'에서 비음화(자음의 교체)가 일어난다.

④ '알는[알른]'은 '알는 → 알른'에서 'ㅎ' 탈락(자음의 탈락)이 일어나고, '알는 → [알른]'에서 유음화(자음의 교체)가 일어난다.

⑤ '만머느리[만며느리]'는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ㄹ'이 동화음이 되어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ㄷ'을 비음인 'ㄴ'으로 동화시키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blacklabel 특강 음운 변동의 종류

음운의 교체는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등이 있다. 음운의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유음 탈락, 모음 탈락 등이 있다. 음운의 첨가는 없던 음운이 덧붙는 현상으로 'ㄴ' 첨가, 반모음 첨가 등이 있다. 음운의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거센소리되기가 있다.

30

정답 ④

보기 분석 | 음운 변동의 복합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음운 변동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답 해설 | '얹만[압만]'은 '얹만(음절의 끝소리 규칙) → 압만(비음화)'으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겪다[적따]'는 '겪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 격따(된소리되기)'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그런데 '논일[논닐]'은 'ㄴ' 첨가만 나타나 [논닐]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엷는[엄는]'은 '엷는(음절의 끝소리 규칙) → 엄는(비음화)'으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빳다[빔따]'는 '빳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빔따(된소리되기)'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꽃잎[꼇닙]'은 '꼇닙(음절의 끝소리 규칙) → 꼇닙('ㄴ' 첨가) → 꼇닙(비음화)'으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② '쫘는[쫘는]'은 '쫘는(음절의 끝소리 규칙) → 쫘는(비음화)'으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땃다[땃따]'는 '땃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 땃따(된소리되기)'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늑여름[늑너름]'은 '늑여름(음절의 끝소리 규칙) → 늑너름('ㄴ' 첨가) → 늑너름(비음화)'으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잇는[인는]'은 '잇는(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인는(비음화)'으로 소리 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웃장[울짱]'은 '웃장(음절의 끝소리 규칙) → 울짱(된소리

되기)으로 소리 나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다. '나뭇잎[나문닙]'은 '나문입(음절의 끝소리 규칙) → 나문닙(ㄴ' 첨가) → 나문닙(비음화)'으로 소리 나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다.

⑤ '끝물[끈물]'은 '끈물(음절의 끝소리 규칙) → 끈물(비음화)'로 소리 나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다. '역다[억따]'는 '역다(음절의 끝소리 규칙) → 역따(된소리되기)'로 소리 나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다. '홀이불[흔니불]'은 '홀이불(음절의 끝소리 규칙) → 홀니불(ㄴ' 첨가) → 흔니불(비음화)'로 소리 나므로 ㉔의 예로 적절하다.

blacklabel 특강 음운 변동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다른 음운 변동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숨만[숨만]'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비음화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음화의 피동화음인 'ㄱ, ㄷ, ㅂ' 가운데 하나가 되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임도[임또]'를 살펴보면 된소리되기 역시 'ㄱ, ㄷ, ㅂ' 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된소리되기는 평파열음 뒤에서 적용되므로 평파열음화가 먼저 적용되지 않으면 된소리되기는 적용될 수가 없다.

31

정답 ⑤

보기 분석 음운 동화의 피동화음과 동화음의 개념을 제시한 후, 음운의 동화 현상을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해설 '난로[날:로]'의 동화음은 'ㄹ'이고 '떡는[명는]'의 동화음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ㄴ'이다.

오답 해설 ① 동화음인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ㄹ'이 피동화음인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ㄴ'보다 앞에 있으므로 순행 동화이다.

② 동화음인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ㄹ'이 피동화음인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ㅂ'보다 뒤에 있으므로 역행 동화이다.

③ '물난리[물랄리]'에서 첫 번째 음절의 종성 'ㄹ'과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ㄴ' 사이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 음절의 종성 'ㄴ'과 세 번째 음절의 초성 'ㄹ' 사이에서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④ '잡는[잠는]'과 '국물[궁물]'은 모두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잡는[잠는]'의 동화음은 'ㄴ'이고 '국물[궁물]'의 동화음은 'ㄹ'으로 둘 다 비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blacklabel 특강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

동화 현상은 피동화음이 동화음에 닿아 가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동화 현상으로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있다. 동화의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로 나뉘는데, 순행 동화는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앞에 있는 것이고 역행 동화는 동화음이 피동화음보다 뒤에 위치해 있으므로 역행 동화에 속한다. 그러나 '종로[중로]'처럼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ㄹ'의 비음화의 경우는 순행 동화에 속한다.

유음화는 순행 동화, 역행 동화 모두 존재한다. '물놀이[물로리]', '불능[불릉]' 등은 순행 동화에 해당하고 '난로[날:로]', '신리[실리]' 등은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32

정답 ②

보기 분석 동일 모음 탈락, 'ㄴ' 탈락, 반모음 'ㅣ' 탈락의 개념과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답 해설 표면적으로는 어간의 모음 'ㅏ'와 어미의 모음 'ㅏ'가 서로 다르지만 'ㅏ'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ㅏ'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다. 그러므로 'ㅏ'도 'ㅣ'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 모음 탈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어간 '가-'의 모음 'ㅏ'와 어미의 모음 'ㅏ'가 동일한 모음이므로 동일 모음 탈락에 해당한다. 이때 모음 조화에 의해 'ㅏ'로 끝나는 어간 뒤에는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다.

③ 치르- + -어도 → [치러도]는 용언 어간의 'ㄴ'이 다른 모음인 'ㅣ' 앞에서 탈락하는 'ㄴ' 탈락이고, '가- + -으니 → [가니]'는 다른 모음인 'ㅏ' 뒤에서 'ㄴ'이 탈락하는 경우이다.

④ '기울- + -으면 → [기울면]'은 모음과 성질이 비슷한 유음 'ㄹ' 뒤에서 'ㄴ'이 탈락한 경우이고, '펴- + -은 → [편]'은 모음 'ㅣ'가 단모음 'ㅏ' 뒤에서 탈락한 경우이다. 공통적으로 다른 음운의 뒤에서 탈락하는 'ㄴ' 탈락임을 알 수 있다.

⑤ '찌- + -어서 → [찌서] → [쳐서]'에서 '찌서' → [쳐서]는 반모음 'ㅣ'가 탈락한 것이다. 그런데 음운 변동의 중간 단계인 '찌서'는 '찌- + -어서 → [찌서]'의 반모음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blacklabel 특강 매개 모음 어미

'ㄴ' 탈락의 적용을 받는 어미, 즉 'ㄴ'로 시작하는 어미를 흔히 매개 모음 어미라고 부른다. 매개 모음 어미에는 '-으니, -으면, -은, -을' 등이 있다. 매개 모음 어미는 앞선 형태소가 모음이 나 'ㄹ'로 끝나면 'ㄴ'이 없는 형태로 실현되고 그 이외의 환경에서는 'ㄴ'이 있는 형태로 실현된다. 어미에 'ㄴ' 탈락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ㄴ'이 있는 형태를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33

정답 ②

보기 분석 반모음화, 'ㅎ' 탈락, 동일 모음 탈락,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축약 등 다양한 음운 변동의 예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 해설 ㄱ은 다른 단모음 앞에서 단모음이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뀌는 반모음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반모음화는 'ㅣ'나 'ㅏ, ㅑ'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일어난다.

ㄴ은 '홀고 → 홀고 → 홀꼬 → [홀꼬]'의 음운 변동을 거친다.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오답 해설 ㄴ은 겹받침 중 'ㅎ'이 뒷말의 첫소리로 연음되어야 하나, 탈락한 뒤 'ㄹ'이 연음되었으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아닌 'ㅎ' 탈락으로 보아야 한다.

ㄷ에서 'ㄷ'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ㅏ'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이다. 즉 'ㄷ'가 'ㅣ'로 끝나므로 동일한 모음들의 연쇄에서 모음이 탈락한 동일 모음 탈락이다.

ㅁ은 두 자음이 제3의 자음으로 바뀌었으므로 탈락이 아니라 축약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4

정답 ④

보기 분석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음운 변동의 유무와 그 양상에 따라 겹받침이 발음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㉗의 경우는 겹받침 중 뒤엿것이 그대로 연음이 되어 본음대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㉔은 겹받침 중 뒤엿것이 탈락되고 앞엿것이 연음되어 본음대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㉔은 겹받침 중 뒤엿것이 일단 연음된 후 인접한 음운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경우이다.

정답 해설 '닭을[달글]'은 겹받침 중 뒤엿것인 'ㄱ'이 그대로 연음되어 발음된다. '앉아[아나]'는 겹받침 중 뒤엿것인 'ㅎ'이 탈락하고 앞엿것인 'ㄴ'이 연음되어 그대로 발음된다. '활이다[할치다]'는 겹받침 중 뒤엿것인 'ㅍ'이 연음된 후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화를 일으켜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앉아[안자]'는 ㉔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값을[갑쓸]'은 겹받침 중 뒤엿것인 'ㅅ'이 연음된 후 앞에 위치하는 'ㅂ'의 영향으로 인해 된소리되기나 일어나 된소리인 'ㅆ'으로 발음하게 되는 경우로 ㉔에 해당한다. '앉아[아라]'는 ㉔에 해당한다.

② '닭으니[다르니]'는 ㉔에 해당한다. '옳어[올퍼]'는 ㉔에 해당한다. '뚫이[뚝씨]'는 ㉔에 해당한다.

③ '활아[할타]'와 '맑은[발븐]'은 ㉔에 해당한다. '냇을[넉쓸]'은 ㉔에 해당한다.

⑤ ‘짧어[절머]’는 ㉠에 해당한다. ‘없어[업써]’와 ‘훑이다[홀치다]’는 ㉡에 해당한다.

blacklabel 특강 **겹받침의 발음**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의 발음에 대해서는 표준 발음법 제14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표준 발음법 제14항의 내용이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해설] 말하자면 첫째 받침은 그대로 받침의 소리로 발음하되 둘째 받침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컨대 ‘닭이[달기]’, ‘통닭을[통달글]’과 같은 것이다. 이때에 연음되는 받침의 소리는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나 예외가 있다(알아[아라], 끊어[끄너], 훑이다[홀치다]). 그리고 겹받침 ‘ㄱ, ㄹ, ㅂ’의 경우에는 ‘ㅅ’을 연음하되 된소리 ‘ㅆ’으로 발음한다.

35

정답 ①

보기 분석 | <보기>는 표준 발음법 규정의 일부이다. 제8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제13항은 연음, 제15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연음, 제18항은 비음화, 제23항은 된소리되기, 제29항은 ‘ㄴ’ 첨가를 다루고 있다.

정답 해설 | ‘색연필’은 제29항에 의해 [색년필]로 발음된 후 제18항에 의해 [생년필]로 발음된다. ‘운동장’은 [운동장]으로 발음된다. 이들은 모두 종성에서 실현되는 음운 ‘ㅇ’을 포함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헛웃음’은 제8항, 제13항, 제15항에 의해 [허두슴]으로 발음된다. ‘웃맴씨’는 제8항과 제23항에 의해 [온맴씨]로 바뀐 후 제18항에 의해 [온맴씨]로 발음된다. [허두슴]에는 ‘ㅅ’이 포함되지만 [온맴씨]에는 ‘ㅅ’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젓머기’는 제8항과 제13항에 의해 [절머기]로 바뀐 후 제18항에 의해 [전머기]로 발음된다. ‘숨이불’은 제29항에 의해 [숨니불]로 발음된다. [전머기]와 [숨니불]은 모두 ‘ㄴ’을 포함한다.

④ ‘뭉이다’는 제13항에 의해 [무끼다]로 발음되고 [깁다]는 제8항, 제23항에 의해 [깍다]로 발음된다. [무끼다]와 [깍다]는 모두 ‘ㅍ’을 포함한다.

⑤ ‘꽃다발’은 제8항, 제23항에 의해 [꼇따발]로 발음된다. ‘짓다’ 또한 제8항, 제23항에 의해 [진따]로 발음된다. [꼇따발]과 [진따]는 모두 ‘ㄷ’을 포함한다.

활용하지만 ‘오리’의 음운은 ‘ㅇ, ㄹ, ㄴ’의 3개이다. 표기에서 활용되는 ‘ㅇ’은 음운이 아니라 단지 표기상의 규칙을 위해 적어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눈에 보이는 표기를 음운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을 ‘표기의 환형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데 음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는 음운은 음성과 구분된다는 점이다. 음운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적 소리 단위라면, 음성은 음운이 실제 개인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실제 소리 단위이다. ‘ㅂ’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제 발음을 분석해, 보면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음성적 차원에서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ㅂ’ 발음을 듣고도 이를 공통적으로 ‘ㅂ’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음운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정답 해설 | 음운은 소리의 단위라는 점에서 음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표기가 아니라 단어의 실제 소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발을 신고’에서의 ‘신고[신포]’와 ‘분실물 신고’에서의 ‘신고[신포]’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ㅍ’과 ‘ㅂ’이므로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우리말 표기에서 초성 자리에 표기된 ‘ㅇ’은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임’은 음운 ‘ㄴ, ㅁ’을 가질 뿐 음운 ‘ㅇ’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ㅎ’과 ‘ㅇ’이 의미를 구분해 주고 있어 별개의 음운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죄’와 ‘쥐’에 사용된 단모음은 ‘ㅣ’와 ‘ㅟ’이다. 이들 각각은 단모음 ㅏ, ㅑ와는 다른 별개의 음운이다. ‘ㅣ’와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때 ‘ㅣ’의 음가는 ‘ㅏ’와 ‘ㅣ’의 결합이 아니라 ‘ㅏ’와 ‘ㅟ’의 결합에 가깝고, ‘ㅟ’는 반모음 ㅜ/ㅡ와 ‘ㅣ’의 결합에 가깝다. 이 경우에도 ‘ㅏ’와 ‘ㅟ’는 의미를 구분해 주는 별개의 음운이라고 말할 수 없다.

④ 영어에서는 ‘r’과 ‘l’이 별개의 음운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말 음운 체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에 ‘r’과 ‘l’은 분명히 음성적으로 다른 소리이지만 우리말 음운 체계에서는 모두 ‘ㄹ’로 인식된다. 이는 우리말에서 ‘r’과 ‘l’이 음운 차원에서 구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⑤ ‘뱌’는 ‘ㅂ, ㅌ, ㅍ’이라는 음운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하지만 초성의 ‘ㅂ’과 종성의 ‘ㅂ’은 같은 음운이지만 이것이 실제 발음되는 음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두 소리는 차이를 보인다. 초성의 ‘ㅂ’은 파열되지만 종성의 ‘ㅂ’은 파열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말에서는 해당 음운이 음절의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다른 음성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말 음운 체계에서는 음운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지만 다른 언어의 음운 체계에서는 음운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로마자 표기에서는 이런 음성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37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에서는 음절의 개념과 유형을 다루고 있다. 우리말 음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모음이다. 모음을 중심으로 자음이 결합되거나 모음 단독으로 음절이 형성된다. 이에 모음을 ‘성절음(음절을 이루는 소리)’이라고도 부른다. 중요한 것은 이 음절 역시 음운과 마찬가지로 소리의 단위라는 것이다. 곧 음절은 실제 발음을 기준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단어의 표기와 귀로 인식하는 음절의 형태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답 해설 | ‘웃음’과 ‘걸음’의 음절 형태는 모두 연음으로 인해 [우슴], [거름]으로 발음된다. 각 단어의 첫음절은 [우]와 [거]로, [우]는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며(초성의 ‘ㅇ’은 음운이 아니다), [거]는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라는 점에서 음절의 유형이 다르다.

오답 해설 | ① ‘쌍이다’의 음절 형태는 중성 ‘ㅎ’이 모음 앞에서 탈락되는 현상으로 인해 [싸이다]로 발음된다. 이때 첫음절은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지며 둘째 음절은 중성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두 음절의 유형은 다르다.

③ ‘직행열차’는 발음 과정에서 축약과 ㄴ첨가 현상이 일어나 [지깁열차]로 발음된다. 이때 첫음절과 넷째 음절은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음절 유형이 동일하다.

④ ‘값어치’는 발음 과정에서 겹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고 이후 연음되는 현상이 일어나 그 음절 형태가 [가버치]로 발음된다. 첫음절은 초성+중성의 형태를

36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음운 개념을 이해할 때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음운이 표기가 아닌 소리의 단위라는 점이다. 음운을 이해할 때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글자를 음운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글자는 음운을 시각적으로 옮겨 놓은 매체일 뿐 소리인 음운과 다르다. 예를 들어 단어 ‘오리’의 표기는 ‘ㅇ, ㄱ, ㄹ, ㅣ’라는 4개의 글자를

STEP		A		1등급 도전문제		음운 ④
36	③	37	②	38	②	39 ⑤
40	⑤	41	⑤	42	③	43 ④
44	②					

된다. ‘맑음’은 겹받침 중 하나가 뒤로 연음되어 [말금]으로 발음되며, 첫음절은 ‘초성+중성+중성’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두 음절의 유형은 다르다.

⑤ ‘한여름’은 발음 과정에서 ‘ㄴ’첨가 현상이 일어나 그 음절 형태가 [한너름]으로 발음된다. ‘목요일’은 발음 과정에서 첫음절의 받침이 연음되어 [모요일]로 발음된다. 이들 단어의 둘째 음절은 모두 음절은 ‘초성+중성’의 형태를 띤다.

blacklabel 특강 음절 형성의 조건

‘음절’이란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말하는데, 그 음절은 음운으로 구성된다. 국어에서 음절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한다. 국어의 음절은 ‘(자음)+모음+(자음)’의 구조를 따른다.

38

정답 ②

보기 분석 | 음운 변동의 양상 중 교체의 다양한 양상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있다. ㉠에는 음운의 첨가, 탈락, 축약의 예, ㉡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 ㉢에는 구개음화의 예, ㉣에는 역행 동화의 예, ㉤에는 순행 동화의 예가 들어가야 한다.

정답 해설 | ‘부엌[부억]’은 음운의 교체가면서 한 음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의 사례로 ㉡에 해당한다. 그러나 ‘흙[흑]’은 음운의 변동이 교체가 아니라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하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얇은[아는]’은 ‘ㅎ’ 탈락, ‘낱고[나코]’는 거센소리되기(축약), ‘맨입[맨닙]’은 ‘ㄴ’ 첨가에 해당한다. 세 경우 모두 음운의 교체가 아니므로 ㉢에 해당한다.

③ ‘땀받이[땀바지]’, ‘벼훔치[벼훔치]’는 구개음화로 음운의 교체가면서 경구개음이 아닌 자음 ‘ㄷ, ㅌ’과 모음 ‘ㅣ’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그러므로 ㉣에 해당한다.

④ ‘심리[심니]’는 ‘ㄹ’의 비음화, ‘국밥[국빔]’은 된소리되기, ‘설날[설랄]’은 ‘ㄴ’의 유음화가 일어났으므로 모두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심리[심니]’는 뒤에 있는 자음 ‘ㄹ’이 앞에 있는 자음인 비음 ‘ㄹ’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인 ‘ㄴ’으로 변한 현상이다. ‘국밥[국빔]’은 뒤에 있는 자음인 예사소리 ‘ㅍ’이 앞에 있는 자음인 파열음 ‘ㄱ’의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인 ‘ㅃ’으로 변한 현상이다. ‘설날[설랄]’은 뒤에 있는 자음인 비음 ‘ㄴ’이 앞에 있는 자음인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ㄹ’로 변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세 사례 모두 ㉤에 해당한다.

⑤ ‘곡물[궁물]’은 비음화, ‘권력[궐력]’은 역행적 유음화로 모두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곡물[궁물]’은 앞에 있는 자음 ‘ㄱ’이 뒤에 있는 자음인 비음 ‘ㄹ’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인 ‘ㅇ’으로 변하는 비음화이다. ‘권력[궐력]’은 앞에 있는 자음인 ‘ㄴ’이 뒤에 있는 자음인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인 ‘ㄹ’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그러므로 두 경우 모두 ㉤에 해당한다.

39

정답 ⑤

보기 분석 | 음운 규칙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며, 음운 규칙의 순서가 잘못 적용될 경우 잘못된 음운 변동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하는 음운 규칙이 후행하는 음운 규칙의 적용을 가로막기도 하고 반대로 적용을 가능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해설 | ‘알--+으니[아니]’는 ‘ㄴ’ 탈락이 먼저 적용되어야 ‘알--+니’가 되어 유음 탈락의 적용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ㄴ’ 탈락이 먼저 적용되지 않았다면 ‘알+으니[아르니]’가 되어 유음 탈락 또한 적용될 수 없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읽--+고[일꼬]’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된다면 ‘읽고 → 일고 → [일꼬]’가 되는데 이 경우 ‘읽고 → [일꼬]’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혹은 ‘읽고 → 익고 → [익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잘못된 음운 규칙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② ‘똥--+는[똥른]’의 경우에 ‘똥는 → 똥는 → [똥른]’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똥는 → 똥는’처럼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되지 않는다면 ‘똥는 → 똥는 → [똥는]’처럼 잘못된 음운 규칙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③ ‘값--+는[값는]’에서 비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으로 인해 비음화의 적용 기회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④ ‘줄--+는[조는]’에서 유음 탈락이 먼저 적용되어 ‘[조는]’이 되어 버림으로써 유음화의 적용 기회가 사라졌다. 만약, 유음화가 먼저 적용되었다면 ‘[졸른]’이라는 잘못된 음운 규칙의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blacklabel 특강 음운 규칙의 적용 순서

음운 규칙의 적용 순서를 어기면 잘못된 음운 규칙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또한 규칙의 적용 순서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규칙순을 맺고 있는 두 규칙 사이의 영향 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선행하는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후행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규칙순이다. 예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ㄴ’ 탈락 → 유음 탈락, ‘자음군 단순화 → 유음화’ 등이 있다. 반대로 선행하는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후행하는 규칙이 적용될 기회를 잃게 되는 규칙순이 있다. 예로는 ‘거센소리되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 비음화’, ‘유음 탈락 → 유음화’ 등이 있는데 모두 앞의 규칙의 적용으로 뒤의 규칙이 적용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40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비음화와 유음화에 관한 표준 발음법 규정이다.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자음 동화로 특정한 자음이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조음 방법이 비음 또는 유음으로 변경되는 현상이다. 이는 음운 변동의 유형 중 교체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 제19항 붙임의 현상은 일반적인 비음화와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비음화는 후행하는 비음 ‘ㄴ, ㄹ’에 의해 선행하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동화의 매개체가 비음이다. 하지만 제19항 붙임은 후행하는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고 나서 선행하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오답 해설 | ① 제18항의 ‘밥 먹는다[밤명은다]’에서 알 수 있듯 비음화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②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동화 과정에서 조음 방법은 바뀌지만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조음 위치에 의한 동화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먹는[명은]’, ‘침략[침낙]’에서 비음화의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를, ‘난로[날로]’, ‘줄넘기[줄뎀기]’에서 유음화의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를 엿볼 수 있다.

④ 제20항의 사례는 음운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즉 유음과 비음이 만날 경우 유음화가 일어날지 비음화가 일어날지는 개별 단어에 따라 달라진다.

41

정답 ⑤

보기 분석 | 여러 음운 변동이 함께 일어나는 사례 중 겹받침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복합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답 해설 | ‘옳는[음는]’은 겹받침 중 ㄹ이 탈락하고 뒤의 음운인 ‘ㅍ’이 남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ㅃ’으로 교체되고, 교체된 ‘ㅃ’이 뒤 음절의 초성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ㄹ’으로 교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체된 음운 ‘ㅃ’이 다른 음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뭇만[몽만]’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겹받침 중 뒤엿것인 ‘ㅅ’이 탈락하고, 앞엿것인 ‘ㄱ’이 다음 음절의 초성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뽕하다[뽕파다]’는 겹받침 중 뒤엿것인 ‘ㅂ’이 다음 음절의 초성인 ‘ㅎ’과 만나 ‘ㅃ’으로 축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넙둥글다[넙똥글다]’는 겹받침 중 뒤의 음운인 ‘ㅂ’이 다음 음절의 초성 ‘ㄷ’을 된소리인 ‘ㅃ’으로 바뀌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값을[갑쓸]’은 겹받침 중 뒤의 음운인 ‘ㅅ’이 연음이 된 후 겹받침 중 앞의 음운인 ‘ㅂ’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인 ‘ㅃ’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blacklabel 특강 겹받침과 음운 변동

우리말은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가 한 개라는 음운론적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자음이 하나 탈락한다. 그런데 탈락되기 전에 인접한 음운에 영향을 주고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되지 않은 음운이 다시 인접 음운에 영향을 받아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즉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의 겹받침 표기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는 것이다.

42

정답 ③

보기 분석 | 문장의 각 어절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문장에서 적용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보기>의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있다.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있다. ㉢과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음운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된소리되기이다.

정답 해설 | ㄱ은 ‘믿는[민는]’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 ‘싫었다[시편따]’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ㄴ은 ‘작다고[작:파고]’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몇몇은[면며츄는]’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ㄱ과 ㄴ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있다.

오답 해설 | ㄴ은 ‘큼직한[큼지간]’에서 거센소리되기, ‘집만[집만]’에서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ㄷ은 ‘닭들도[닥플도]’에서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없었다[업썰따]’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있다.
ㄹ은 ‘달나라[달라라]’에서 유음화가 일어나고 ‘주었다[주연따]’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있다.

43

정답 ④

보기 분석 | ㄱ은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굳혀 → 구터 → [구쳐]’와 같이 음운의 축약과 교체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ㄴ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불여우 → 불너우 → [불려우]’와 같이 ‘ㄴ’ 첨가 후 유음화(교체)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ㄷ은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끓다 → 점다 → [점따]’의 순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곧 탈락과 교체가 나타난 것이다.
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연음이 일어난 것으로 ‘젖어미 → 젼어미 → [저터미]’의 순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이때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교체 하나뿐이다.

정답 해설 | ㄴ과 ㄷ은 모두 2차례의 음운 변동을 거친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축약, ㄴ은 첨가, ㄷ은 탈락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음운의 개수가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ㄹ은 교체 후 연음이 일어난 것이므로 음운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
② ㄱ의 중성은 축약된 것이지 탈락된 것이 아니다.
③ ㄴ은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났다.
⑤ ㄹ은 자음의 조음 위치가 변화되었다. ㄱ에서 ‘ㄷ’은 잇몸소리(치조음)이고 ‘ㅎ’은 목청소리(후두음)인데 이 둘이 축약되어 교체된 ‘ㅊ’은 센입전장소리(경구개음)이다.

blacklabel 특강 연음 현상

연음 현상은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초성으로 옮겨 소리 나는 현상으로, 음절의 경계가 바뀐 것일 뿐 음운의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44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는 우리말 받침에 오는 ‘ㅎ’의 발음에 대한 설명이다. 받침

‘ㅎ’의 발음을 다루고 있는 규정은 표준 발음법 제12항으로 우리말에서 받침 ‘ㅎ’은 그것이 놓인 음운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음된다.
우리말에서 받침 ‘ㅎ’을 가지는 형태소 중 체언은 한글 자모 ‘ㅎ’의 명칭인 ‘히읇’ 하나이며, 나머지는 모두 용언의 어간이다. 우리말에서 받침 ‘ㅎ’이 놓이는 음운 환경은 <보기>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 ‘ㅎ, ㅈ, ㅊ’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 ‘낱은[나은]’, ‘쌍이다[싸이다]’, ‘맑아[마나]’, ‘싫어도[시러도]’와 같이 ‘ㅎ’은 발음되지 않은 채 탈락한다. 이때 ‘ㅈ, ㅊ’의 ‘ㅎ’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겹받침 중 하나만 선택되어 발음되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연음이 불가능해 겹받침의 두 자음 중 하나만 발음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미사가 오는 경우는 연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ㅈ, ㅊ’의 ‘ㅎ’이 ㉢과 같은 환경에서 탈락하는 것은 ‘ㅎ’을 받침으로 한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오는 어미가 오면 탈락하는 ‘ㅎ’의 음운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놓는[논는]’과 ‘않는[안는]’, ‘푹는[푹른]’의 발음에서 ‘ㅎ’의 음운 변동 유형은 차이를 보인다. ‘놓는[논는]’은 ‘ㅎ’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교체되는 것인데 반해 ‘않는[안는]’, ‘푹는[푹른]’은 ‘ㅎ’이 발음되지 않고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③ ㉠은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환경이며, ㉡은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환경이다. 이때 ‘ㅎ’이 발음되는 양상은 다른데 ㉠의 상황에서는 ‘ㅎ’이 ‘ㅅ’으로 교체되어 발음되지만 ㉡에서는 탈락된다. 특히 ‘히읇은’과 ‘낱은’은 받침 ‘ㅎ’ 뒤에 모음 ‘ㅡ’가 위치하는 동일한 음운 환경임에도 ‘ㅎ’이 변동되는 양상이 다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ㅎ’이 속한 형태소의 성격(체언, 용언의 어간)에 따라 음운 변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④ ‘놓고[노코]’, ‘종던[조턴]’처럼 ㉢에서는 축약에 의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에서는 ‘닿소[다쏘]’, ‘싫소[실쏘]’처럼 ‘ㅅ’이 ‘ㅎ’의 영향을 받아(정확히는 합쳐져) ‘ㅆ’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따라서 ㉢과 ㉣은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의 개수가 공통적으로 하나씩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며, ‘ㅎ’이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다.

⑤ ㉠~㉣은 우리말에서 받침 ‘ㅎ’이 나타날 수 있는 음운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탐구해 보면 받침 ‘ㅎ’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경우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01

정답 ①

보기 분석 <보기>는 자음의 개념과 그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서 장애를 받는가(조음 위치), 어떻게 장애를 받는가(조음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자음 체계표는 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음운론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된다. 자음 체계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의 어느 위치에 어떤 자음이 위치하는가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루는 용어들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파찰음은 입의 특정 부위를 닫아 공기를 막았다 터뜨린다는 점에서 파열음과 유사하지만, 공기를 터뜨릴 때 한 번에 터뜨리기보다는 서서히 공기를 내보낸다는 점에서 마찰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열)+(마)찰’이라 부르는 것이다.

정답 해설 파열음은 입의 특정 부위를 닫아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파열) 방식이지만, 마찰음은 좁은 틈을 만들어 그곳으로 공기를 흘려보내 그 마찰에 의해 소리를 내는 방식이다. 이런 조음 방법의 차이로 인해 파열음은 조음 기관끼리의 거리가 가깝고 마찰음은 조음 기관끼리의 거리가 멀다. ‘ㄷ’과 ‘ㅅ’은 모두 윗잇몸과 혀끝 소리를 이용하며 만드는 소리이나 ‘ㄷ’은 파열음이고 ‘ㅅ’은 마찰음이기때 ‘ㄷ’을 발음할 때 ‘ㅅ’에 비해 잇몸과 혀끝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비음의 조음 과정은 파열음과 마찬가지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다만 이때 코로 통하는 통로를 열어두어 공기의 흐름이 입뿐만 아니라 코로도 흐르게 한다는 점에서 파열음과 구분된다. 이에 많은 언어에서 파열음과 비음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ㅈ’은 파찰음으로 파열음과 마찰음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다. 다만 발음 과정에서 파열음의 특징인 폐쇄 과정(공기의 흐름을 막는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 마찰음의 특징인 공기의 통로를 좁게 만드는 과정이 일어난다.

④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 터뜨리는 방식은 파열음이며,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좁게 만드는 방식은 마찰음이다. 파열음은 다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3가지로 나뉘지만 마찰음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2가지로 나뉜다.

⑤ 유음과 비음은 조음 위치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비음은 코와 입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지만 유음은 입으로 공기가 빠져나간다. 다만 유음과 비음은 성대가 울리는 유성음이라는 점에서 조음 방법이 같다.

02

정답 ①

보기 분석 <보기>는 모음의 개념과 국어의 단모음, 이중 모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현대 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 전설과 후설,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과 평순,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며 총 10개의 모음이 존재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혀의 최고점 위치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				
고모음	ㅣ	ㅍ	ㅡ	ㅓ
중모음	ㅔ	ㅟ	ㅖ	ㅛ
저모음	ㅐ		ㅘ	

다만 이중 ‘ㅑ’와 ‘ㅕ’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함을 표준 발음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국어의 이중 모음은 총 11개로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반모음 ‘ㅣ’ 계열의 이중 모음(ㅑ, ㅕ, ㅛ, ㅜ, ㅠ, ㅡ, ㅝ)과 반모음 ‘ㅓ/ㅗ’ 계열의 이중 모음(ㅓ, ㅕ, ㅖ, ㅛ),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ㅗ’로 구분된다.

정답 해설 표준 발음법 규정의 해설에 따르면 단모음 체계표를 통해 단모음의 분류뿐만 아니라 단모음의 발음 방식 역시 알 수 있다. ‘ㅑ’와 ‘ㅣ’는 모두 전설 고모음으로 이들 모음은 입술 모양에 따라 구분된다. 이에 ‘ㅣ’ 발음을 하면서 입술 모양만 원순으로 발음하면 단모음 ‘ㅑ’가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 ‘ㅓ’와 ‘ㅕ’는 각각 반모음 ‘ㅓ/ㅗ’+ 단모음 ‘ㅓ’, ‘반모음 ‘ㅓ/ㅗ’+ 단모음 ‘ㅣ’의 구성으로 분석된다. 이때 반모음 ‘ㅓ/ㅗ’, 단모음 ‘ㅓ, ㅕ’는 모두 후설 모음에 속한다. 따라서 혀의 최고점 위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두면 계속 뒤편에 위치해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ㅓ, ㅕ’는 중설에 가까운 후설 모음이며 ‘ㅓ, ㅗ’는 후설 모음에 속하기에 혀의 최고점 위치가 뒤에서 앞으로 이동한다고는 할 수 있다.

③ 국어의 이중 모음은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반모음 ‘ㅣ’ 계열의 이중 모음(ㅑ, ㅕ, ㅛ, ㅜ, ㅠ, ㅡ, ㅝ)과 반모음 ‘ㅓ/ㅗ’ 계열의 이중 모음(ㅓ, ㅕ, ㅖ, ㅛ),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ㅗ’로 구분된다.

④ 국어의 저모음은 전설 평순 저모음 ‘ㅐ’와 후설 평순 저모음 ‘ㅘ’가 있다. 저모음에서는 원순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입술 모양과 혀의 높낮이가 일정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혀의 높낮이는 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입술 모양을 둥글게 유지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어렵기에(입을 크게 벌리면 자연히 평순에 가까운 입술 모양이 된다.) 국어의 저모음 계열에서는 원순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ㅗ’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 표기와 달리 [ㅛ]와 같은 발음이 된다. 곧 반모음 ‘ㅓ/ㅗ’와 단모음 ‘ㅛ’가 결합된 형태이다.

blacklabel 특강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 변화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성질이 있듯 국어의 모음 체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현대 국어의 단모음 10개를 온전히 구분해서 발음하는 사람들은 경기도나 충청도에 거주하는 70대 이상의 사람들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40대 이하의 국어 화자들은 대부분 지역과 무관하게 7개의 단모음만 발음하고 있다.

먼저 ‘ㅑ’와 ‘ㅕ’의 경우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규정에서 발음을 이중 모음으로 허용할 정도로 이중 모음 발음이 보편화되어 있다(정확히는 ㅑ, ㅕ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또한 ‘ㅐ’와 ‘ㅟ’의 구분 역시 사라지고 있는데 표기상으로는 구분하여 쓰더라도 실제 발음 상으로는 두 모음 모두 ‘ㅐ’로 발음된다. 대중가요 가사에서 ‘네’ 대신 ‘너’라는 단어로 2인칭 대명사를 발음하는 경향이 바로 ‘ㅐ’와 ‘ㅟ’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03

정답 ⑤

보기 분석 <보기>는 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설명을 담은 글이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ㄷ, ㅌ’의 구개음화(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와 만나 ‘ㅈ, ㅊ’으로 발음되는 것) 외에도 ‘ㅎ, ㄱ, ㄴ’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때 ‘ㅎ, ㄱ’의 구개음화는 방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ㅎ’이나 ‘ㄱ’이 ‘ㅈ, ㅊ’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음운적 구개음화라고 부른다(‘ㄷ, ㅌ’ 구개음화 역시 음운적 구개음화이다.). ‘ㄴ’ 구개음화’는 표준 발음에서도 나타나지만 잇몸소리 ‘ㄴ’이 구개음 ‘ㄴ’으로 바뀌는 음성적 변화로 잇몸소리 ‘ㄴ’과 구개음 ‘ㄴ’이 별개의 음운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에 음성적 구개음화라고 한다. 하지만 이 음성적 구개음화가 중요한 것은 중세 국어 시기에 일어난 ‘ㄴ’ 구개음화’의 영향으로 중세 시기 ‘니르다’, ‘닐곱’ 등으로 표기되던 단어들이 ‘이르다’, ‘일곱’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 국어의 두음 법칙 역시 이 ‘ㄴ’ 구개음화’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정답 해설 ‘ㄷ, ㅌ 구개음화’, ‘ㄱ 구개음화’, ‘ㅎ 구개음화’는 모두 음운적 구개음화이며, ‘ㄴ 구개음화’는 음성적 구개음화이다. 이때 ‘ㄴ 구개음화’에서는 음운의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두의 ‘ㄴ’이 탈락하는 것이지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기름 → 지름’, ‘결 → 절’ 등의 ‘ㄱ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은 모두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반면 ‘ㄷ, ㅌ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와 만날 때 나타나는 것으로 형태소 내부가 아닌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다.

② ‘누님’, ‘노년’에서 첫음절의 ‘ㄴ’은 모두 잇몸소리로 발음되지만 둘째 음절의 ‘ㄴ’은 ‘ㄷ’ 모음(‘년’)의 경우 반모음 ‘ㄴ’의 영향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개음 ‘ㄴ’으로 발음된다. 이에 첫음절의 잇몸소리 ‘ㄴ’보다 둘째 음절의 구개음화된 ‘ㄴ’의 조음 위치가 더 뒤에서 나타난다.

③ ‘맡이’, ‘같이’는 ‘ㄷ, ㅌ 구개음화’의 사례로 윗잇몸(치조)에서 파열되는 ‘ㄷ, ㅌ’이 셴입천장(경구개)에서 파찰되는 ‘ㅅ, ㅆ’으로 바뀌어 나타난 것이다. 음운 변동 과정에서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함께 바뀌는 경우이다.

④ ‘ㅎ 구개음화’는 목청(성대 혹은 성문)에서 마찰되는 음운인 ‘ㅎ’이 ‘ㄷ’모음의 영향으로 ‘ㅅ’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때 ‘ㅅ’은 구개음화된 ‘ㅅ’으로 원래의 조음 위치인 윗잇몸(치조)보다 더 뒤에 위치한 경구개 근처에서 마찰되는 방식으로 발음된다. 곧 ‘ㅎ 구개음화’는 구개음화 과정에서 조음 위치는 달라지지만 조음 방법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ㄱ 구개음화’는 연구개 파열음 ‘ㄱ’이 경구개 파찰음인 ‘ㅅ’으로 바뀌는 것으로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변화한다.

04

정답 ②

정답 해설 | ‘꽃이’의 표준 발음은 [꼬치]이지만 이를 [꼬시]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 경우 받침의 연음 과정에서 ‘ㅈ’을 ‘ㅅ’으로 바꾸어 발음한 것인데 ‘ㅈ’은 경구개 파찰음이며 ‘ㅅ’은 치조 마찰음이다. 곧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바꾸어 발음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아기’를 [애기]로 발음하는 것은 ‘ㄷ’모음 역행 동화에 기인한 것이다(‘ㄷ’모음 역행 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둘째 음절의 ‘ㄷ’ 모음의 영향으로 첫음절의 ‘ㅌ’가 ‘ㄷ’로 바뀌는 것인데, 이는 ‘ㄷ’모음이 전설 모음이기때 첫음절의 평순 후설 저모음인 ‘ㅌ’를 평순 전설 저모음인 ‘ㄷ’로 교체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곧, [애기]로 발음하는 경우 모음 발음 과정에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계속 전설에 위치하게 된다.

③ ‘한강’을 [항강]으로 발음하는 것은 윗잇몸에서 비음으로 나타나는 ‘ㄴ’을 연구개 비음인 ‘ㅇ’으로 바뀌 발음하는 것이다. 이는 ‘강’의 ‘ㄱ’이 연구개음이기때 이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바뀌는 것이다.

④ ‘밭일’을 [반닐]로 발음하는 것은 총 세 가지 음운 변동을 거쳐 일어나는 현상이다. 먼저 ‘ㅌ’이 종성에서 대표음 ‘ㄷ’과 조음 위치가 같은 예사소리)으로 바뀌고 둘째 음절의 초성에 ‘ㄴ’이 첨가된다. 이후 첨가된 ‘ㄴ’에 의해 ‘ㄷ’이 다시 ‘ㄴ’으로 비음화된다.

⑤ ‘치어도’를 준말로 줄이면 ‘쳐도’가 된다. 이때 발음은 [처도]로 이중 모음 ‘ㅌ’가 단모음 ‘ㄷ’로 발음된다. 이는 본말이 ‘치어도’에서 준말로 바뀔 적에 모음 ‘ㅌ’가 반모음 ‘ㄴ’로 바뀌어 이중 모음 ‘ㅌ’를 형성하지만 반모음 ‘ㄴ’이 탈락되기 때문이다. 어간의 ‘ㄷ’이 이중 모음을 형성하지 않고 바로 탈락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피어도’와 같은 경우는 준말로 줄이더라도 [피도]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쳐도’의 발음에서 반모음화된 ‘ㄴ’이 탈락하는 것은 구개음 ‘ㅈ’ 뒤에 반모음 ‘ㄴ’이 발음되지 않는 우리말의 특성 때문에 그러하다. 반모음 ‘ㄴ’은 경구개 근처에 혀가 위치하는데 ‘ㅈ’은 경구개에서 발음되는 자음이다. 경구개음 뒤에 다시 경구개 근처에서 발음되는 반모음음을 발음하는 것이 우리말 발음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1’에 나타나 있다.

blacklabel 특강 | ‘ㄷ’ 모음 역행 동화(음라우트)

‘ㄷ’ 모음 역행 동화는 선행 음절 모음이 후행 음절의 전설 모음의 영향으로 전설 모음으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즉 단어 또는 어절에 있어서 ‘ㅌ, ㄷ, ㄱ’의 후설 모음이 다음 음절에 오는 ‘ㄷ’나 반모음 ‘ㄴ’의 영향을 받아 전설 모음 ‘ㅌ, ㄷ, ㄱ’로 변하여 소리 나는 것이다.

예 잡히다 → 잦히다. 먹히다 → 맥히다

05

정답 ②

정답 해설 | ㉠은 ‘뭇뭇이 → 뭇뭇시 → 뭇뭇씨’로 음운의 탈락 현상이 1번 일어나고 교체 2번(비음화, 된소리되기) 일어난다. 그래서 음운 변동 후의 음운의 개수는 음운 변동 전보다 1개 줄어든다. ㉡은 ‘달는 → 달는 →

[달른]으로 음운의 탈락이 1번, 음운의 교체가 1번 일어난다. 음운의 개수는 변동 이전보다 1개 줄어든다.

오답 해설 | ① ㉠은 ‘굶다랗다 → 굶다랗다 → 굶다랗다 → [국:파라타]’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 음운의 탈락이 1번, 교체가 1번, 축약이 1번 일어난다. 결국 음운의 개수는 변동 이전보다 2개 줄어든다. ㉡은 ‘넓죽하다 → 넓죽카다 → 넓죽카다 → [넙쭈카다]’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 축약 1번, 교체 1번, 탈락 1번이 일어난다. 결국 음운의 개수는 변동 이전보다 2개 줄어든다. 따라서 ㉠과 ㉡ 모두 음운의 개수가 2개 줄어든다.

③ ㉢은 ‘만능열쇠 → 만능넙쇠 → [만:넙넙쇠]’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첨가 1번, 교체 1번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동 이전보다 1개 늘어난다. ㉣은 ‘삿일 → 삿일 → 삿일 → [삿닐]’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탈락 1번, 첨가 1번, 교체 1번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음운의 개수가 변동 이전과 다르지 않다.

④ ㉣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 음운의 개수가 7개이고 변동이 일어난 후에는 6개가 되었다. ㉤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 음운의 개수가 6개이고 변동 후에도 6개이다. 즉 변동이 일어나기 전 ㉣과 ㉤의 음운 개수는 달랐지만 변동 후에는 6개로 같아졌다.

⑤ ㉥은 탈락, 교체, 축약이 각 1번 일어난다. ㉦은 탈락 1번, 교체 2번이 일어난다. ㉧은 탈락, 교체, 축약이 각 1번 일어난다. ㉨은 탈락, 첨가, 교체가 각 1번 일어난다. ㉩, ㉪, ㉫, ㉬은 음운 변동이 3번 일어난다. 반면에 ㉣은 첨가 1번, 교체 1번이 일어나고 ㉤은 탈락 1번, 교체 1번이 일어난다. ㉭, ㉮은 음운 변동이 2번 일어나는 것이다.

blacklabel 특강 | 음운 변동에 따른 음운의 개수

음운 변동에 있어서 탈락, 축약이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반면에 첨가가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고 교체가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참고로 받침의 음운이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연음 규칙은 음절의 경계가 바뀐 것이지, 음운 변동이 아니다.

06

정답 ⑤

보기 분석 | 음운 변동을 반영하여 발음의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것이 표준 발음법이다. 표준 발음법의 여러 조항들은 음운 변동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해설 | ‘넙따랗다[넙따라타]’에서는 음운의 축약이 1번만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를 반영한 표준 발음법 조항은 ㉠ 하나뿐이다.

오답 해설 | ① ㉡은 ‘흙일 → 흙일 → 흙일 → [홍닐]’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이를 반영한 표준 발음법 조항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연이어 일어날 때의 음운 변동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과 ‘ㄴ’ 첨가를 반영하는 ㉣이다.

② ㉤은 ‘넙죽넙죽하다 → 넙죽넙죽하다 → 넙죽넙죽하다 → 넙죽넙죽하다 → [넙죽넙죽하다]’로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거센소리되기, 된소리되기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를 반영하고 있는 ㉢, 비음화를 반영하고 있는 ㉢, 거센소리되기를 반영하고 있는 ㉣의 표준 발음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은 ‘직행열차 → 지갱열차 → [지갱열차]’로 거센소리되기와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 조항은 ㉣과 ㉣이다.

④ ㉤은 ‘꽃잎도 → 꽃잎도 → 꽃잎도 → 꽃잎도 → 꽃잎도 → [꽃잎도]’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된소리되기, 비음화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표준 발음법 조항은 ㉢, ㉢, ㉣이다.

blacklabel 특강 | 표준 발음법 제4장~제7장

표준 발음법 제4장은 받침의 발음을 다루고 있다. 이 조항들은 받침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제5장은 음운의 동화를 이루고 있다. 비음화, 유음화 등의 음운 변동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제6장은 경음화를 다루고 있다. 된소리되기를 반영하고 있는 표준어 발음 규정들을 다루고 있다. 제7장은 음의 첨가로서 ‘ㄴ’ 첨가와 관련된 음운 변동의 결과를 주로 다루고 있다.

보기 분석 | 모음 축약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모음 축약은 단모음+단모음이 제3의 단모음으로 되는 '단모음 연쇄의 축약', '이중 모음의 단모음+반모음이 다른 단모음으로 바뀌는 '이중 모음의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답 해설 | '피+어서 → [피여서]'는 단모음 연쇄의 축약이 아니라 반모음 첨가의 예이다. 즉 'ㅣ' 앞에 반모음 'ㅣ'가 첨가되어 이중 모음 'ㅐ'가 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단모음 연쇄 축약의 예로 이때 축약된 단모음 'ㅐ'는 장음으로 발음된다.

② 축약된 단모음 'ㅐ'가 단어의 첫음절에 놓여 있으므로 장음으로 발음된다.

④ '머느리'의 첫음절에 있는 이중 모음 'ㅐ'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ㅣ'의 결합이다. 그런데 이 두 모음이 제3의 단모음 'ㅐ'로 바뀌었으므로 이중 모음의 축약 현상에 해당한다.

⑤ '평'의 이중 모음 'ㅐ'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ㅣ'의 결합이다. 이것이 단모음 'ㅐ'로 바뀌었으므로 이중 모음의 축약 현상이다. 그중에서도 반모음이 단모음에 앞서 발음되므로 상향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는 변화에 해당한다.



08 ② 09 ⑤ 10 ⑤ 11 ③ 12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국어의 음운 변동을 도식화한 것이다. 교체는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으로,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다.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져 발음되는 것으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탈락은 두 개의 음운이 만나면서 둘 중 하나의 음운이 탈락하고 하나의 음운만이 발음되는 것으로, 역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다만, 축약은 두 개의 음운 중 어느 하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운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첨가는 두 개의 음운 사이에 하나의 음운이 추가되어 발음되는 것으로,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다.

정답 해설 | '알약[알랏]'은 '알+약'이 ㄴ첨가로 인해 '알낙'이 된 후 유음화로 인해 [알랏]으로 발음되는 두 번의 음운 변동을 거친다.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한 '발이랑[반니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발'이 '반'이 되고, ㄴ첨가로 인해 '반니랑'이 된 후, 비음화로 인해 [반니랑]이 되는 세 번의 음운 변동을 거친다. 두 단어 모두 'ㄴ' 첨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음운 변동의 횟수는 다르다.

오답 해설 | ① '훈[훈른]'에서 표기된 자모의 수는 7개이고 발음되는 음운의 수는 6개이다. '없[엄느]'에서 표기된 자모의 수는 7개이고 발음되는 음운의 수는 5개이다. 따라서 표기된 자모의 수보다 발음되는 음운의 수가 적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또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이 모두 자음군 단순화로 인한 탈락 후 교체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③ '결도'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첫 번째 음절의 받침 'ㅌ'이 'ㄷ'으로 교체되고 된소리되기로 인해 두 번째 음절의 'ㄷ'이 'ㅌ'으로 교체되어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삿는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첫 번째 음절의 받침 'ㅌ'이 'ㄷ'으로 교체되고 이것이 다시 비음화로 인해 'ㄴ'으로 교체되어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즉, 두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은 모두 교체이고 횟수 또한 두 번으로 동일하다.

④ '닭[달기]'는 연음이 일어난 것일 뿐,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닭과[닥파]'는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탈락이 일어나 음운의 수가 줄어 들고 된소리되기로 인해 두 번째 음절의 'ㄱ'이 'ㄲ'으로 교체된다.

⑤ '먹히다[머키다]'는 'ㄱ'과 'ㅎ'이 축약되어 'ㅋ'으로 발음된다. '굳히다[구치다]'는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으로 바뀐 후 다시 구개음화되어 'ㅊ'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먹히다'에서는 축약이, '굳히다'에서는 축약 후 교체가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다.

보기 분석 | 구개음화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개음화에는 'ㄷ 구개음화', 'ㄱ 구개음화', 'ㅎ 구개음화'가 있다.

정답 해설 | ㄹ은 중세 국어 '딤치'에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 '짐치'가 된 후 다시 'ㄱ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 교정을 겪어 '김치'로 바뀌게 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현대 국어의 음운 변동의 하나로 인정받는 'ㄷ 구개음화'의 예이다. '같이'의 'ㄷ'은 일부 형용사 어근이나 어간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현대 국어의 'ㄷ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후행하는 형태소는 반드시 형식 형태소여야만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다.

② 표준어 '기미'의 강원·충청·함경 지방의 방언이 '지미'이다. 이는 'ㄱ 구개음화'가 적용된 결과이다. 'ㄱ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만 일어나며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마디'는 'ㄷ'이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의 조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중세 국어의 어형이 'ㅣ' 모음이 아닌 다른 모음 'ㅣ'로 순수한 'ㅣ' 모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러기' 역시 중세 국어의 어형이 '그러기'로 'ㅣ'가 아닌 'ㅡ'였기 때문에 'ㄱ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④ 'ㅎ 구개음화'는 'ㅎ'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힘'을 '심', '형님'을 '성님'으로 발음하는 것이 'ㅎ 구개음화'이다. 'ㅎ 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 역시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ㅌ'은 현대 국어에서는 잇몸소리에 속하지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던 근대 국어의 시기에는 경구개음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blacklabel 특강_ 과도 교정

어떤 음운 변화가 생겨서 'A'라는 음소가 'B'로 바뀌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B'를 'A'로 다시 되돌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때로는 되돌리면 안 되는 음까지 되돌려서 새로운 변화가 야기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과도 교정이라고 한다.

과도 교정은 'ㄱ 구개음화'에서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김치'이다. '딤치'에 'ㄷ 구개음화'가 일어난 '짐치'가 'ㄱ 구개음화'의 과도 교정을 겪어 '김치'로 바뀐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갈쌔<질쌔>', '갯<질>' 등이 있다.

보기 분석 | <보기> (가)는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단모음 체계표를 보면 해당 단모음을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보기> (나)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발음을 규정한 것이다.

<보기> (다)는 국어 이중 모음의 로마자 표기를 규정한 로마자 표기법 규정이다. 표를 보면 각 이중 모음에 포함된 반모음이 반모음 'ㅣ'인지 혹은 반모음 'ㅜ/ㅠ'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반모음 'ㅣ'는 [y]로 나타나고 반모음 'ㅜ/ㅠ'는 [w]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답 해설 | '피여'가 [피여]로 발음되는 것은 앞 음절인 '피'의 모음 'ㅣ'가 뒤 음절의 모음 'ㅣ' 앞에 반모음 'ㅣ'가 첨가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보기>에서 'ㅠ'가 가진 반모음은 반모음 'ㅣ'를 말하는 것이며 이 반모음 'ㅣ'는 'ㅣ'의 뒤가 아닌 앞에 첨가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ㅣ'는 전설 원순 중모음이며 'ㅐ'는 전설 평순 중모음이다. 이 둘

의 차이는 입술 모양이 원순이나 평순이나뿐이기 때문에 ‘ㄱ’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입술 모양을 원순으로 만든 채 ‘ㄱ’ 발음을 내는 것처럼 발음하면 된다. 참고로 ‘ㄱ’과 ‘ㅋ’은 표준 발음법에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 발음에서 ‘ㄱ’이 ‘ㄱ+ㅓ’로, ‘ㅋ’이 ‘ㄱ+ㅣ’로 발음됨을 반영한 것이다.

② ‘ㄴ’과 ‘ㄷ’은 (다)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반모음 ‘ㄴ/ㄷ’을 가지고 있다. 다만 뒤에 오는 단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ㄴ’ 또는 ‘ㄷ’로 표기된다.

③ ‘ㄴ’은 반모음 ‘ㄴ’, ‘ㄷ’은 반모음 ‘ㄴ/ㄷ’라는 서로 다른 반모음과 결합했지만, 이 반모음 뒤에 결합된 단모음이 평순 후설 저모음 ‘ㅏ’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④ ‘죽이다’를 [꺾기다]로 발음하게 되는 것은 첫음절의 ‘ㄱ’에 두 번째 음절의 ‘ㅣ’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ㅣ’는 전설 모음으로, 후설 원순 고모음인 ‘ㅓ’가 이로 인해 전설 원순 고모음 ‘ㅓ’로 발음된 것이다.

11

정답 ③

지문 분석 | 제시된 글과 <자료 1>은 음성 인식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물리적 실제인 음성을 음소 단위로 쪼개어 인식하고 이를 다시 단어와 문장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계에 소리가 입력되는 과정에서는 인식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들이 섞여 들어간다. 이에 잡음을 제거하고 사람의 음성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 입력된 음성을 음소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음성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물리적 소리이지만 음소는 분절되어 인식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음성을 음소로 전환해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시간 간격만큼 소리를 쪼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쪼개진 소리 단위를 ‘단위 구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단위 구간’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이어붙이면 음소 하나의 특징을 추측해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재편성된다. 이 음소 하나의 특징을 추측해 낼 수 있는 구간을 ‘음소 추정 구간’이라고 하며, 이때 포함되어 있는 음소의 특징은 ‘특징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몇 개의 ‘음소 추정 구간’으로 재편된 결과물을 ‘입력 패턴’이라고 부른다. 곧 ‘입력 패턴’은 입력된 음성 신호가 대략 몇 개의, 어떤 종류의 음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작업은 이 입력 패턴과 음성 인식 기계 속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의 음소 배열과 비교하며 입력 패턴의 음소들이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기계 속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의 음소 배열을 ‘기준 패턴’이라고 한다. 곧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의 특징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패턴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기준 패턴’을 찾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기준 패턴’을 선택하고 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화>는 이런 음성 인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자료 2>는 음운과 음성의 차이를 다룬 것으로 특히 음성을 음운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특징(특징 벡터)이 언어별로 다를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어의 경우 ‘v’, ‘b’를 구분해서 인식하지만 국어 화자는 ‘ㅂ’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정답 해설 | ‘닭가슴살[닥까슴쌀]’의 음소는 총 11개이다. 따라서 최초 설정되는 단위 구간의 개수가 11개일 경우에도 음성 인식은 가능하다. 다만 이는 11개의 단위 구간 각각이 모두 음소 추정 구간이 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만일 이중 두 개 이상의 단위 구간이 이어 붙여진다면 제대로 된 음성 인식이 불가능해진다. 또는 단위 구간이 10개 이하일 경우에도 음소 추정 구간이 11개로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음성 인식이 불가능하다.

오답 해설 | ① 음성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물리적 소리이지만 음소는 분절되어 인식되는 소리이다. 음성을 음소로 전환해서 인식한다는 것은 이어진 소리를 일정한 시간 단위로 끊은 후 이를 다시 묶어 하나의 음소로 추출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② ‘꽃병[꼇뽕]’을 음소가 발음된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ㅍ-ㅓ-ㄷ-ㅓ-ㅓ-ㅇ’이 된다.

④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정보란, 개인이 가지는 음색이나 발음 습관 등을 말한다. 음운이란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기준에 따라 구분되므로 개인적 특성은 반영하지 않아야 음성 인식이 제

대로 될 수 있다.

⑤ 한국어로 설정된 음성 인식 시스템에 영어 ‘v’ 발음을 입력하면 한국어 음성 시스템은 해당 발음을 ‘ㅂ’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한국어 음운에는 영어 음운 ‘v’와 일치하는 음운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음운 중 ‘v’와 가장 유사한 특징 벡터를 지닌 ‘ㅂ’ 음운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렇듯 음운이란 언어마다 다르게 설정되는 것으로, 이는 각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화자들의 머릿속에 구축된 심리적 체계인 음운이 언어마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12

정답 ⑤

정답 해설 | 스마트폰이 ‘아기’와 ‘기상’의 ‘ㄱ’을 달리 인식한 것은 음성 인식 과정에서 각 단어의 초성이 가지는 음성적 특징, 곧 특징 벡터를 다르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ㄱ’의 경우 단어의 초성에서는 무성 파열음 [k]로 나타나지만, 모음 사이에서는 유성 파열음 [g]로 나타난다. 국어의 음운 체계는 파열음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지 않기에 국어 화자는 이런 음성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이들을 구분하여 인식한 것은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특징 벡터 추출 과정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기준 패턴은 단어의 음소 배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디오’와 ‘오지오’의 첫음절은 모두 ‘ㅇ’로 시작된다.

② ‘오디오’와 ‘오지오’ 음소는 모두 4개이다. 이는 음성 인식 과정에서 음소 추정 구간의 개수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ㄷ’음이 ‘ㅈ’음으로 잘못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입력 패턴의 특징 벡터 추출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③ ‘ㄷ’은 뒤에 오는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뒤로 이동되어 ‘ㅈ’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구개음화의 일종이다.

④ ‘기상’과 ‘기성’의 음운 수는 5개로 동일하다. 이는 특징 벡터의 수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II. 단어

STEP A 1등급 도전문제

- 01 ⑤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②
07 ② 08 ① 09 ② 10 ④ 11 ⑤

01

정답 ⑤

보기 분석 <보기>는 보조사와 격 조사, 보조사와 보조사 등이 결합할 때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예시들이다.

정답 해설 '만이라도'는 보조사(만)+보조사(이라도)의 결합이다.

오답 해설 ① '조차도'는 '보조사(조차)+보조사(도)'의 결합이다.

② '만으로'는 '보조사(만)+부사격 조사(으로)'의 결합이다.

③ '으로도'는 '부사격 조사(으로)+보조사(도)'의 결합이다.

④ '예서뿐만이'는 '부사격 조사(에서)+보조사(뿐)+보조사(만)+보격 조사(이)'의 결합이다.

02

정답 ②

보기 분석 <보기>는 합성 명사의 구성 요소 중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품사들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합의 형태에 따라,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방식을 따른 '통사적 합성어'와 그렇지 않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정답 해설 '딱딱새'는 부사(딱딱)와 명사(새)가 직접 결합한 예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해설 ① '어린이'는 형용사 '어리다'의 관형사형 '어린'과 명사 '이'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새언니'는 관형사 '새'와 명사 '언니'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산들바람'은 부사 '산들'과 명사 '바람'이 직접 결합한 예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고무신'은 명사 '고무'와 명사 '신'이 직접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03

정답 ①

보기 분석 <보기>는 관형사의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관형사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체언을 수식하며 그 뜻을 분명하게 제한한다. 둘째, 형태 변화를 하지 않고 문장 안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며 반드시 피수식어를 요구한다. 그리고 관형사는 여러 개가 함께 쓰일 수 있는데 이때 '지시 관형사+수 관형사+성상 관형사'의 순서로 결합된다.

정답 해설 '우리와 생각이 다른'에서 '다른'은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이므로 품사는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형태 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틀린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② 관형사 '현'이 뒤에 있는 체언 '웃'을 꾸미며 그 뜻을 제한하고 있다.

③ 지시 관형사 '이'는 화자로부터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키고 '저'는 화자와 청자로부터 모두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④ 수 관형사 '두'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개'와 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반드시 피수식어로 온다.

⑤ '이'는 지시 관형사, '모든'은 수 관형사, '새'는 성상 관형사이다. 관형사가 여럿 결합할 때는 이렇게 지시 관형사+수 관형사+성상 관형사의 순서로 결합

한다.

04

정답 ②

보기 분석 <보기>는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연결 어미 등이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사용되는지를 보여 주는 예들이다.

정답 해설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어라'는 어미 앞 음절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서가 아니라 어미 앞 음절에 오는 어간이 양성 모음이면 '-아라', 음성 모음이면 '-어라'의 이형태를 보인다.

오답 해설 ① 'ㄱ'의 '잡으셨더구나'는 '잡-+-으시-+-었-+-더-+-구나'로 형태소 분석이 된다. 이때 선어말 어미 '-으시-'가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ㄴ'은 '가-+-시-+-고'로 형태소 분석이 된다.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가 주체인 '이모'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③ 'ㄱ'의 '잡으셨더구나'에서 선어말 어미 '-더-'는 과거에 아버지가 손을 잡았던 일을 청자에게 알려 주는 의미를 표시하는 과거 회상의 선어말 어미로 볼 수 있다. 'ㄴ'의 '나가더라'는 '나가-+-더-+-라'로 분석되는데, 여기의 '-더-' 역시 과거인 아침에 벌여졌던 일을 청자에게 알려 주고 있음을 표시한다.

④ 종결 어미 '-구나'는 해라체의 감탄문에 사용되는 종결 어미이다.

⑤ 연결 어미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벌여 놓는 연결 어미로 두 문장을 이어 준다.

05

정답 ⑤

보기 분석 <보기>는 품사 통용의 개념을 밝히고 그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즉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처리되는 경우를 품사 통용이라 하며 아예 다른 단어인 '동음이의어'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답 해설 첫 번째 문장의 '맨'은 부사로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고 온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 문장의 '맨'은 관형사로서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맨'은 품사 통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단어인 동음이의어이다.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문장의 '크다'는 동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크다'는 형용사이다.

② 첫 번째 문장의 '오늘'은 조사와 결합한 명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오늘'은 동사 '할'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③ 첫 번째 문장의 '열'은 조사와 결합한 수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열'은 의존 명사 '결례'를 꾸며 주는 수 관형사이다.

④ 첫 번째 문장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두 번째 문장의 '만큼'은 체언 바로 뒤에 붙은 조사이다.

06

정답 ②

보기 분석 <보기>는 접미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접미사는 어근 뒤에 결합하는 문장 형성 요소인 어미와 구별이 쉽지 않은데, 이 둘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단어 형성에 참여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접미사는 주로 어근과 결합할 때 그 제약이 심하지만 특별한 경우 다양한 품사의 어근과 결합하기도 한다. 그리고 접미사의 의미는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정답 해설 '달리기'는 부사 '빨리'의 수식을 받고 있고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접미사 '-기'가 결합한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동사 '달리다'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걷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로 동사 '걷다'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웃음'의 어근은 동사 '웃다'의 어간 '웃-'이다. '울음'의 어근 또한 동사 '울다'의 어간 '울-'이다. 그런데 여기에 접미사 '-음'이 결합하면서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봄맞이'의 접미사 '-이'는 '~하는 일'의 의미를 나타낸다. '재떨이'의 접미사

‘-이’는 ‘~에 쓰는 도구’를 나타낸다. ‘구두담이’의 접미사 ‘-이’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세 단어의 접미사 ‘-이’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시된 예는 접미사 ‘-이’가 어근과 결합할 때 보이는 제약의 예이다.

⑤ ‘털보’의 어근은 명사이다. ‘떡보’의 어근은 동사이고 ‘똥똥보’의 어근은 부사 혹은 명사 혹은 형용사이다.

blacklabel 특강_ ‘-기’와 ‘-(으)ㅁ’의 구별

‘-기’와 ‘-(으)ㅁ’은 파생 접미사뿐 아니라 명사형 어미로도 쓰여 그 구별이 어렵다.

(가) 그는 빨리 달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

(나) 나는 육상 종목 중 달리기를 가장 좋아한다.

(다) 그가 크게 웃음은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 나는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좋다.

(가)와 (다)의 ‘-기’와 ‘-음’은 명사형 어미이고 (나)와 (라)의 ‘-기’와 ‘-음’은 파생 접미사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와 ‘-(으)ㅁ’이 결합한 단어가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07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는 접두사의 이행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행태란 한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을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데, 접두사의 이행태는 중세 한국어의 흔적이나 역사적인 변화의 결과로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답 해설 | 접두사 ‘새-/시-’는 어근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음운론적 이행태이다. 즉 어근이 양성 모음인 경우는 접두사 ‘새-’가 오고 어근이 음성 모음인 경우는 접두사 ‘시-’가 오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접두사 ‘수ㅎ-’은 중세 국어에 존재하던 체언 뒤의 ‘ㅎ’ 자음의 흔적이다. 이와 동일한 예로는 수뎌지, 수기와, 수뿔찌귀, 수평아리, 수컷 등이 있다.

③ 접두사 ‘햐-’의 ‘햐’는 뒤에 오는 어근이 중세 국어에서 단어 첫머리에 자음군을 가졌던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이 있다. ‘햐’의 중세 국어 모습이 ‘햐’이었고 어두 자음군에 있던 ‘햐’의 흔적이 접두사로 남아 있는 것이다.

④ ‘햐-’의 ‘햐’는 뒤에 오는 어근이 중세 국어에서 어두 자음군을 가졌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 ‘햐이다’의 중세 국어 모습이 ‘햐이다’인 것이다.

⑤ ‘햐햐’의 어근 ‘햐’는 중세 국어 모습이 ‘햐’이었다.

blacklabel 특강_ 접두사의 이행태

접두사의 이행태 변화 중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암ㅎ-’, ‘수ㅎ-’은 중세 국어에 존재하던 체언 뒤의 ‘ㅎ’ 자음의 흔적이며, ‘숫-, 햐-’의 ‘ㅅ’은 체언과 체언 사이에 나타나는 사잇소리의 흔적이다. 또 ‘햐-햐-햐-’의 ‘햐’는 뒤에 오는 어근이 ‘ㅈ’ 계열의 어두 자음군이었고, ‘햐-’의 경우는 ‘햐’이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치며 ‘햐’가 탈락한 결과이다.

08

정답 ①

보기 분석 | <보기 1>은 접미사 ‘-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결합한 어근의 성격에 따라 결합한 단어의 품사가 바뀐다는 특성이 있다. <보기 2>는 접미사 ‘-하-’가 쓰여 파생된 단어의 용례이다.

정답 해설 | ‘건강’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을 말하는 것으로 상태성 어근에 속하므로 ‘건강하다’는 형용사에 속한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일로 동작성 어근에 속하므로 ‘사랑하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오답 해설 | ② ‘빨래’는 더러운 옷이나 피륙 따위를 물에 빠는 일을 의미하므로 동작성 어근에 속한다. ‘공부’도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일로 동작성 어근에 속한다. 그러므로 ‘빨래하다’, ‘공부하다’는 모두 동사에 속한다.

③ ‘미끈미끈’, ‘반질반질’은 의성·의태어에 속한다. 그러므로 ‘미끈미끈하다’, ‘반질반질하다’는 의성·의태어 부사 어근에 ‘-하-’가 결합한 형용사이다.

④ 형용사 ‘좋다’, ‘무섭다’의 어근에 ‘-아/어하-’가 결합하여 품사가 동사로 바뀐 예이다.

⑤ 의존 명사 ‘척’, ‘듯’에 ‘-하-’가 결합한 ‘척하다’는 동사(보조 동사)이고 ‘듯하다’는 형용사(보조 형용사)이다.

09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 1>은 동반의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반의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가 그 형태는 같더라도 문장에서의 기능과 의미가 다르며, 특히 동반의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는 그 사용 환경에 차이가 있다. <보기 2>는 동반의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가 사용된 예시이다.

정답 해설 | ㄱ의 ‘이랑’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ㄴ의 ‘랑’은 ‘싸우다’라는 행동을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ㄷ의 ‘과’는 ‘맞서다’라는 행위의 상대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ㄹ의 ‘와’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이때 ‘와’는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자리에는 첨표를 찍는다. ㄹ의 ‘하고’는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르다’라는 상태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ㅂ의 ‘하고’는 체언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오답 해설 | ① ㄷ은 접속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이다.

③ ㄱ과 ㄴ은 격 조사이고 ㄹ은 접속 조사이다.

④ ㄹ과 ㅂ은 접속 조사이고, ㄱ은 격 조사이다.

⑤ ㄹ과 ㅂ은 접속 조사이고 ㄱ, ㄴ, ㄷ은 격 조사이다.

blacklabel 특강_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의 구분

‘과/와’, ‘하고’, ‘이랑’ 등이 부사격 조사로 쓰였는지 접속 조사로 쓰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만나다, 싸우다, 다투다’ 등의 대칭 동사(또는 대칭 형용사)의 유무를 따져 보는 것 이외에도 생략했을 때 문장의 성립 여부로도 알 수 있다. 즉 ‘영철이는 영숙이와 다투었다’에서 ‘영숙이와’를 생략하면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에서 ‘시와’를 생략해도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진다.

10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 1>을 보면 띄어쓰기의 단위는 단어지만, 조사만큼은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보기 2>에서 의존 명사로 분류된 것들은 띄어 쓰고, 어미로 분류된 것들은 단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정답 해설 | ‘숙제를 다 하는데’의 ‘데’는 의존 명사 ‘데로’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띄어 써야 한다. 한편 ‘걸리지 않니?’의 ‘-지’는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로 앞말과 붙여 쓴다.

오답 해설 | ① ‘의지할 데’의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앞말과 띄어 쓰고, ‘떠난 지’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역시 띄어 쓴다.

② ‘아픈 데’의 ‘데’는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있지 않니?’의 ‘-지’는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로 앞말과 붙여 쓴다.

③ ‘건넌데’의 ‘데’는 어미 ‘-ㄴ데’의 일부분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보지 못했어’의 ‘-지’는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로 마찬가지로 앞말과 붙여 쓴다.

⑤ ‘부지런한지’의 ‘-ㄴ지’는 연결 어미로 앞말과 붙여 쓴다.

11

정답 ⑤

보기 분석 <보기 1>은 겉으로 보기에 기본형이 동일해 보일지라도 품사와 활용의 양상이 다른 용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기 2>는 <보기 1>의 활용 양상을 보여 주는 예들이다. <보기 2>의 밑줄 친 용언을 살펴보면 ㄱ은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다'는 의미로, ㄴ은 '어떤 장소에 닿다'는 의미로, ㄷ은 '무엇이라고 말하다'는 의미로, ㄹ은 '황급이나 늦쇠의 빛깔과 같이 다소 밝고 탁하다'는 의미로, ㅁ은 '경기에서 상대를 제압해서 이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해설 ㄱ의 '누르다'는 품사가 형용사이고 어미 불규칙인 'ㄹ' 불규칙 활용을 보이고 있다. ㅁ은 기본형이 '누르다'이고 품사는 동사이며 어간 불규칙인 'ㄹ' 불규칙 활용을 보인다. 따라서 ㄱ과 ㅁ은 품사와 활용 양상이 모두 다르다.

오답 해설 ① ㄱ의 기본형은 '이르다'이고 품사는 형용사이다. ㄴ의 기본형도 '이르다'이지만 품사는 동사이다. ㄱ과 ㄴ 모두 어간 불규칙인 'ㄹ' 불규칙의 활용 양상을 보이지만 품사가 다르다.

② ㄴ은 기본형이 '이르다'이고 품사는 동사이며 어미 불규칙인 'ㄹ' 불규칙 활용 양상을 보인다. ㄷ은 기본형이 '이르다'이고 품사는 동사이며 어간 불규칙인 'ㄹ' 불규칙 활용을 보인다. 따라서 ㄴ과 ㄷ은 품사도 다르고 둘 다 불규칙 활용이다.

③ ㄷ은 기본형이 '이르다'이고 품사는 동사이며 어간 불규칙인 'ㄹ' 불규칙 활용을 보인다. ㅁ은 기본형이 '누르다'이고 품사는 동사이며 어간 불규칙인 'ㄹ' 불규칙 활용을 보인다. 따라서 ㄱ과 ㅁ은 품사도 동일하고 활용의 양상도 동일하다.

④ ㄱ의 '누르다'는 품사는 형용사이고 어미 불규칙인 'ㄹ' 불규칙 활용의 양상을 보인다. ㄷ은 기본형이 '이르다'이고 품사는 동사이며 어간 불규칙인 'ㄹ' 불규칙 활용을 보인다. 따라서 ㄱ과 ㄷ은 품사도 다르고 활용의 양상도 다르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단어 2
------	---	----------	------

12 ④	13 ②	14 ③	15 ②	16 ⑤	17 ④
18 ③	19 ⑤	20 ③	21 ④	22 ②	23 ④

12

정답 ④

보기 분석 <보기>는 '있다'의 독특한 품사 설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있다'는 '집에 있느냐/있어라'처럼 동사에 가까운 활용 양상을 보일 때도 있고, '그 사람은 아들이 있다'처럼 형용사에 가까운 활용 양상을 보일 때도 있다.

정답 해설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사로 볼 수 있으며 '직장에 있느냐/있어라'처럼 동사에 가까운 활용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오답 해설 ① '재물이 넉넉하거나 많다'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다.

②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의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③ 어떤 처지나 상황, 수준, 단계에 놓이거나 처한 상태의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이다.

13

정답 ②

보기 분석 <보기>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중에는 자립 명사인 경우도 있고 의존 명사인 경우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답 해설 '군데'는 의존 명사로 낱말의 곳을 세는 단위를 뜻한다.

오답 해설 ① '사람'은 자립 명사이지만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사람의 숫

자를 세는 단위로 쓰이기도 하는데 주로 고유어 수와 함께 쓴다.

③ '뿌리'는 자립 명사이지만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에도 쓰인다.

④ '자루'는 자립 명사로 '속에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형질 따위로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를 뜻하지만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자루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⑤ '발'은 자립 명사로 신체 기관을 의미하지만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걸음을 세는 단위로도 쓰인다.

14

정답 ③

보기 분석 <보기 1>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이고 <보기 2>는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정답 해설 (다)의 '적어 둔다'의 '두다'는 완료의 의미로 쓰인 보조 용언으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 규정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오답 해설 ①, ② (가)의 '만끔'은 의존 명사이고, (나)의 '만끔'은 조사로 비슷한 단어로는 '대로'와 '뽀'가 있다.

④ (라)의 '들고 가셨다'의 '가다'는 연결 어미 '-아/어' 뒤에서 나타날 때만 보조 용언이고, 다른 연결 어미 아래의 쓰이면 두 개의 본용언이 병치된 것이므로 '들고 가셨다'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⑤ (마)의 '못하다'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의 뜻을 의미하는 형용사이다.

15

정답 ②

보기 분석 <보기 1>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에 대한 것이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쓸 수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허용하지만, 본용언이 합성 용언일 경우나 본용언의 연결 어미가 '-아/-어' 이외인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한다.

정답 해설 ㉠의 '들고가다'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이므로 <보기 1>의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는 규정에 따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의 '덤벼들어보아라'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이지만 '덤벼들다'가 합성 동사이므로 <보기 1>의 보조 용언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덤벼들어 보아라'처럼 띄어 써야 한다.

③ ㉡의 '먹어버렸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이므로 <보기 1>의 보조 용언은 띄어 쓸 수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먹어'와 '버렸다'를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다.

④ ㉢의 '깎아주었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이므로, <보기 1>의 보조 용언은 띄어 쓸 수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깎아'와 '주었다'를 띄어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⑤ ㉣의 '웃지마라'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이지만, <보기 1>에서 보조 용언의 앞말에 '-아/-어' 이외의 보조적 연결 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띄어 쓴다는 규정에 따라 '웃지'와 '마라'는 띄어 써야만 한다.

16

정답 ⑤

보기 분석 <보기>는 동일한 단어의 반의어는 한 개가 아니라 문맥에 따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해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뭉다' 모두 끈, 줄 따위를 매듭으로 만들라는 뜻을 지닌 '뭉다'로 반의어 역시 '풀다'로 동일하다.

오답 해설 ① 첫 문장의 반의어는 '달다'이고 두 번째 문장의 반의어는 '마치다'이다.

② 첫 문장의 반의어는 '쓰다'이고, 두 번째 문장의 반의어는 '매다'이다.

③ 첫 문장의 반의어는 '일하다'이고, 두 번째 문장의 반의어는 '고정되다'이다.

④ 첫 문장의 반의어는 '끄다'이고, 두 번째 문장의 반의어는 '끊다'이다.

17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본용언과 함께 쓰이면서 본용언을 도와 주는 보조 용언 가운데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의 문법적 기능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답 해설 | 예문에서 사용된 '싶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예문의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로서 보조 동사이다.

② 예문에서 사용된 '한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보조 동사이다.

③ 예문의 '두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그 행동이 어떤 다른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보일 때 쓰는 보조 동사이다.

⑤ 예문의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로 보조 동사이다.

18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사, 관형사, 명사 등도 수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문들이다.

정답 해설 | ㄷ은 동사 '가다'를 수식하고 있다. ㄴ은 명사 '열흘'을 수식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동사 '피다'를 수식하고 있다.

② ㄴ은 관형사 '새'를 수식하고 있다.

④ ㄹ은 부사 '멀리'를 수식하고 ㅅ은 부사 '먼저'를 수식하고 있다.

⑤ ㅂ은 형용사 '맞다'를 수식하고 있다.

19

정답 ⑤

보기 분석 | '온갖'은 관형사로서 체언 '꽃'을 꾸며 주고 있다.

정답 해설 | ㄱ과 관련해서 부사의 경우 보조사가 결합하기도 하지만 관형사는 어떤 경우에도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ㄴ과 관련해서 관형사는 부사와 더불어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수식언에 속한다. ㄹ과 관련해서 용언, 서술격 조사 '이다'와 달리 관형사는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오답 해설 | ㄴ은 부사의 특징이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특성이 있다.

ㄷ은 체언의 특징이다. 관형사는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인다.

20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에서는 형태가 같아 보이는 접미사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음을 설명하며 접미사 '-기-'와 '-기'의 문법적 기능과 어휘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해설 | ③에 사용된 '-기'는 접사가 아닌 명사형 전성 어미로, '(나) 혼자 가다.'라는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오답 해설 | ① '남기'는 '-기-'는 <보기>에서 ㄱ의 2에 해당하는 접사이다. 동사 '남다'에 결합하여 사동사 '남기다'로 파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뜯기어'의 '-기-'는 <보기>에서 ㄱ의 1에 해당하는 접사이다. 동사 '뜯다'에 결합하여 피동사 '뜯기다'로 파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소금기'의 '-기'는 <보기>에서 ㄷ에 해당하는 접사이다. 명사 '소금'에 결합하여 '기운'의 뜻을 더하고 있다.

⑤ '여행기'의 '-기'는 <보기>에서 ㄴ에 해당하는 접사이다. 명사 '여행'에 붙어 '기록'의 뜻을 더하고 있다.

21

정답 ④

정답 해설 | '설마'는 '그 사람이 벌써 떠났겠어?'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로 이와 같이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에는 '과연', '제발', '정말',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아마', '정녕', '아무쪼록', '하물며' 등이 있다. 그리고 부사 '벌써'는 용언 '떠났겠어'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로, (라)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주로 과거 시제와 어울려 쓰인다.

오답 해설 | ① '수남'은 사람 이름으로 고유 명사에 속하고 '이름'은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이다. 그리고 (가)에 쓰인 '살'은 나이를 세는 단위로서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이는 의존 명사이다. 그러나 '열여섯'은 체언을 꾸며 주는 수 관형사이다.

② '당신'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로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③ '달다'는 동사로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어간 받침 'ㄹ'이 'ㄴ, ㅂ, ㅅ, ㅇ'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하므로 규칙 활용 동사로 간주한다.

⑤ '옥희야'는 감탄사가 아니라 체언과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독립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 조사인 '야'가 결합하고 있는 형식이다.

22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는 파생 접미사와 어미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파생 접미사는 단어 형성의 요소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어미는 문장 형성의 요소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정답 해설 | '먹기'의 '-기'는 문장 '나는 밥을 먹다'가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오답 해설 | ① '놀이'의 '-이'는 주로 행위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③ '먹이'의 '-이'는 주로 그런 속성을 가진 사물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④ '녹음기'의 '-기'는 주로 도구나 기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⑤ '봄맞이'의 '-이'는 주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black label 특강 파생 접미사와 어미의 구분

파생 접미사와 어미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파생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지만 어미는 그렇지 못하다. 둘째, 파생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할 때 제약이 심하지만 어미가 어근과 결합할 때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셋째, 파생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기도 하지만 어미는 어간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없다. 넷째, 파생 접미사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지만 어미는 의미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23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 1>은 어미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고 <보기 2>는 어미를 분류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예문들이다.

정답 해설 | ㄴ은 선어말 어미 '-었-'이 '되었는지, 피었다'에서 두 번 사용되고 있다. '-는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체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되었는지'에서 한 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꿈게 피었다'에서 어미 '-게'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아니라 부사형 전성 어미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먹었더니'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회상의 선어말 어미 '-더-', 종속적 연결 어미 '-니'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르구나'에서 해라체의 종결 어미 '-구나'를 사용하고 있다.

② ㄴ은 '졌고'에서 선어말 어미 '-았-', 대등적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에서 보조적 연결 어미 '-고',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고 있다.

③ ㄷ은 '빌린'에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을 사용하고 있고 '샀던'에서 선어말 어미 '-았-', 관형사형 전성 어미 '-던'을 사용하고 있다. '책이니'에서 종결

어미 ‘-니’를 사용하고 있다.

⑤ ㄹ은 ‘들어와 보니’에서 보조적 연결 어미 ‘-아’, 종속적 연결 어미 ‘-니’를 사용하고 있고 ‘떠나셨습니다’에서 선어말 어미 ‘-시-’, ‘-었-’,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blacklabel 특강_ 어미 ‘-게’의 특징

어미 ‘-게’는 때로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연결 어미를 대신하는 일도 있어 그 기능을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개나리가 빛깔이 곱게 피었다.’에서 ‘-게’는 부사형 전성 어미로 부사절 ‘빛깔이 곱게’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바깥에 잘 보이게 청문을 활짝 열어라.’에서 ‘-게’는 앞 절과 뒤 절을 종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나는 그와 밥을 먹게 되었다’에서 ‘-게’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단어 3
24 ⑤	25 ③	26 ④	27 ②	28 ③	29 ②	
30 ④	31 ②	32 ①	33 ①			

24

정답 ⑤

지문 분석 | 이 글은 유의어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의어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교체 검증, 대립 검증, 배열 검증이 있다. 교체 검증은 문맥 속에서 유의어로 설정하고자 하는 단어를 교체하는 방법이며, 대립 검증은 대립어의 설정을 통해서 유의어를 교체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배열 검증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모아 놓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다양한 검증 방법을 통해 유의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㉔에서 교체 검증을 통해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속’과 달리 ‘안’은 시간적 범위를 한정할 때 쓰인다는 점에서 의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㉔에서 유의어는 ‘맑다-깨끗하다’인데, 두 단어는 대립 관계에 있는 ‘흐리다-더럽다’를 대비시키면 ‘맑은 물/흐린 물’, ‘깨끗한 물/더러운 물’처럼 차이가 난다. 즉 ‘흐리다’와 ‘더럽다’의 거리만큼 ‘맑다’와 ‘깨끗하다’의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② ㉔에서 ‘낮’을 ‘얼굴’로 교체할 수 없음을 통해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㉔에서 ‘나’보다 낮춤의 의미를 가진 ‘저’는 유의어인데, 높임에 따른 교체 검증으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㉔에서 ‘실개천-개울-하천’의 배열 검증을 통해 실개천보다 개울이, 개울보다 하천이 더 폭이 넓은 물이라는 의미 차이를 알 수 있다.

25

정답 ③

정답 해설 | 4단락에서 부분적인 의미의 동질성을 가진 말이라도 대립어가 다르면, 두 단어 사이의 의미 차이는 대립어가 같은 경우보다 더 크다고 했다. 따라서 (가)의 두 단어에 공통된 대립어가 없다면 (나)의 유의어보다 의미 차이가 더 클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집을 향해 달리다’ 대신에 ‘뛰다’도 사용 가능하므로 이 문장을 통해 ‘달리다’와 ‘뛰다’의 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② ‘기차가 달리다’는 가능하지만 ‘기차가 뛰다’는 불가능하므로 이 문장을 통해 ‘달리다’와 ‘뛰다’의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④ 3단락에서 ‘유의어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없다.’고 했으므로 (나)의 유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대립어의 동질성에 있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⑤ 우리가 상대방보다 한 수 위’는 가능하나, ‘우리가 상대방보다 한 수 꼭대기’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두 단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6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의 유형을 도식화한 것으로 어간만 바뀌는 경우, 어미만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어미만 바뀌는 경우의 예로 ‘러 불규칙’을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의 예로 ‘ㅎ 불규칙’을 제시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답 해설 | ‘그녀는 화분을 옥상으로 날랐다.’에서 날랐다는 기본형은 ‘나르다’이고 어간에 어미 ‘-어/아’를 붙이면 ‘날라’가 되어서 용언의 어간 ‘나르-’가 ‘날르’ 형태로 변하는 ‘르’ 불규칙이다.

오답 해설 | ① ‘년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에서 ‘할’의 기본형은 ‘하다’로 어미 ‘-어/아’와 결합하면 ‘하여’로 어미만 변화하는 ‘여 불규칙’이 나타난다.

② ‘해가 짧으니 집에 일찍 가거라.’에서 ‘가거라’의 기본형은 ‘가다’이고, 여기에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를 붙이면 ‘가거라’로 어미만 변화하는 ‘거라 불규칙’이 나타난다.

③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다.’에서 ‘푸른’의 기본형은 ‘푸르다’이고, 여기에 어미 ‘-어/아’를 붙이면 ‘푸르러’로 어미만 변하는 ‘러 불규칙’이 나타난다.

⑤ ‘얼굴이 너무 하에서 꼭 아픈 사람 같다.’에서 ‘하에서’는 기본형 ‘하얗다’에 어미 ‘-아서’가 붙어 ‘하에서’가 되었으므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하는 ‘ㅎ 불규칙’이 나타난다.

27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는 대명사의 종류와 그 특징을 제시한 글이다.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재귀 대명사, 미지칭과 부정칭 대명사의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답 해설 | ㉔에서 ‘저희’는 앞에 나온 말을 다시 받는 3인칭 재귀 대명사로 사용되었지, 우리의 낮춤말인 ‘저희’로 사용된 대명사가 아니다. 3인칭 재귀 대명사에는 ‘저희’, ‘자기’ 등이 있으며 높여 이르는 말로는 ‘당신’이 있다. 한편 자신의 나라나 민족은 남의 나라, 다른 민족 앞에서 낮춤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㉔의 ‘귀하’는 대상을 높여 부르는 인칭 대명사이고, ㉔의 ‘거기’는 상대를 낮잡아서 부르는 인칭 대명사이다.

③ ㉔의 ‘이것’은 사물을 표시하는 지시 대명사이고, ㉔은 장소를 표시하는 지시 대명사이다.

④ ㉔의 ‘이것’의 ‘이’는 화자에 가까운 쪽을 나타내고, ‘저분’의 ‘저’는 화자에 먼 쪽을 나타낸다.

⑤ ㉔의 ‘누구’는 가리킴을 받는 지시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사용하는 미지칭 대명사이고 ㉔의 ‘아무’는 특정한 지시 대상이 없을 때 사용하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28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문장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된 예시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 해설 | ㄷ에 사용된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를 ‘-는’을 취하지 않고 ‘-은’을 취하고 있다. 즉 형용사에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은’이고, 동사에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이다.

오답 해설 | ① ㄱ으로 보아 형용사의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는 기본형을 그대로

쓴다.

② ㄴ에서 사용한 '크다'는 동사로서 '몸의 길이가 자라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④ ㄹ을 보면 동사인 '잡다'에는 명령형 어미 '-아라'가 가능하나, 형용사인 '예쁘다'에 명령형 어미 '-어라'는 가능하지 않다.

⑤ ㄹ을 보면 '배우다'는 동사에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인 '-러'를 사용했으나 '환하다'는 형용사에는 '-러'를 사용하지 않았다.

blacklabel 특강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동사와 형용사는 둘 다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로 용언이라 한다. 이 둘을 구분하는 데는 의미 면의 차이를 따져 보는 방법이 있다. 즉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동사,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형용사라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시제로 활용하는 연결 어미를 붙여 보면 된다. 즉 현재 시제 연결 어미로 '-나다' 또는 '-는다'가 연결되는 단어는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아울러 명령형과 청유형이 가능하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며 목적의 어미 '-러'나 의도의 어미 '-려'의 결합이 가능하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29

정답 ②

보기 분석 <보기>는 합성법과 파생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들끼리 만나 새말을 만드는 것'은 합성법에 해당하고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붙어 새말을 만드는 것'은 파생법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관형사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이다. '첫사랑'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관형사 '첫'과 명사 '사랑'이 결합한 것으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강추위는 매우 심하게 추운 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근인 '추'에 접두사 '강-'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③ '군살'은 군더더기 살이라는 뜻으로 어근인 '살'에 접두사인 '군-'이 붙은 파생어이다.

④ '한가운데'는 공간이나 시간, 상황 따위의 바로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근 '가운데'에 접두사 '한-'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새뽕알다'는 밋밋이 산뜻하고 뽕알다는 뜻으로, '뽕알다'는 어근에 '새-'라는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30

정답 ④

보기 분석 <보기>는 어말 어미의 종류와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은 종결 어미, ㉡은 연결 어미 ㉢은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저기가 내가 다니던 학교이다.'에서 '다니던'은 문장에서 관형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니던'의 어미 '-던'은 ㉠의 연결 어미가 아니라 ㉢의 관형사형 전성 어미이다.

오답 해설 ① '네가 벌써 대학생이구나!'의 '-구나'는 감탄의 의미로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이므로 ㉡에 해당된다.

② '이 가방은 네가 들어라.'의 '-어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종결 어미이므로 ㉠에 해당된다.

③ '기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한다.'의 '-려면'은 '어떤 의사를 실현하려고 한다'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에 해당된다.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운동하기'의 기는 '운동하다'가 지닌 서술어의 기능을 바꿨기 때문에 '-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로 ㉢에 해당된다.

31

정답 ②

정답 해설 ㄴ의 '나는 동생과 함께 청소를 했다.'에서 '과'는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가 아니고,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ㄴ에서 '를'은 앞의 체언이 문장에서 목적으로 사용될 자격을 부

여하고 있다.

③ ㄷ에서 '만'은 보조사로, 앞말에 '단독'이라는 뜻을 더해 주고 있다.

④ ㄹ에서 '도'는 부사 '예쁘게' 뒤에 붙어 사용되고 있다.

⑤ ㅁ에서 '이것 좋다.'는 문장에서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되어 있고, '만으로도'는 세 개의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

32

정답 ①

보기 분석 <보기 2>는 품사 분류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구조화한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형태 변화의 유무를 물어보았으므로 가변어인지, 불변어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우리말의 가변어는 용언과, 관계언 중 서술격 조사 '이다'로 나눌 수 있는데,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면 서술격 조사 '이다'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언이다. 불변어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기 2>에 제시된 질문인 '다른 말을 꾸미는 기능을 합니까?'라는 질문은 수식언과 나머지를 분류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수식언 중 '체언을 꾸밈니까?'라는 질문은 관형사와 부사를 나누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에 들어갈 단어로는 가변어 중 서술격 조사 '이다'를 찾으면 된다. 따라서 <보기 1>에서는 '이다'의 활용형인 '였다'를 고르면 된다. 한편 ㉡에 들어갈 단어로는 '불변어-수식언-관형사'이므로 <보기 1>의 '새'를 고르면 된다.

오답 해설 '다른/있어'는 가변어-용언-형용사이고, '시골'은 불변어-체언-명사이고, '주는'은 가변어-용언-동사이다.

33

정답 ①

보기 분석 <보기 1>은 형태소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형태소는 그것이 지닌 의미에 따라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대체로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와 일치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용언의 어간이다.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이다. 한편 <보기 2>의 ㄴ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및-/~지-/~나/사람/이/되-/~기/를/꾸-/~로/꾸-/~나-/~다'

이 중 자립 형태소는 '우리, 및, 사람'의 3개고, 의존 형태소는 '는, ~지-, ~나-, 이, 되-, ~기, 를, 꾸-, ~로, 꾸-, ~나-, ~다'의 12개다. 실질 형태소는 '우리, 및, 사람, 되-, 꾸-, 꾸-'의 6개고, 형식 형태소는 '는, ~지-, ~나-, 이, ~기, 를, ~로, ~나-, ~다'의 9개다.

ㄴ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나/커피/를/맛/보-/~려/사람/~들/이/모으-/~이-/~었-/~다'

이 중 자립 형태소는 '새-, 커피, 맛, 사람'의 4개고, 의존 형태소는 '~로-, ~나-, 를, 보-, ~려-, ~들, 이, 모으-, ~이-, ~었-, ~다'의 11개다. 실질 형태소는 '새-, 커피, 맛, 보-, 사람, 모으-'의 6개고, 형식 형태소는 '~로-, ~나-, 를, ~려-, ~들, 이, ~이-, ~었-, ~다'의 9개다.

정답 해설 ㄴ과 ㄴ의 형식 형태소의 개수는 각각 9개로, 동일하다.

오답 해설 ② ㄴ과 ㄴ의 형태소 개수는 각각 15개로 동일하다.

③ ㄴ의 자립 형태소는 3개, ㄴ의 자립 형태소는 4개다. '꿈'은 '꾸-'에 '-ㅁ'이 결합된 파생어로,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다.

④ ㄴ의 실질 형태소는 6개, ㄴ의 실질 형태소는 6개다. 그러나 '꿈'은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다.

⑤ ㄴ의 의존 형태소는 11개고, ㄴ의 의존 형태소는 12개다. '새로'는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다.

blacklabel 특강 형태소 분석 시 주의할 점

1. '꿈'과 같은 파생어의 경우

'꿈'은 '구-'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결합하여 '꿈'이라는 명사로 파생된 단어이다. 이때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을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해 내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새로운'과 같이 형태소 결합 후 형태가 변화한 경우

'새로운'은 관형사 '새'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롭-'이 결합하여 형용사로 파생되고 이것이 다시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활용된 것이다. 이때 '-롭-'과 '-ㄴ'이 결합하여 '로문'으로 형태가 변화하므로 원래의 형태인 '-롭-'과 '-ㄴ'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모였다'와 같이 형태소 결합 시 축약이 일어난 경우

'모였다'는 동사 어간 '모으-'에 피동 접미사 '-아-'가 결합하여 '모이다'로 파생된 단어가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었-'에 결합하고 다시 종결 어미 '-다'를 취한 것이다. 이때 '모으-'의 '으'가 피동 접미사 '-아-'와 결합하며 탈락하고, '모아-'는 다시 '-었-'과 결합하며 '모였-'으로 축약되므로 원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용언은 본용언에 의존적으로 쓰여 본용언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정답 해설 ②는 문장의 주체인 '동생'이 과일을 '깎다'와 '주다'의 두 행위를 모두 한 것이므로 '주었다'는 본용언이다. ②를 제외한 나머지 넷은 모두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마시오'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 동사이다. '마시오'의 기본형은 '말다'이며, '말다' 앞에 오는 본용언은 동사여야 한다.

③ '가는데'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 동사이다.

④ '버리고'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 동사이다.

⑤ '보니'는 원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 형용사이다.

blacklabel 특강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분

연결 어미 '(-어/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의 구성이다.

(가) 종이를 쓰고 버렸다.

본용언 + 본용언 ('쓰고서 버렸다'는 의미가 가능하므로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

(나) 배가 고파서 빵을 먹어 버렸다.

본용언 + 보조 용언

36

정답 ④

정답 해설 ㉔의 '할아버지에게'에 '는'을 써야 하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조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 '는'을 사용해야 한다. '만'은 '단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할아버지'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 조사 '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㉔에서 주격 조사 '가'를 사용해야 하므로 다음 문장인 ㉔은 '는'을 사용하여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문장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드러내는 보조사인 '는'을 쓰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③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한다는 사실과 대조되므로 대조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 '는'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애교가 많지도 않다는 점에서 '말썽꾸러기 돼지'는 다른 동물들과 대조되므로 '는'을 쓰는 게 적절하다. 조사 '도'는 '포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blacklabel 특강 화제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

일반적으로 화제에서 처음 등장하는(신정보) 문장의 주어에는 주격 조사 '이/가'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정보가 제시된(구정보) 문장의 주어부터는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드러내는 보조사인 '은/는'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다.

37

정답 ③

보기 분석 <보기>는 용언의 활용 중 불규칙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규칙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 유지되거나,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달라진다 해도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활용을 말한다. 반면, 불규칙 활용은 환경에 따라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일컫는다.

정답 해설 '르' 불규칙은 어간의 '르-'가 '르르'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③의 '부른다'의 기본형은 '부르다'이고, 어간 '부르-'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르'가 '르르'로 바뀌어 '불러'로 활용된다.

오답 해설 ①, ② 각각 기본형이 '푸르다, 이르다'로 어미 '-어'와 결합하면 '푸르러, 이르러'가 되는 '러' 불규칙에 해당된다.

④ '우러르며'의 기본형 '우러르다'는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의 '으'가 탈락하여 '우러러'가 된다.

⑤ '만들었다'의 기본형은 '만들다'이다. 따라서 어간 '만들-'에 다양한 어미를

34

정답 ②

보기 분석 <보기 1>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띄어쓰기와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단어는 기본적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만은 붙여 쓴다. 나머지 규정들은 단어는 띄어 쓴다는 큰 원칙 아래, 어떤 경우에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해설 ㉔의 '삼학년'의 '삼'은 '그 순서가 세 번째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의 관형사이므로 ㉔의 '새 학년'과 마찬가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 43항의 다만 규정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㉔의 '느커녕'은 보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이 옳다. ③ ㉔의 '한번'은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다. 제46항의 규정은 '좀더 큰것'과 같이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여러 개가 연이어 나타날 때에 적용된다. 한편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④ ㉔의 '된지'의 '된'은 어간 '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다. '된지'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이 두 단어는 제42항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 옳다. 그러나 ㉔의 '영문인지는'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나 그 까닭'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영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영문이다'에 다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ㄴ지'가 결합한 것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

⑤ ㉔의 '기억해두다'는 본용언 '기억하다'와 보조 용언 '두다'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기억해 두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억해두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기억해두다'에 47항 다만의 규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본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35

정답 ②

보기 분석 <보기>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용언은 문장 안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보조

붙이면 ‘만들고, 만들지만, 만들어, 만드니(‘ㄹ’ 탈락은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 활용이라 한다.)’ 등 기본 형태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는 규칙 용언이다.

38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어와 형태소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해설 | ‘내렸다’는 ‘내리-+-었-+-다’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때 ‘-었-’은 자립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가 맞지만, 의존 형태소가 반드시 자립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었-’과 결합한 용언의 어간 ‘내리-’나, 종결 어미 ‘-다’도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 해설 | ① ‘에’, ‘이’는 ‘조사’로서 자립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인정받고 있다.

② ‘에’, ‘이’는 조사이며, ‘-었-’, ‘-다’는 어미로 문법적 의미를 지닌 문법 형태소(또는 형식 형태소)이다.

③ ‘함박눈’과 ‘내렸다’는 단어 중에서 더 작은 단위인 형태소(함박+눈, 내리-+-었-+-다)로 분석된다.

④ ‘내리-’는 용언의 어간으로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지만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여서 단어로 분류하지 않는다.

39

정답 ③

정답 해설 | ㉔은 화자가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부정칭 대명사이다.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칭 대명사라 한다.

오답 해설 | ① ㉑의 ‘그것’은 내용 표현으로 사용된 지시 대명사로서, 담화 맥락 안에서 앞 문장 전체, 즉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가서 민수가 화가 많이 났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② ㉒의 ‘자기’는 B가 앞서 언급한 ‘영희’를 도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재귀 대명사로서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다.

④ ㉓의 ‘누구’는 앞서 언급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시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사용한 미지칭 대명사이다.

⑤ ㉔의 ‘거기’는 담화 맥락상 A가 앞서 언급한 ‘교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지시 대명사이다.

40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는 품사 통용의 예를 통해 품사 통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품사 통용이란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 부류에 소속되는 것을 일컫는 것임을 주지하도록 한다.

정답 해설 | ‘길다’는 동일한 형태지만 ‘짧게 깎았던 머리가 꽤 많이 길었다.’에서는 머리카락, 수영 따위가 자라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고, ‘치마 길이가 길다.’에서는 잇닿아 있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이런’은 두 문장에서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사용되었다.

③ ‘다른’은 두 문장에서 모두, 서술성을 가진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④ ‘다섯’은 두 문장에서 모두, 조사가 붙는 수사로 사용되었다.

⑤ ‘짧다’는 두 문장에서 모두,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41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불규칙 활용의 종류를 밝히고 있다.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누며,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

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정답 해설 | ‘치르다’는 ‘치러’로 ‘ㄹ’ 탈락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보편적인 음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푸르다’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푸르러’가 되어 어간 ‘푸르-’는 형태 변화가 없는데, 어미가 ‘-어’에서 ‘-러’로 바뀌기 때문에 <보기>의 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묻다(埋)’가 ‘묻어’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규칙 활용이다. 따라서 불규칙 활용에서 나타나는 ㉑, ㉒, 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묻다(問)’가 ‘묻어’로 활용하는 것은 불규칙 활용의 ㉕에 해당한다.

② ‘좋다’가 ‘좋아’로 활용하는 것은 규칙 활용이고, ‘하얗다’가 ‘하얘’로 활용하는 것은 불규칙 활용이다. ‘하얘’는 어간 ‘하얗-’과 어미 ‘-어/아’가 결합한 것이므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㉔에 해당한다.

④ ‘누르다’는 ‘눌러’로, ‘푸다’도 ‘퍼’로 활용하므로 둘 다 어간이 바뀐 ㉕에 해당한다.

⑤ ‘붓다’는 ‘부어서’로 활용하므로 ㉕에 해당되지만, ‘하다’는 ‘하여서’로 활용하므로 ㉔에 해당한다.

42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 1>은 의존 명사에 대한 격 조사의 결합 제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보기 2>는 그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해설 | ㄹ의 의존 명사 ‘것’은 격 조사 결합의 제약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의존 명사 ‘지’는 주격 조사와만 결합한다.

② 의존 명사 ‘줄’은 목적격 조사만 결합한다.

③ 의존 명사 ‘김’은 부사격 조사 ‘에’와만 결합한다.

④ 의존 명사 ‘대로’는 어떤 격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black label 특강 의존 명사의 제약

의존 명사는 격 조사 결합의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갑자기 비가 오는(*온, *올, *오던) 바람에’처럼 의존 명사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이 있기도 하고, ‘그 일이야 두말할 나위가 있다 / 없다’처럼 의존 명사에 후행하는 서술어가 제한되기도 한다.

43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에서 제시한 자료 중 [A]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B]에서 제시한 합성어의 합성법을 분석하여야 한다.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문장 구조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문장 구조에서 볼 수 없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정답 해설 | ‘다’의 ‘빛(이)나다, 배(가)부르다, 명(이)들다’는 모두 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말의 문장 구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우리말의 문장 구성에서 주격 조사는 흔히 생략된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어깨동무, 처남댁, 밤낮’은 ‘명사+명사’의 구성으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나’의 ‘새언니, 그분, 쇠고기’는 ‘새 언니, 그 분, 소의 고기’로 모두 관형어와 체언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말의 본래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라’의 ‘돌(아)+가다, 갈(아)+입다, 알(아)+보다.’는 용언의 연결형(-아)에 다른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합성어를 만든 통사적 합성법에 해당된다.

⑤ ‘마’의 ‘오르내리다, 굳세다, 검붉다’는 모두, 용언의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고)가 없어서 우리말의 문장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보기 분석 | <보기>는 형태소의 종류를 구분하는 탐구 과정이다. 우선 [A]는 형식 형태소를 적어야 하는 자리이며, [B]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를, [C]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를 적어야 한다.

정답 해설 | [A]에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 어미, 접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 늦-, ㉡ 은, ㉢ -는'이, [B]에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용언의 어간이 들어가야 하므로 ㉣ 있-'이, 마지막으로 [C]에는 자립 형태소가 들어가야 하므로 관형사인 ㉤ 저'와 의존 명사인 ㉥ 수'가 들어가야 한다.



01 ② 02 ③ 03 ④ 04 ① 05 ④ 06 ④

01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 1>은 우리말 단어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복합어가 만들어질 때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예로 든 '부침개'는 파생어가 다시 파생된 사례인데 계층 구조를 이루는 또 다른 사례로는 이외에도 합성어가 파생되는 경우, 파생어나 합성어가 다시 다른 합성어의 어근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보기 2>는 이 계층 구조를 이루는 단어들을 제시한 것이다.

단어	계층 구조	
코웃음	어근+ (어근+접사)	파생어가 만들어진 후 그 파생어가 합성어의 어근이 되어 합성어가 된 단어
볶음밥	(어근+접사)+어근	
뜨개질	(어근+접사)+접사	파생어가 만들어진 후 다시 파생어가 된 단어
풋잡	접사+ (어근+접사)	
여달이	(어근+어근)+접사	합성어가 만들어진 후 파생어가 된 단어
결눈질	(어근+어근)+접사	

정답 해설 | '코웃음'과 '볶음밥'은 파생어가 합성어의 어근이 된 단어라는 점에서, '뜨개질'과 '풋잡'은 파생어가 다시 파생된 단어라는 점에서, '여달이'와 '결눈질'은 합성어가 파생된 단어라는 점에서 각각 동일한 계층 구조를 가진 단어로 묶을 수 있다.

02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국어의 조사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 제시된 대로, 국어의 조사는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의 세 가지로 나뉜다. 격 조사는 문장에서의 '격'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보조사는 고유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접속 조사는 두 단어를 대등하게 이어 주는 조사이다.

정답 해설 | '서'는 '혼자, 둘이, 셋이' 따위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그 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 '야말로'는 강조하여 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예'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앞말을 지칭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마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

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낸다.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어체 접속 조사이다.

② '는'은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요'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도 쓰이나 '들어오세요'의 '요'는 어미 '-세요'의 일부로, 조사가 아니라 어미이다. '과'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④ '와'는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뭐라고'는 '무엇이라고'가 줄어든 형태인데, '무엇이다'에 쓰인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간접 인용의 '고' 앞에서 '이라'로 형태가 변화한다. '랑'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⑤ '이'는 주격 조사이다.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에'는 앞말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blacklabel 특강 분류를 헷갈리기 쉬운 조사

흔히 '은/는'을 주격 조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은/는'은 대조, 화제, 강조의 의미 또는 기능을 지닌 보조사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와/과, 하고, (이)랑'은 접속 조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하므로 문장 내에서의 역할과 의미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

03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설명이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하는 기준인 '국어 문장 구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문장을 구사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어순이나 단어 활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언의 어간은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기에 반드시 어미가 함께 와야 한다는 것, 체언 뒤에 조사는 쉽게 생략할 수 있다는 것,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주로 관형사라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용언의 어간이 어미 없이 쓰인다는 것,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예외적 사례가 있지만) 등은 국어의 자연스러운 문장에서 발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통사적'이라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남부끄럽지'는 '남부끄럽다'라는 합성 형용사 활용형으로 이는 명사 '남'과 형용사 '부끄럽다'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성에서 앞의 '남'을 일종의 부사어로, 뒤의 '부끄럽다'를 일종의 서술어라고 하면 이 합성어를 '남(에게) 부끄럽다'라는 하나의 구라고 인식할 수 있다. 우리말 문장 구성에서 격 조사의 생략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는 통사적 합성어로 보며, ㉠에 해당한다. '요즘'은 '요즈음'의 준말로 관형사 '요'와 의존 명사 '즈음'을 어근으로 가지는 합성어이다. 우리말 문장 구성에서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이 역시 통사적 합성어이며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바닷가'는 명사 '바다'와 '물체의 경계에 가까운 바깥 부분'이라는 의미의 명사 '가'를 어근으로 한 합성어이다. 이때 'ㅅ'은 합성 과정에서 일어난 사잇소리 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사이사잇으로 단어 분석 과정에서는 무시한다. 단어의 의미상 어근 '바다'가 어근 '가'를 수식하는 구성을 가지는데, 우리말 문장 구성에서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고 ㉢에 해당한다. 반면, '어느새'의 경우 관형사 '어느'와 명사 '사이'의 준말인 '새'를 어근으로 하는 합성어로 ㉡에 해당하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붙잡지'는 합성 동사 '붙잡다'의 활용형으로, 이는 동사의 어간 '붙-'과 '잡-'이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우리말 문장 구성에서 용언의 어간이 어미의 결합 없이 다시 용언의 어간과 만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비통사적 합성어 유형 중 ㉤에 해당한다. '잘못'은 부사 '잘'과 부사 '못'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우리말에서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구성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에 해당한다.

③ '이른바'는 동사 '이르다'의 관형사형 '이른'과 의존 명사 '바'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국어 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 중 하나로 이는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에 해당한다. '머나먼'은 형용사의 어간 '멀-'에 연결 어미 '-나'가 결합된 상태에서 다시 어간 '멀-'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 과정에서 앞에 나온 '멀-'의 'ㄹ'이 탈락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기에 ‘떠나면’으로 표기된다. 우리말 문장에서 두 개의 용언이 어미에 의해 연결되는 구성은 흔히 보이는 배열법으로 통사적 합성어의 ㄹ유형에 해당한다.

⑤ ‘옛날’은 관형사 ‘옛’에 명사 ‘날’이 결합한 구성으로 통사적 합성어의 ㄴ유형에 해당한다. ‘끓주리다’는 동사의 어간 ‘끓-’에 동사의 어간 ‘주리-’가 결합된 것으로 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이 다시 어간에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ㄹ유형에 해당한다.

04

정답 ①

보기 분석 | <보기>는 파생어의 한글 맞춤법 표기 규정 중 일부로 어근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올 경우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표기 규정은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게 적는 것(단어의 의미 파악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적는 것)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분은 이 두 가지 기준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접미사의 표기에서 이 구분은 접미사의 생산성(단어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는 정도)과 연관된다.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접미사 ‘-이’나 ‘-음/ㅁ’이 붙는 경우로 이들 접미사는 활발하게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접미사들이다. 이들 접미사의 형태를 파악하기 쉽도록 어근과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들 접미사들이 활용된 다양한 단어들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된다. 이런 까닭으로 소리대로 적기보다는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어법에 맞게 적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는 단어 형성 과정에 잘 활용되지 않는다. 이에 접미사를 어근과 구분하는 수고를 거치기보다는 소리대로 적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 해설 | ‘쇠붙이’는 ‘쇠+붙-+이’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맛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 딸리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의 어간 ‘붙-’에 명사형 접미사 ‘-이’가 결합한 명사 ‘붙이’가 다시 접미사처럼 쓰여 명사 ‘쇠’에 결합한 것으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벌이’ 역시 동사의 어간 ‘벌-’에 명사형 접미사 ‘-이’가 붙어 쓴 것으로 ‘쇠붙이’와 동일하다.

오답 해설 | ② ‘끓이’는 형용사 ‘끓다’의 어간 ‘끓-’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명사로 ㉡에 해당한다. ‘굳이’는 어간 ‘굳-’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단어로 ㉢에 해당한다.

③ ‘니머’는 동사 ‘넘다’의 어간 ‘넘-’에 접미사 ‘-어’가 결합된 단어로 명사로 제19항 [붙임] ①에 해당한다. ‘마주’는 동사 ‘맞다’의 어간 ‘맞-’에 접미사 ‘-우’가 붙어 된 부사로 ㉣에 해당한다.

④ ‘일찍이’는 부사 ‘일찍’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부사이다. ‘살살이’는 ‘두 물건의 틈’이라는 뜻의 명사 ‘살’이 접어를 이룬 ‘살살’이라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부사로 ㉤에 해당한다.

⑤ ‘바깥’은 명사 ‘밖’에 접미사 ‘-알’이 결합된 단어로 ㉥에 해당하지만 ‘올가미’는 동사 ‘옴다’의 어간 ‘옴-’에 접미사 ‘-아미’가 결합된 것으로 제19항 [붙임] ①에 해당한다.

05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품사 분류가 인위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품사가 서로 배타적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어떤 단어들은 여러 품사를 가지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한 글이다.

정답 해설 | ‘언제든지’에서의 ‘언제’와 ‘언제’는 모두 대명사이다. ‘언제’는 부사로 쓰여 품사의 통용을 보이는데 ‘언제 올 거야?’에서 ‘언제’의 품사는 부사이다.

오답 해설 | ① ‘참을 만큼’에서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다. 반면 ‘사람만큼’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② ‘피부가 건조하다’에서의 ‘건조하다’는 ‘말라서 습기가 없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반면 ‘빨래를 건조하다’에서의 ‘건조하다’는 ‘물기나 습기를 말려서 없애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③ ‘가까이 와’에서의 ‘가까이’는 ‘한 지점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라는 뜻의 부사이다. 반면 ‘가까이에서’의 ‘가까이’는 ‘가까운 곳’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⑤ ‘아무도’에서 ‘아무’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인칭 대명사이다. 반면 ‘아무 말도’에서 ‘아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를 때 쓰는 관형사이다.

06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에서는 파생된 결과로 존재하는 피동사와 사동사가 같은 형태이지만, 그 어근이 되는 용언이 서로 다른 것일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즉, ㉠에 들어갈 예시가 될 두 단어는 하나는 피동사, 하나는 사동사여야 하며 두 단어의 어근이 서로 다른 단어에서 파생되어야 한다.

정답 해설 | ‘모기에게 물리다.’의 ‘물리다’는 ‘이, 반대, 모기 따위의 벌레가 주둥이 끝으로 살을 찌르다.’는 뜻을 가진 ‘물다’에 피동의 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다.’의 ‘물리다’는 ‘남에게 입힌 손해를 돈으로 갚아 주거나 본래의 상태로 해 주다’라는 뜻을 가진 ‘물다’에 사동의 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즉 ㉣의 ‘물리다’는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어근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언에서 파생된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꽃이 눈처럼 날렸다.’의 ‘날리다’는 ‘공중에 띄워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 ‘날다’의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비행기를 날렸다.’의 ‘날리다’는 같은 의미의 ‘날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이 두 ‘날리다’는 어근이 같다.

② ‘야채가 담긴’의 ‘담긴’은 ‘어떤 물건을 그릇 따위에 넣다.’의 뜻을 가진 ‘담다’에 피동의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이다. ‘바닷물에 담긴 발’의 ‘담긴’은 ‘액체 속에 넣다.’라는 뜻을 가진 ‘담그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서 어간 ‘담그-’의 마지막 음운인 ‘ㄱ’이 탈락하여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 두 ‘담기다’는 서로 다른 어근을 가졌으나 둘 다 피동사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③ ‘재산을 불리기’의 ‘불리다’는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라는 뜻을 가진 ‘불다’에 사동의 접미사 ‘-리-’가 결합하면서 어간 ‘불-’의 마지막 음운인 ‘ㄷ’이 ‘ㄹ’로 변동되어 이루어진 형태이다. ‘자신의 배를 불리다.’의 ‘불리다’는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팽창한 느낌이 들다.’라는 뜻을 가진 ‘부르다’에 사동의 접미사 ‘-리-’가 결합하면서 어간 ‘부르-’의 마지막 음운인 ‘ㄱ’이 탈락하여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 두 ‘불리다’는 서로 다른 어근을 가졌으나 둘 다 사동사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⑤ ‘친구들이 놀리다.’의 ‘놀리다’는 ‘짓궂게 굴거나 흥을 보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라는 뜻의 단어어이다. ‘아이들을 놀리다.’의 ‘놀리다’는 ‘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지내다.’라는 뜻을 가진 ‘놀다’에 사동의 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07

정답 ①

지문 분석 | 이 글은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에 대해 설명하고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파생 접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접사이며 굴절 접사는 어미이다.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의 차이점은 우선 파생 접사는 어근이 가진 개

념적인 뜻을 바꾸어 주지만 굴절 접사는 그러지 못하고, 파생 접사는 어근의 품사와 다른 단어를 만들 수 있지만 굴절 접사는 그러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파생 접사는 굴절 접사에 비해 분포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다.

정답 해설 | ‘공부하다’에서 ‘공부’는 어근이고 ‘하다’는 파생 접사이다. 따라서 의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공부’와 ‘하다’로 분석되어야 한다. ‘공부하+다’로 분석하는 것은 어간과 어미로 나눈 것이므로 활용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은 결과이다.

오답 해설 | ② ‘공부하다’는 ‘공부’, ‘-하-’, ‘-다’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 ‘공부’는 어근, ‘-하-’는 파생 접사, ‘-다’는 굴절 접사(어미)이다.
 ③ ⑥의 ‘돌’은 파생 접사이므로 ‘돌’과 ‘배’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없다.
 ④ ‘돌배’의 ‘돌’은 품질이 좋지 않음을 뜻하는 접사지만, ‘돌머리’의 ‘돌’은 어근으로 명사에 해당한다.
 ⑤ ㉔의 ‘맨’은 부사에 해당하므로 다른 성분과 분리성이 있지만, ④의 ‘맨-’은 접사이므로 다른 성분과 분리성이 없다.

08

정답 ②

정답 해설 | ‘마개’는 ‘막+-+에’로 ‘덮개’는 ‘덮+-+개’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마개에 붙은 접사와 덮개에 붙은 접사는 ‘-에’와 ‘-개’로 그 형태가 다르다.

오답 해설 | ① ‘높이다’는 파생 접사 ‘-이-’가 어근 뒤에, ‘휘젓다’는 어근 앞에 파생 접사 ‘휘-’가 접사가 붙어 있다.
 ③ ‘내렸겠다’는 ‘내리+-+었+-+겠+-+다’로 분석되므로 굴절 접사인 어미는 ‘-었-’, ‘-겠-’, ‘-다’로 세 개가 나타난다.
 ④ ‘말’, ‘소리’, ‘입’은 모두 명사이다.
 ⑤ ‘회덮밥’의 각 형태소는 명사, 동사의 어간, 명사로 모두 어근이다. ‘휘젓다’의 ‘휘-’는 파생 접사, ‘젓-’은 동사의 어간으로 어근, ‘-다’는 굴절 접사이다.

09

정답 ⑤

정답 해설 | 파생 접사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지만 굴절 접사는 의미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로 제시된 ‘털갈이’, ‘옷걸이’, ‘구두 닦이’만 보더라도 ‘털갈이’의 ‘-이’는 ‘하는 일’의 의미를 ‘옷걸이’의 ‘-이’는 ‘하는 도구’의 의미를 ‘구두닦이’의 ‘-이’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파생 접사 ‘-이’가 동사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명사인 ‘놀이’, ‘더듬이’, ‘먹이’는 어근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뜻을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들은 ‘놀-’, ‘더듬-’, ‘먹-’과는 별개의 단어이다. 이에 비해 굴절 접사가 결합한 ‘놀다’, ‘놀지’, ‘놀고...’ 등은 어근이 가지고 있는 뜻을 바꾸지도 않고 새로운 단어도 아니다.
 ② ‘도둑이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경찰이 놓쳤다.’라는 문장에서 ‘달리기’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동사의 품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지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기’는 굴절 접사이다.
 ③ 파생 접사는 굴절 접사에 비해 어근과의 결합에서 제약이 심하다.
 ④ ‘-게’는 굴절 접사로 사용되는데, 형용사와 결합할 때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용사에 결합하여 사용될 때 주어 명사구를 요구하는 일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파생 접사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게’는 굴절 접사로 보되, 부사적 기능도 겸하고 있다고 본다.

10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 1>은 조사 ‘가’와 ‘이’의 사전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가[1][2]’와 ‘이[1][2]’는 이 두 조사가 이형태 관계라는 것을 보여 준다. 또 ‘가[1][1]’과 ‘이[1][1]’은 주격 조사, ‘가[1][2]’와 ‘이[1][2]’는 보격 조사, 마지막으로 ‘가[2]’와 ‘이[2]’는 보조사의 역할을 함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해설 | ㉔의 ‘가’는 ‘가[2]’에 해당하는 보조사가 맞지만 ㉔의 ‘이’는 서술어

‘아니다’ 앞에서 부정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보격 조사인 ‘이[1][2]’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㉔의 ‘가’와 ㉔의 ‘이’는 둘 다 주격 조사이다.
 ② ㉔의 ‘가’는 서술어 ‘되다’ 앞에서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보격 조사이다.
 ③ ㉔의 ‘가’는 보조사로 연결 어미 ‘-지’ 뒤에 쓰이고 있으므로 뒤에 부정적인 서술어가 오고 있다.
 ⑤ ㉔의 ‘가’는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고 있는 보조사이다.

blacklabel 특강_ 보격 조사의 특수성

보격 조사는 서술어 ‘되다’와 ‘아니다’ 앞에 쓰인 ‘이’와 ‘가’를 일컫는다.

(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 갈대는 나무가 아니다.

보격 조사는 주격 조사와 그 형태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주격 조사의 존경의 표시인 ‘께서’가 보격 조사에는 오지 못한다. 둘째로는 보격 조사가 결합된 명사구는 관형구성으로 응축시킬 때 피관형어가 될 수 없다.

(가) *된 얼음

(나) *아닌 나무

11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깨다’의 의미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분위기를 깨다’는 ‘깨다²㉔’에 해당하고 ‘마취에서 깨다’는 ‘깨다¹㉓’에 해당하므로 상황이나 상태를 망치가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분위기를 깨다’만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깨다¹’과 ‘깨다²’는 형태는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② ‘기록을 깨다’는 ‘깨다²㉔’에 해당하고 ‘무릎이 깨지다’는 ‘깨다²㉔’에 해당하므로 다의어 관계이다.
 ③ ‘깨다²㉔’은 ‘깨다’는 ‘부수다’와 유의 관계이다.
 ④ ‘잠에서 깨어나다’와 ‘술에서 깨다’는 ‘깨다’에 해당하는 다의어로, 이 경우는 둘 다 반의어로 ‘빠지다’가 가능하다.

12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 1>은 ‘뜻이’가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보기 2>는 ‘뜻이’가 사용된 예시들로, ㉓과 ㉔은 어미로 쓰였고 ㉓, ㉔, ㉔은 의존 명사로 쓰였다. 이 중 ㉓과 ㉔은 의존 명사 ‘뜻’에 ‘-하다’가 결합하여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예이다.

정답 해설 | ㉔의 ‘뜻 하다’는 어미 ‘뜻’에 별개 단어인 ‘하다’가 결합한 구조이고 ㉔의 ‘뜻하다’는 의존 명사 ‘뜻’에 ‘-하다’가 결합하여 형용사가 된 경우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㉔의 ‘뜻이’는 어간에 붙어 있으므로 어미이고, ㉓의 ‘뜻이’는 ‘본’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인 것이다.
 ② ㉔의 ‘감추듯’의 ‘듯’ 역시 어간에 붙어 있으므로 ‘어미’이다. 그런데 같은 어미인 ‘뜻이’는 강조의 뜻이 있음을 <보기 1>에서 밝혔다.
 ③ ㉔의 ‘본 뜻이’의 ‘뜻이’는 의존 명사이므로 품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㉔의 ‘감추듯’의 ‘듯’은 어미이므로 품사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④ ㉔의 ‘나는 뜻한’의 ‘뜻한’은 의존 명사 ‘뜻’에 ‘하다’의 활용형이 붙은 것이고, ㉔의 ‘뜻하다’도 동일한 구성 방식을 지니고 있다.

Ⅲ. 문장

STEP A 1등급 도전문제

01 ③ 02 ① 03 ⑤ 04 ③ 05 ③ 06 ④
07 ① 08 ③ 09 ② 10 ⑤

01

정답 ③

보기 분석 <보기>는 관형절 중 관계 관형절을 언급하고 있다. 관계 관형절은 서술어 구문으로 전개하게 되면 안은문장과 공통된 논항이 생기고 이 논항은 서술어 구문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한다.

정답 해설 '어제 그가 공원에 간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에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제 그는 공원에 갔다.'이다. 여기서 '사실'은 관형절을 완전하게 바꾼 문장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문장이 동격 관형절이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선생님이 내 주신 숙제를 오늘에야 다 마쳤다.'에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 주셨다.'이므로 '숙제'는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지난해에 학교에 진학한 동생에게 나는 축하를 해 주었다.'에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동생이 지난해에 학교에 진학했다.'이므로 꾸밈을 받던 체언인 '동생'은 주어로 쓰이고 있고, '우리 아버지를 닮은 아저씨를 나는 오늘 또 만났다.'에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이므로 '아저씨'는 역시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② '얼음으로 된 조각상에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에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조각상은 얼음으로 되었다.'가 되므로 '화가'는 주어로 쓰였고, '선생님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우리에게 강변하셨다.'에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선생님의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가 되므로 '생각'도 역시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④ '형이 내게 준 만년필을 나는 쓰기 싫었다.'에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형이 내게 만년필을 주었다.'가 되므로 '만년필'은 목적어로 쓰였고, '친구는 어제 본 영화를 내게 보라고 권하며 티켓을 주었다.'에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는 어제 영화를 보았다.'가 되므로 '영화'는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에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주말에 운동장에서 공을 찼다.'가 되므로 '주말'은 부사어로 사용되었고,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에서 관형절로 안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관중이 경기장에 쓰레기를 남겼다.'가 되므로 '경기장'은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02

정답 ①

보기 분석 <보기>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이때 서술어는 피동사로 바뀌어야 한다.

정답 해설 ④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철진의 오해가 광수에 의해 풀렸다'이다. 능동문인 '광수가 철진의 오해를 풀었다.'의 자릿수가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 데 반해 피동문인 '철진의 오해가 광수에 의해 풀렸다.'는 주어만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④는 '철진의 오해가 광수에 의해 풀렸다.'이므로 능동문의 목적어인

'철진의 오해'가 주어가 되었고(④) 능동문의 주어인 '광수'가 부사적 조사와 결합해 부사어가 되었으며(②, ③) 서술어인 '풀렸다'를 '풀어졌다'로도 쓸 수 있다(⑤).

03

정답 ⑤

보기 분석 ㉠ '오늘'은 부사로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 '어머니'는 뒤의 명사 '휴대폰'을 그대로 수식하고 있는 명사로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맡고 있다. ㉢ '거기'는 대명사로 주격 조사 '가'가 생략된 형태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맡고 있으며, ㉣ '바로'는 명사를 꾸며 주고 있으나 품사가 부사이므로 부사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천체관이랑'의 '이랑'은 접속 조사인데 '천체관 이랑 기술체험관이 볼 게 많아'라는 문장은 '천체관이 볼 게 많아'와 '기술체험관이 볼 게 많아'라는 두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다. 이에 '천체관이랑'은 이어진 문장의 주어라고 할 수 있다. ㉥ '맨'은 관형사로 뒤의 명사 '처음'을 꾸며 주고 있는 관형어이다. ㉦ '엄서하고'는 ㉢처럼 접속조사 '하고'가 붙어 이루어진 성분이다. '거기 엄서를 하나를 사 와.'와 '거기 책갈피를 하나를 사 와.'의 문장이 이어진 것이기에 '엄서하고'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라고 할 수 있다. ㉧ '하나'는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성분으로 목적어라 할 수 있다. ㉨ '건'은 '것은'의 준말로 의존 명사 '것'에 보조사 '은'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때 '것'은 이는 뒤의 서술어 '아니거든' 앞에 위치하고 있고, 격 조사로는 '이'를 취하기에 '건'은 보어라고 할 수 있다. ㉩ '용돈이라도'는 보조사 '이라도'가 결합한 것으로 격 조사로는 목적격 조사 '을'을 취하는 목적어이다.

정답 해설 ㉡, ㉣, ㉥은 모두 목적어이다.

04

정답 ③

보기 분석 <보기>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해설 '한 무리의 염소들이 지나간 초지에는 풀이 모두 뜯겨 있었다.'에서 '뜯겼다'는 피동사로, '동생을 데리고 고깃집에 가서 갈비를 뜯겼다'의 '뜯겼다'는 사동사이다. 이처럼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같을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가 어떤 행동을 당한 것인지, 하게 한 것인지를 문맥을 통해 구별해 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눅이다'는 사동사로만 쓰였다.

② '쫓기다'는 피동사로만 쓰였다.

④ '남이다'는 피동사로만 쓰였다.

⑤ '물리다'는 피동사로만 쓰였다.

05

정답 ③

보기 분석 <보기>는 안은문장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ㄱ의 안긴문장은 명사절인 '이 사건의 범인임'이고, ㄴ은 관형절인 '언니가 빵을 사 준'이다. ㄷ의 안긴문장은 관형절인 '동생이 가게에서 산'이고, ㄹ은 명사절인 '엄마가 집에 오기'이다. 그리고 ㅁ의 안긴문장은 관형절인 '집에서 먼'이다.

정답 해설 ㄷ '오빠가 동생이 가게에서 산 빵을 먹었다.'에서 '동생이 가게에서 산'은 관형절로 안겨 있는데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한다. 그러나 ㄴ '언니가 빵을 사 준 일이 생각났다.'에서 '언니가 빵을 사 준'은 '일'과 동격을 이루기 때문에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ㄱ에는 '그가 이 사건의 범인임'이 주어로 안겨 있고, ㄴ에는 '언니가 빵을 사 준'이 관형어로 안겨 있다.

② ㄴ의 '언니가 빵을 사 준'과 ㄷ의 '동생이 가게에서 산'은 둘 다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④ ㄷ '오빠가 동생이 가게에서 산 빵을 먹었다.'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동생'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오빠'이므로 주어는 서로 다르다. ㄹ의 '나는 엄마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다.'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엄마'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나'이다.

⑤ ㄹ의 '엄마가 집에 오기'는 목적으로 안겨 있어서 생략할 수 없지만, ㄹ의 '집에서 먼'은 관형어로 안겨 있어서 생략할 수 있다.

06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안은문장에 여러 개의 안긴문장이 들어간 예를 제시하고 있다. ㄱ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고, ㄴ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정답 해설 | ㄴ의 '선생님은 성훈이가 키가 크고 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의 안긴문장인 '성훈이는 키가 크고 착하다는 사실'을 분석하면, '성훈이는 키가 크다는 사실'과 '성훈이는 착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안긴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ㄱ은 '키가 크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겹문장이며 전체 서술어는 서술절인 '키가 크다'이다. ㄴ의 '알고 있었다'는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③ ㄴ의 '크고'와 '착하다'의 주어는 모두 '성훈이'로 보아야 한다. 선생님은 '알고 있었다'의 주어로 전체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⑤ '성훈이가 키가 크고 착하다는 사실'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안긴문장 내부에는 목적어가 없다.

blacklabel 특강 서술절을 안은 문장

서술절은 안은 문장 안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절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 그 예이다.

예 코끼리가 코가 길다.

위의 예를 보면 마치 주어가 두 번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서술절의 대표적 특징이다. 또 명사절, 관형절 등과 달리 어미나 조사 같은 서술절의 표지가 없다는 것도 서술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에서 첫 번째 명사구가 '이/가' 대신 '은/는'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 코끼리가 코가 길다. → 코끼리는 코가 길다

물론 첫 번째 명사구가 '이/가'를 가질 때에 비해 '은/는'을 가지면 '주제'나 '화제'의 의미가 강해진다는 의미론적 차이는 존재한다.

07

정답 ①

보기 분석 | <보기>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절대 시제는 발화자의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상대 시제는 주로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전체 문장의 사건시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정답 해설 | '교직을 떠난 친구를 지금 만나러 간다.'에서 '떠난'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도 과거에 벌어진 일이고, '간다'라는 사건시를 기준으로 해도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떠난'은 발화시보다 앞서는 사건이고, '간다'는 발화시와 일치하는 사건이다.

③ '빨래하시는'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 시제로는 과거 시제이고,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시제로는 현재 시제다.

④ 시간 부사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시제를 표시하는 부분은 '빨래하시는'과 '방해하였다.'뿐이다.

⑤ '오느'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 시제로는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시제로는 현재 시제이다.

08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 1>은 부사어가 절과 의존 명사의 결합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의존 명사를 부사성 의존 명사라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채, 줄, 김, 바람' 등이 있다.

정답 해설 | ㄱ에서 '네가 나를 좋아하는(관형절) + 줄(의존 명사) + (부사격 조사의 생략)'의 형태가 부사어로 성립되었다. ㄴ에서 '네가 마음을 먹은(관형절) + 김(의존 명사) + 예(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부사어로 성립되었다. ㄹ에서 '웃

을 털 입은(관형절) + 채(의존 명사) + 로(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부사어로 성립되었다.

오답 해설 | ①, ④, ⑤ ㄴ에서 '그가 오기(명사절) + 전(자립 명사) + 예(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부사어로 성립되었다.

② ㄹ에서 '비행기가 떠난(관형절) + 후(자립 명사) + 예(부사격 조사)'의 형태가 부사어로 성립되었다.

09

정답 ②

정답 해설 |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집을 비우셨습니다.'에는 ㉠에 해당하는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한 높임 표현인 '비우셨습니다', '-습니다'의 상태 높임 어말 어미만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 ① ㉠에 해당하는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결합된 '되십니까'가 있고 ㉡에 해당하는 '연세가 있다'.

③ ㉠에 해당하는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만드시고'가 있고 ㉡에 해당하는 '계시다'가 있다.

④ ㉠에 해당하는 조사 '께서', ㉡의 선어말 어미 '-시-'와 어말 어미 '-습니다', ㉡에 해당되는 '드리다'가 결합된 '드렸습니다'가 있다.

⑤ ㉠에 해당하는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결합된 '하셨습니다'가 있고 ㉡에 해당하는 '택', '뵙다'가 있다.

10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의 개념 및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ㄱ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ㄷ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고 ㄹ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정답 해설 | ㄷ의 안긴문장 '그 아이가 전학생임'은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는 필수 성분이지만, ㄹ의 안긴문장 '길을 걷던'은 생략해도 문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부속 성분이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대조 관계이고, ㄴ은 조건 관계로 이어져 있다.

② ㄱ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ㄴ은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바뀐다.

③ ㄱ에서는 '나는'이라는 주어가, ㄹ에서는 '인수가'라는 주어가 각각 생략되었다.

④ ㄷ의 안긴문장 '그 아이가 전학생임'은 목적으로, ㄹ의 안긴문장 '길을 걷던'은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11 ⑤	12 ②	13 ③	14 ③	15 ④	16 ②
17 ④	18 ③	19 ①			

11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동사 '오다'의 사전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다의어의 경우 동일한 단어라 할지라도 뜻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답 해설 | '나는 그녀가 우리 동네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오다[4]'의 용례가 아니라 '오다[1]'의 용례로 이 문장은 주어,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하고 있는 두 자리 서술어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오다[1]은 주어와 부사어 '【...에/에게】' 혹은 '【...으로】'가 필수 성분이거나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 성분으로 하고 있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오다[1]'과 마찬가지로 '오다[2]'도 주어와 부사어 '【...에/에게】' 혹은 '【...으로】'를 필수 성분으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어머니에게서 회사로 전화가 왔다.'는 주어 '전화가'와 부사어 '어머니에게서'를 필수 성분으로 하는 '오다[2]'의 용례로, 이때 '회사로'는 필수적 부사어는 아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의 조사 '에게서'는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④ '오다[3]'은 한 자리 서술어로 또 다른 용례로는 '벌써 추위가 왔다.'를 들 수 있다.

12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 1>은 직접 구성 요소에 따라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 예를 들고 있다. <보기 2>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장들이다.

정답 해설 | '풍경이 아름답다고 들었다'는 주어가 생략된 채 서술어 '들었다'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주어가 '서울은'이고 서술어는 '인구가 매우 많다'로 서술절이 서술어를 이루고 있다.

② ㄴ은 명사절 '홍길동 씨가 범인임'에 주격 조사 '이'가 붙어 주어를 이루고 있고 서술어는 '밝혀졌다'이다.

③ ㄷ의 주어 '그가 만난 사람'은 그 속에 관형절을 안고 있다. 서술어는 '내 아 내었다'이다.

④ ㄹ의 주어는 '우리는'이고 서술어는 '돈 없이 이들을 더 견뎌야 한다'인데 부사절 '돈 없이'를 안고 있다.

13

정답 ③

보기 분석

(가)	-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문장 성분이 안긴문장에서 생략됨. - 이때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
(나)	-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안은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기능을 함. - 이때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
(다)	- 서술절은 절 안에 주어, 서술어뿐 아니라 부사어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이때 부사어까지 포함할 경우

정답 해설 | ㉔의 안긴문장은 관형절 '(그가) 시장에서 산', 명사절 '(어머니가) 김장을 하기', 서술절 '(배추는) 양이 매우 적었다'이다. 관형절 '시장에서 산'은 본래 '그가 시장에서 배추를 샀다.'에서 목적어 '배추를'이 생략된 형태이므로, (가)를 충족한다. 또한 명사절 '김장을 하기'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므로, (나)를 충족한다. 그리고 서술절 '양이 매우 적었다'에는 부사어 '매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를 충족한다. 따라서 (가)~(다)를 모두 충족시키는 문장은 ㉔이다.

오답 해설 | ① ㉑의 안긴문장은 관형절 '(우리는) 어제 놀던'과 명사절 '다시 만나기'이다. 명사절 '다시 만나기'는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므로, (나)를 충족한다.

② ㉒의 안긴문장은 관형절 '숙제를 많이 한'과 '피곤해 하던', 서술절 '잠이 폭 들었다'이다. 서술절 '잠이 폭 들었다'에는 부사어 '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를 충족한다.

④ ㉔의 안긴문장은 관형절 '(그가) 마당에 심은'과 서술절 '꽃잎이 아주 예쁘다'이다. 관형절 '(그가) 마당에 심은'은 본래 '그가 마당에 화초를 심다.'에서 목적어 '화초를'이 생략된 형태이므로, (가)를 충족한다. 또한 서술절 '꽃잎이 아주 예쁘다'에는 부사어 '아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를 충족한다.

⑤ ㉕의 안긴문장은 관형절 '(내가) 어제 만난'과 명사절 '성금을 기부하기'이다. 관형절 '(내가) 어제 만난'은 본래 '내가 어제 친구들을 만났다.'에서 목적어 '친구들을'이 생략된 형태이므로, (가)를 충족한다. 명사절 '성금을 기부하기'는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므로, (나)를 충족한다.

14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다양한 겹문장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ㄱ은 3개의 홑문장이 겹쳐 만들어진 문장이다. 먼저 '계연은 (어떤)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신을 찾았다'와 '계연은 하직 인사를 했다'의 두 문장이 이어져 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의 앞 절에 '눈이 시뻘겋게 되었다'는 문장이 관형절의 형태로 삽입되어 있다. 이때 '-게 되다'는 보조 용언이다.

ㄴ은 3개의 홑문장이 겹쳐 만들어진 문장이다. 먼저 '그는 ~을 느꼈다'의 문장이 존재하고 그 목적어 부분에 '그에게 업힌 주 대위의 몸통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았다.'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다시 '주 대위의 몸통이가 내려앉았다'와 '주 대위의 몸통이가 그에게 업혔다.'로 쪼갤 수 있다. 곧, '그는 ~을 느꼈다 / 주 대위의 몸통이가 내려앉았다 / 주대위의 몸통이가 그에게 업혔다.'로 분석할 수 있다.

ㄷ은 4개의 홑문장이 겹쳐 만들어진 겹문장이다. 먼저 '영달이는 신발 끈을 보았다.'와 '영달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의 두 문장이 이어져 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의 앞 절에 '흙이 덕지덕지 신발에 붙었다.'라는 문장이 관형절의 형태로 삽입되어 있다. 또한 이어진 문장의 뒤 절의 '아무 말이 없었다'는 뒤 절의 주어 '영달이는'을 수식하는 서술어로 기능하는 서술절이다. 곧 전체 문장은 이어진 문장의 형태이며, 그 이어진문장의 앞 절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의 형태를, 뒤 절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정답 해설 | ㄴ에서 연결 어미 '-며'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때 일치하는 주어 중 하나는 생각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후행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에 후행절을 재구성하면 '영달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가 되며, '아무 말이 없었다' 자체가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하는 서술절이 된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홑문장 3개가 겹쳐 만들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주어-서술어 관계가 3번 드러난다.

② ㄴ은 '그는 ~을 느꼈다'라는 큰 문장 속에 '주 대위의 몸통이가 내려앉았다.', '주 대위의 몸통이가 그에게 업혔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다. 안긴문장에 목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ㄱ에서 '시뻘겋게 된'은 관형절, '찾고는'은 이어진 문장의 서술어이다. ㄴ에서 '업힌'은 관형절, '무겁게'는 부사절, '내려앉음'은 명사절의 서술어들이다. 곧, ㄱ은 명사절을 안고 있지 않다.

⑤ ㄱ에서 쓰인 어미 '-고'는 보통 두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낼 경우 종속적 연결 어미와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데, 바로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꿀 경우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15

정답 ④

정답 해설 | '밝혀졌다'는 기본형 '밝히다'에 '-어지다'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온전한 피동문이다. ④는 기본형을 '밝다'로 보는 데서 오는 오해이므로 헛갈리지 않아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용언에 피동 접사나 '-어지다'를 결합하는 것이 있다. '당하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갖는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은 의미적으로는 피동문의 성격을 갖지만, 피동사가 아니므로 형태적으로는 피동문으로 보지 않는다.

② '날씨가 풀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주체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상황 의존성을 가진 문장은 능동문을 만들기 어렵다.

③ '잊어졌다'를 '잊혔다'로 바꾸어도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⑤ 피동문은 능동문의 주어가 주로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되므로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밝히다'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목적어가 나타날 수 있다.

16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 1>은 하나의 단어라 할지라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기 2>는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 예문들이다.

정답 해설 | ㄱ의 첫 번째 문장의 '두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두 번째 문장의 '두다'는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ㄴ의 첫 번째 문장의 '받다'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두 번째 문장의 '받다'는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ㄹ의 첫 번째 문장 '열다'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두 번째 문장의 '열다'는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해설 | ㄷ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가다' 모두 주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ㄹ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밀다' 모두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blacklabel 특강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주어+목적어, 주어+필수적 부사어, 주어+보어 등이 필수 성분인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세 자리 서술어는 보통 주어+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주어+필수적 부사어+필수적 부사어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체로 형용사문이나 자동사문은 한 자리 서술어이고 타동사문은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이라도 개별 용언의 성격에 따라 문장 성분을 더 취하기도 한다.

17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사동문의 종류, 특징 그리고 사동문 형성의 제약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동문 형성에 있어서 제약으로 보이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답 해설 | ㄴ에서 '구속시키다'는 '구속하다'의 잘못된 사동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구속하다'라는 행위의 주체는 주어인 '검사'이다. '구속'은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일을 말하므로, 검찰은 피고인인 '그'를 구속한 행위를 한 것이지 구속시킨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주동사 '입다'에 사동의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사동사 '입히다'가 된 사동에 해당한다. 이는 단형 사동으로 맥락에 따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ㄱ 역시 아버지가 직접 행동을 한 직접 사동의 의미와 말, 눈짓 등을 통해 아이가 옷을 입도록 유도한 간접 사동의 의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② ㄴ은 주동사 '숨다'에 사동의 접미사 '-기-'가 결합한 사동사 사동이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주동문은 상정할 수가 없다는 제약이 있다.

③ ㄷ은 주동문이지만 사동문으로 만들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사동문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어제 어린 동생에게 더위를 먹였다.'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게 되므로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⑤ ㄹ은 주동사 '잡다'에 사동의 접미사 '-히-'가 결합한 사동사 사동의 예이다. 이때 사동사 '잡히다'는 피동사 '잡히다'와 형태가 같다. '사동주'는 보통 사동문의 주어로, '그'이다. 그리고 사동주에게 영향을 받는 '피사동주'는 보통 사동문에서 부사어로 나타나며 이 문장에서는 '잡다'라는 행위의 주체이다.

18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문장 내에서 부사어가 수식하는 문장 성분, 부사어가 성립되는 다양한 형식, 필수적 부사어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정답 해설 | 부사어 '매우'는 부사가 부사어로 쓰인 경우이지만 '예쁘게'는 형용사 '예쁘다'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 ① '그가 된장찌개를 얼마나 잘 먹어?', '얼마나 그가 된장찌개를 잘 먹어?' 등으로 부사어 '얼마나'는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부사어 '잘'은 용언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자리에 쓰일 수 없다.

② '참석하다'는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로 삼고 있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므로 ㄴ에서 '토론회에'가 필수적 부사어이고 '대표로'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④ ㄹ의 부사어는 '정말'뿐이다. 부사어 '정말'은 관형어 '납은'을 수식하고 있다. 관형어 '납은'은 체언 '운동화'를 수식하고 있다.

⑤ '질리도록'은 용언 '질리다'에 부사형 어미 '-도록'이 결합한 부사어이다. 이때 '질리도록'은 앞에 위치해 있는 부사어 '정말'의 수식을 받고 있고 '질리도록'은 용언 '들었다'를 수식하고 있다.

19

정답 ①

보기 분석 | <보기>는 중의성을 지닌 문장의 용례들이다. 중의성을 띠는 문장은 그 원인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부정 표현에 따른 중의성이다. ㄱ은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일 때 그 정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긴 것이다. 즉 '손님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인지, '손님들이 오긴 했지만 전부는 오지 않은 것'인지가 모호하다. 이는 부사어 '다'가 부정된 정도에 따라 의미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ㄷ의 경우는 부정 표현이 어떤 성분을 부정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이다. '민수와 만나지 않은 것이 나'인지, '내가 민수와 만나지 않은 날이 어제'인지, '내가 어제 만나지 않은 대상이 민수'인지, '내가 어제 민수와 하지 않은 것이 만난 행동'인지가 모호한 것이다.

둘째는 서술어의 행위 주체와 대상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다. ㄴ의 경우 '나'가 혼자서 '철수와 영희' 두 사람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나와 철수' 두 명이 '영희'를 만난 것인지 모호하다. ㄹ의 경우는 '만나고 싶어하는' 행위의 주체가 '형'인지 '어떤 사람인지'인지 불명확하여 생기는 중의성이다. 즉 주체가 형이라면 '형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고 주체가 어떤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셋째는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다. 수식어가 어떤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가가 모호하여 중의성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ㄹ이 그 예이다. '웃으면서'가 수식하는 대상이 '나'인지 '손님'인지 모호하다.

정답 해설 | ㄱ의 경우 부정어가 부정하는 문장 성분을 정확히 규정하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로 해소할 수 없다. 보조사를 활용해 '손님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또는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로 바꾸거나, 부사어를 변경하여 '손님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로 바꾸면 중의성이 해소된다.

오답 해설 | ② ㄴ은 심표를 사용하면 서술어의 행위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데,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또는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로 바꿀 수 있다.

③ ㄷ은 부정어가 부정하고자 하는 문장 성분에 보조사를 붙여 '나는 어제는 민수와 만나지 않았다.', '나는 어제 민수와는 만나지 않았다.', '나는 어제 민수와 만나지는 않았다.'로 바꿀 수 있다.

④ ㄹ은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해 주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데, 주격 조사를 사용하여 '형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귀고 싶어한다.'로 바꿀 수 있다.

⑤ ㄹ은 어순을 교체하여 수식어가 꾸며 주는 대상을 명확히 밝히면 중의성이 해소된다. 즉 '나는 매장에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바꿀 수 있다.

20 ②	21 ⑤	22 ④	23 ⑤	24 ③	25 ②
26 ③	27 ⑤	28 ①	29 ②	30 ②	31 ①

20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는 관형어를 문장 성분으로 취하고 있는 문장의 용례들이다. ㄱ은 관형사를 관형어로 쓰고 있는 문장이다. ㄴ은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관형어를 쓰고 있는 문장으로 여기에 쓰인 관형격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ㄷ은 ㄴ처럼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관형어를 쓰고 있는 문장이지만 ㄴ과 다르게 여기서의 관형격 조사는 생략할 수 없다. ㄹ은 관형격 조사를 사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을 보여 주는 예이다. ㅁ은 용언의 관형사형을 관형어로 쓰고 있는 예인데 용언의 관형사형은 그 서술어 구문의 응축의 절차를 밟아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ㅂ은 ㅁ과 같은 용언의 관형사형을 관형어로 쓰고 있는 예이지만 피관형사가 의존 명사인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 해설 | 관형격 조사 '의'는 쉽게 생략되지만, 'ㄷ'과 같은 예에서는 관형격 조사가 생략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는 예이고, ㄴ~ㄹ은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여 관형어가 되는 예이며 ㅁ~ㅂ은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되는 예이다.

③ ㄹ의 '어머니의 그림'은 '어머니를 그린 그림', '어머니가 그린 그림', '어머니가 소유했던 그림'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④ ㅁ의 '푸른'은 '바다가 푸르다'라는 형용사 문의 서술어 '푸르다'에 관형격 어미 '-ㄴ'이 결합하고 중복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만들어진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관형어는 수의적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지만 ㅂ과 같이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피관형어가 의존 명사일 경우에는 그 앞에 관형어가 반드시 와야 한다.

21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문장의 문법을 어긋나게 사용한 비문(非文)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해설 | '지난 번에 말한 너의 동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기를 바란다.'는 과도한 사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의미가 중복되는 어휘가 사용된 것도 아닌 올바른 문장이다.

오답 해설 | ① 주어가 '낙제한 학생들'이므로 보충 수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한다. 즉 '오늘 시험에 낙제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한다.'로 표현해야 바른 문장이다.

② 부사 '모름지기'는 '-해야 한다'와 같이 당위성을 지닌 서술어가 뒤따라야 호응이 제대로 된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모름지기 어린이에게 모범적 삶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서술어 '뛰어 들어갔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어디로'의 부사가 생략되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다. '화장실이 급해'란 말이 있지만 꼭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④ 짐은 싣는 것이고, 사람을 태우는 것이므로 서술어 하나가 과도하게 생략된 문장이다.

22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사동 표현의 개념과 종류를 밝히고, 단형 사동과 장형 사

동의 통사적 차이와 의미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단형 사동은 단일 동사로 구성된 사동사이고 장형 사동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성이기 때문에 ㉠~㉣과 같은 통사적 차이를 보인다. 또한 그 의미적 차이도 ㉠~㉣과 같이 보인다.

정답 해설 | 단형 사동이 주로 직접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비해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웃기다'와 같은 동사는 사동주가 피사동주 행위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우므로 '철수는 영희를 웃겼다.'라는 문장은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된다.

오답 해설 | ① 단형 사동문인 '어머니가 아기가 우유를 먹었다.'라는 문장은 비문이지만 장형 사동문인 '어머니가 아기가 우유를 먹게 했다.'는 가능하다.

② 단형 사동문인 '아버지가 영수에게 옷을 빨리 입혔다.'의 부사 '빨리'는 사동주인 아버지의 행위 혹은 피사동주인 영수의 행위를 꾸미는 반면, 장형 사동문인 '아버지가 영수에게 옷을 빨리 입게 했다.'는 피사동주인 영수의 행위만을 꾸미고 있다.

③ 단형 사동문인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책을 읽히시었다.'는 선어말 어미 '-시-'가 한 군데에만 쓰이고 있지만 장형 사동문인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책을 읽으시게 하셨다.'는 두 군데에서 쓰일 수 있다.

⑤ 단형 사동문인 '민수가 진수를 죽였다.'는 '진수가 죽었다.'는 주동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장형 사동문인 '민수가 진수를 죽게 하였다.'는 '민수가 진수를 죽게 했으나 진수는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성립하므로 반드시 주동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3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우리말의 다양한 높임 표현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뉘지만, 실제 생활에서 높임법은 상황과 대상에 맞게 복합적으로 쓰인다.

정답 해설 | '잘 가게, 다음 주까지 과제를 제출하게.'에 쓰인 '하계체'는 격식체의 한 종류로 듣는 사람을 낮추는 표현이다. 비격식체의 높임 표현은 '해요체'이지 '하계체'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출발하신'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시-'는 주체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

② 높여야 할 인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반드시 잘못 된 것은 아니지만 옷 크기가 '중간이시면'이라고 높이는 것은 과도한 높임에 해당하므로 '중간이면'으로 수정해야 한다.

③ 손자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위사람이지만 할아버지보다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높여서 표현하지 않은 것이다.

④ 대화의 대상인 '아빠'는 상사의 부하이지만, 인수에게는 위사람인 아버지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시다'를 써서 부하를 높이고 있다.

24

정답 ③

정답 해설 | ㉠은 '그녀가 지나가도록'이 부사절로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안긴문장의 '지나가도록'에서 '-도록'은 어미이며 '지나가도록'은 '비켜 주었다'를 꾸미는 부사절이다. '지나가다'에 조사가 결합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주어+보어+서술어의 구조로 된 홑문장이다.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로 구성된 문장은 보어를 가진 문장이 된다.

② ㉡의 '좋은'은 주어가 되는 '차'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차가 좋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긴 것이다.

④ 대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이루어진 이어진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⑤ '나는 미영을 자주 만난다.'와 '나는 미영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한 문장이다.

25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는 능동문과 피동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은 일반적인 능동문과 피동문의 예, ㉡은 수량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포함한 능동문과 피동문의 예, ㉢은 피동사가 자동사에서 파생된 능동문과 피동문의 예, ㉣은 피동 표현을 이중으로 사용한 잘못된 피동문의 예, ㉤은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의 예이다.

정답 해설 | '두 포수가 토끼 두 마리를 잡았다.'는 두 포수가 각각 토끼 두 마리씩을 잡은 것인지만, 두 포수 합쳐서 토끼 두 마리를 잡은 것인지 불분명한 문장으로 중의성을 지녔다. 그러나 '토끼 두 마리가 두 포수에게 잡혔다.'는 두 포수가 잡은 것을 합치면 토끼 두 마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피동문이 능동문보다 중의성을 지닌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능동문은 낙엽이 지면을 덮는 모습이 연상되므로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만, 피동문은 덮인 상태라는 인상을 주므로 상대적으로 동작성이 약하다. ③ '날다'는 자동사로 피동사는 일반적으로 타동사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 예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④ '잊혀지다'는 능동사 '잊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하고 또 '-어지다'가 붙은 이중 피동 표현이다. 이중 피동은 잘못된 피동 표현이다. ⑤ ㉤의 '감기에 걸리는 행위'는 의도적 행동의 영역 밖에 있는 피동문이다. 이렇게 문장의 의미가 상황 동작성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피동문이 된다.

26

정답 ③

정답 해설 | ㄴ은 '그가 정당했음'이라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고 ㄷ은 '소리가 없이'라는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오답 해설 | ① ㄴ은 서술어 '되다' 앞에 보어 '대학생이'를 가진 홑문장이다. ② ㄴ은 주어, 보어, 서술어를 가지고 있고, ㄷ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ㄴ과 ㄷ 모두 필수 성분만 가지고 있다. ④ ㄴ의 안긴문장인 명사절에는 목적어가 없다. ⑤ ㄴ의 안긴문장은 명사형 전성 어미 '-음'과 결합하였고, ㄷ의 안긴문장은 부사형 전성 어미 '-이'와 결합하였다.

27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부정 표현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ㄱ은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차이를, ㄴ은 단순 부정의 예를, ㄷ은 명령형의 부정 표현을, ㄹ은 부정어와 부사의 호응을, ㅁ은 짧은 부정문의 제약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해설 | '그 아이는 학생답다.'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는 학생답지 않다.' 또는 '그 아이는 학생답지 못하다.'처럼 긴 부정문으로 표현해야 한다.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인 경우 짧은 부정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ㅁ은 짧은 부정문의 제약을 알 수 있는 예문이지 '안'과 '못'의 사용과는 상관 없다. 형용사를 부정할 때 '못'을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안 좋다'의 예처럼 '안'은 사용의 제약이 덜하다.

오답 해설 | ① ㄱ의 '안 했다'는 의지 부정으로 '안'을 사용하고, '못 했다'는 능력 부정으로 '못'을 사용한다. ② ㄴ은 의지 부정도 아니고 능력 부정도 아닌 상황인데, 두 부정 표현이 모두 어울린다. ③ ㄷ에 '않아라'와 '못해라'가 결합되면 비문이 된다. '말다'의 활용형만이 이 문장을 제대로 된 명령문으로 만들 수 있다. ④ ㄹ의 '결코'라는 부사는 뒤에 부정 표현이 동반되어야 호응을 이루는 부정어이다.

blacklabel 특강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의 제약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짧은 부정문은 서술어가 하나이지만 긴 부정문은 서술어가 둘이다. 따라서 서술어가 하나인 짧은 부정문에는 '-(으)사-'가 한 번만 결합하지만, 긴 부정문에는 '-(으)사-'가 두 번 결합한다.

둘째는 짧은 부정문은 긴 부정문에 비해 제약이 심하다. 동사나 형용사 중에는 짧은 부정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특히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인 경우에는 짧은 부정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파생어나 합성어가 가지는 이러한 제약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부정문에서는 '못'이나 '안'이 뒤에 오는 서술어와 결합하여 관용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못생기다', '못살다', '안되다'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합성어로 인정되어 사전에 표제어로 오르기도 한다.

28

정답 ①

보기 분석 | <보기>는 우리말 중의성의 유형과 그 예를 제시한 것이다. '아버지는 어젯밤에 삼촌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말했다.'와 '호영은 인철보다 농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예약한 손님들이 예약 시간에 다 입장하지 않았다.'는 문장 구조적 원인에 의한 중의성이다. 한편, '여동생은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있다.'는 동사인 '입다'의 의미적 특징 때문에 생긴 중의성이므로 어휘적 중의성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내게 사과와 참외 두 개를 주셨다.'는 수량 표현에 의한 중의성이다.

정답 해설 | '아버지는 어젯밤에 삼촌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말했다.'는 말한 시점이 어젯밤인 것인지, 삼촌이 올라온 때가 밤이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두 의미 중 '돌아온 사실을 말할 시점이 어젯밤'이라는 뜻으로만 해석되려면 '아버지는 삼촌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어젯밤에 말했다.'로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은 삼촌이 올라온 때가 어젯밤이라는 의미로 고친 것이다.

오답 해설 | ② '호영은 인철보다 농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는 호영과 인철 중 농구 경기를 좋아하는 정도와, 인철과 농구 경기 중 호영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중의성을 지닌다. 후자로 해석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호영은 인철을 좋아하는 것보다 농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로 고쳐진 된다.

③ '예약한 손님들이 예약 시간에 다 입장하지 않았다.'는 입장하지 않은 주체의 범위가 '모두'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 의미적 중의성을 지닌 문장이다.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바꾸면 '예약 손님들이 예약 시간에 다는 입장하지 않았다.'로 고쳐진 된다.

④ '여동생은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있다.'는 '완료'와 '진행'이라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만들려면 '여동생은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로 표현하면 된다.

⑤ '엄마는 내게 사과와 참외 두 개를 주셨다.'는 사과와 참외 각각 두 개씩 주신 것인지, 사과와 참외를 합해서 두 개를 주신 것인지 모호하다. 따라서 받은 개수가 네 개라는 뜻으로 고치면 '엄마는 내게 사과 두 개와 참외 두 개를 주셨다.'가 되며 문장의 중의성은 사라진다.

29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통사적 차이를 보이는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는 앞뒤 절의 위치 이동 여부, '다'는 보조사의 결합 여부, '라'는 재귀칭 대명사의 사용 여부, '마'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통사적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정답 해설 |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의 앞 절인 '인생을 짧고'는 뒤 절 속으로 이동할 수 없는 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꽃이, 봄이 오면 핀다.'처럼 앞 절이 뒤 절로 자유롭게 이동한다. 따라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없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의 자리를 바꾸면 바꾸기 전의 문장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처럼 주제의 보조사 ‘은/는’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봄은 오면 꽃이 핀다.’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보조사 ‘은/는’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 ④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자기 동생(철수 동생)은 열심히 일했고 철수는 놀기만 했다.’처럼 뒤 절의 주어를 앞 절에서 재귀칭 대명사로 나타낼 수 없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자기 동생이 열심히 일해서 철수는 기분이 좋았다.’처럼 가능하다.
- ⑤ ‘엄마가 왔고, 나는 그제야 안심했다.’는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만 시간적인 선후 관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그 의미가 바뀐다. 따라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통사적 차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0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는 높임법을 사용하는 문장들을 보여 주고 있다. ㄱ에서 높임의 대상은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문장 주제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조사 ‘께’와 어휘 ‘여쭙다’를 통해서 객체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ㄴ에서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로 조사 ‘께’와 어휘 ‘드리다’를 통한 객체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ㄷ에서 높임의 대상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어휘 ‘모시다’를 통해 객체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고 ‘뵙다’를 통해 객체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정답 해설 | ㄱ에는 주제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ㄷ에는 객체 높임 표현만 사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ㄱ에서는 조사 ‘께’와 어휘 ‘여쭙다’로 객체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ㄴ에서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로 조사 ‘께’와 어휘 ‘드리다’를 통한 객체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ㄷ에서 어휘 ‘모시다’를 통해 객체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고 ‘뵙다’를 통해 객체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객체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주제 높임의 대상이고 ‘아버지’는 객체 높임의 대상이다.
- ④ ‘할머니’는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으로 조사 ‘께’와 어휘 ‘드리다’를 통한 객체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 ⑤ 어휘 ‘모시다’를 통해 객체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고 ‘뵙다’를 통해 객체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31

정답 ①

보기 분석 | <보기>는 관형절에 관한 설명으로 ㉠은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성분이 빠져 있는 관계 관형절을 말한다.

정답 해설 | 관형절 ‘공부를 할’에는 생략되어 있는 문장 성분이 없다.

오답 해설 | ② 관형절 ‘아이들이 공을 찬’에서 부사어의 대상인 ‘주말’이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명사를 넣어 온전한 문장으로 복원하면 ‘아이들이 주말에 공을 찼다.’가 된다.

③ 관형절 ‘동생이 나에게 준’에서 목적어의 대상인 ‘편지’가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명사를 넣어 온전한 문장으로 복원하면 ‘동생이 나에게 편지를 주었다.’가 된다.

④ 관형절 ‘어제 결혼한’에서 주어의 대상인 ‘그들’이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명사를 넣어 온전한 문장으로 복원하면 ‘어제 그들이 결혼했다.’가 된다.

⑤ 관형절 ‘어제 친구가 부탁한’에서 목적어의 대상인 ‘일’이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명사를 넣어 온전한 문장으로 복원하면 ‘어제 친구가 일을 부탁했다.’가 된다.

문장 4					
STEP	A	1등급 도전문제			
32 ④	33 ④	34 ⑤	35 ④	36 ②	37 ③
38 ④	39 ⑤	40 ④	41 ③	42 ③	

32

정답 ④

정답 해설 |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여기서 대마도까지 보인다.’의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 중의적 표현이다. 즉 ‘오늘같이’가 ‘흐리지’를 꾸미느냐, ‘흐리지 않은’을 꾸미느냐에 따라 ‘오늘이 흐리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오늘이 흐리지 않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부정 표현을 삭제해서 ‘오늘같이 맑은 날’ 정도로 고쳐야 한다. 단순히 보조사 ‘만’의 추가로는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쁘다.’는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뤄지지 않은 문장이므로 ‘여간 기쁘지 않았다.’로 수정해야 한다.

② ‘삼촌은 주중에는 자동차를, 주말에는 걷기를 한다.’는 ‘자동차를’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생략된 것이므로 ‘자동차를 타고’로 서술어 하나를 추가해야 한다.

③ ‘앞일을 미리 예상하는 태도가 현명한 삶의 자세다.’에서 ‘미리’는 ‘예상하는’과 중복되므로 ‘미리’를 생략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그 사건은 미국에 빠져 풀려지지 않는다.’는 ‘풀려지지’로 이중 피동이 사용되었으므로 ‘풀어지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33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 1>은 동사 ‘시키다’와 접미사 ‘시키다’의 사전 정보이며, <보기 2>는 이들을 활용한 문장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동사 ‘시키다’와 접미사 ‘시키다’는 모두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문장에서 활용할 때 유의해서 써야 한다.

정답 해설 | ㄴ의 ‘기계를 하루 종일 가동시켜야만’에서 ‘가동’은 ‘기계 따위를 움직이게 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가동시키다’를 쓰면 ‘기계를 움직이는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담당자에게 공장의 기계를 가동시켰다.’와 같은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의미가 나타나지만 ㄴ과 같은 경우에는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가동해야만’으로 고쳐야 한다.

ㄷ의 ‘안전 교육을 시켰다’에서 ‘교육’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행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도록 어떤 이에게 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ㄷ의 경우 문맥상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이므로 ‘안전 교육을 했다’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ㄹ의 ‘작품들은 ~ 아픔을 부각시키고 있는’은 ‘시키다’의 의미를 고려하면 ‘작품이 아픔을 부각하도록 누군가에게 시키는 일’이라는 의미가 되어 버린다. 이에 ‘아픔을 부각하고 있는’으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오답 해설 | ㄱ에서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6시까지 받는 일을 하도록 ‘팀장’이 ‘팀원’들에게 지시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시키다’를 쓰고 있다. 이는 ‘시키다’를 올바르게 활용한 문장이다.

ㄴ의 ‘회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은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문맥상 ‘회장이 만족하도록 하는 것’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시키다’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blacklabel 특강_과잉 사동 표현

사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사동 표현을 덧붙여 사용하는 현상을 '과잉 사동'이라 한다. 과잉 사동 현상은 대체로 문장의 주체(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문장에서 사동 표현을 쓰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저희 가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을 보자. '소개하다'는 '서로 모르는 두 대상을 알고 지내도록 관계를 맺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개시키다'로 쓰면 '여러분'과 '저희 가족들'이 서로 알고 지낼 수 있게 '나'가 제3자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희 가족들' 사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문장이 되어 버린다.

하지만 이를 문장의 의미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과잉 사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키다'를 '~하게 하다'로 바꾸어 보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바꾸었을 때 문장이 무리 없이 성립하면 '-시키다'를 써도 되는 것이고, 어색하면 쓰지 않으면 된다.

일상에서 '시키다'에 관한 과잉 사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시키다'를 사동의 의미가 아닌 피동과 사동의 의미를 섞어서 쓰고 있기에 그러하다. 일상의 표현을 관찰해 보면 '시키다'를 '-되게 하다, 되도록 하다'의 의미로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나 좀 소개해 줘.'와 '나 좀 소개시켜줘.'라는 문장을 예로 들었을 때, 앞 문장은 듣는 사람이 자신을 제3의 인물과 알도록 직접 소개해 달라는 의미라면 뒤 문장은 듣는 사람이 자신을 제3의 인물과 알도록 다리를 놓아 달라(직접은 아닐지라도)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34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겹문장의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ㄱ의 안긴문장은 명사절인 '바람이 불기'이고, ㄴ은 관형절인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이다. ㄷ은 '바람이 부는 계절에 나들이를 하기'가 안겨 있는데 이 문장 안에도 관형절 '바람이 부는'이 안겨 있다. ㄹ의 안긴문장은 관형절인 '바람이 불'이며 ㅁ은 명사절인 '바람이 불기'이다.

정답 해설 | ㄴ에서 안긴문장 '바람이 불'은 안은문장의 관형어로 역할을 하고 있는 관형절이다. ㅁ에서 안긴문장 '바람이 불기'는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다.

오답 해설 | ① ㄱ의 안긴문장 '바람이 불기'는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ㄹ의 안긴문장 '바람이 불기'는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② ㄴ에서 안은문장의 주어 '바람'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이라는 관형절의 꾸밈을 받고 있고, ㅁ에서 안은문장의 주어는 '이 기후 조건'으로 다른 안긴문장의 꾸밈을 받지 않는다.

③ ㄴ의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복권을 산다'이며, ㄹ의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면 '바람이 불다.'이다. 즉 ㄴ과 ㄹ은 동격 관형절로 두 안긴문장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④ ㅁ에서 목적어로서 안긴 문장은 '바람이 부는 계절에 나들이를 하기'이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다시 관형어로서 기능하는 안긴문장인 '바람이 부는'을 안고 있다. 반면에 ㄴ에서 안긴문장은 관형절인 '바람이 불' 하나밖에 없다.

35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에는 홀문장과, 안은문장에 여러 개의 안긴문장이 들어간 겹문장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 해설 | ㄴ에서 안긴문장은 '민수가 마르고 발이 작다'는'이고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만들어졌다. 우선 홀문장인 '민수가 마른다.'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인 '민수가 발이 작다.'를 대등적으로 연결하여 '민수가 마르고 발이 작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이 문장을 관형절로 만든 것이다. 즉 명사절을 안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전체 문장의 주어는 '민수는'이다.

②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서술절 '발이 작다'이다.

③ 전체 문장의 주어는 '나는'이고 서술어는 '알고 있었다'이다.

⑤ 안긴문장인 '민수가 마른다.'와 '민수가 발이 작다.'는 대등적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36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 1>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가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해설 | ㄴ의 관형사형 어미 '-ㄴ'은 형용사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거나 동사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인데 '훼손되다'가 동사이므로 동사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ㄴ'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떡다'가 동사이므로 '떡은'의 '-은'은 동사의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임을 알 수 있다. '뽕얕다'는 형용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 '-ㄴ'은 형용사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ㄴ'임을 알 수 있다.

③ '모범적인'의 관형사형 어미 '-ㄴ'은 서술격 조사 '이다'의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 '개근하다'가 동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

④ '자다'가 동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의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다. '좋아하다' 역시 동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 '-ㄴ'은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

⑤ '치다'가 동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 '-ㄴ'은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다. '쫓다' 역시 동사이므로 '-는'은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

37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화자의 현재 관점으로 기술되므로 지시 표현, 대명사, 인용절 속의 어미, 높임 표현 등이 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답 해설 | "내일 제 집에 계세요."라는 말은 어제 딸이 한 말이다. 그러나 이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오늘 부모의 관점에서 기술된다. 그러므로 '내일'은 '오늘'로 바뀌고, '제 집'은 재귀의 형태인 '자기 집'으로 바뀐다. 높임 표현인 '계세요' 역시 '있다'의 명령형으로 바뀐다.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도 간접 인용이므로 '고'로 바뀐다. 그러므로 "딸이 어제 저에게 오늘 자기 집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로 바뀌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간접 인용절의 '내일'이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제 집'은 '자기 집'으로 바뀌어야 한다. '계시라고'는 '있으라고'로 바뀌어야 한다.

② 간접 인용절의 '내일'은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제 집'은 '자기 집'으로 바뀌어야 한다.

④ 직접 인용절의 말만 바뀌기 때문에 안은문장의 '어제'는 '오늘'로 바뀌지 않는다. 간접 인용절의 '내일'은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계시라고'는 '있으라고'로 바뀌어야 한다.

⑤ 직접 인용절의 '내일'은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직접 인용절에 속하지 않는 '어제'는 바뀌지 않는다.

blacklabel 특강_인용절을 안은 문장에서의 상대 높임법

인용절을 안은 문장에서 직접 인용절이 간접 인용절로 바뀔 경우 상대 높임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평서문은 간접 인용절에서는 모두 '-다고'로 통합되어 표현된다. 의문문은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 '-(느)냐고'로 통합되어 표현된다. 명령문은 '-(으)라고', 청유문은 '-자고'로 통합되어 표현된다.

38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 1>은 사동사가 만드는 사동문의 두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형용사문, 자동사문이 사동문이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타동사문이 사동문이 되는 경우이다. <보기 2>는 다양한 사동문의 예이다. 이 예를 주동문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ㄱ. 아기가 신발을 신었다.

ㄴ. 길이 넓었다.

ㄷ. 사람들이 소식을 알았다.

ㄹ. 아기가 잔다.

ㄱ. 나는 그녀의 보석 반지를 보았다.

정답 해설 | ㄴ은 '길이 넓었다.'라는 형용사문이 '인부들이 길을 넓혔다.'라는 사동문으로 바뀐 것이다. ㄷ은 '아기가 잔다.'라는 자동사문이 '엄마가 아기를 재웠다'라는 사동문으로 바뀐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문이다.

39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명사절 또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은 '-(으)ㄴ' 명사절, ㉡은 '-기' 명사절, ㉢은 관계 관형절 ㉣은 동격 관형절이다.

정답 해설 | ㉢은 동격 관형절이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즉, '우리가 돌아왔다' = '사실'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오답 해설 | ㉠ ㉡은 '실내가 더 춥다.'에 '-ㄴ'이 결합된 명사절이고, ㉣은 '잠을 자다.'에 '-기'가 결합된 명사절이다.

② ㉠은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였고, ㉡은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③ ㉢과 ㉣의 주어는 각각 '동생이'와 '우리가'로 안은문장의 주어인 '배가 고픈 호경'과 '상황 파악을 못한 그'와 다르다.

④ ㉣이 꾸며 주는 피수식어는 '땀'으로, '땀'은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에 공통적으로 목적어로 쓰인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관형절에서 생략되어 나타났다.

40

정답 ④

정답 해설 | '예쁜 얼굴이 그동안 많이 상했다.'에서 '예쁜'은 '예쁘다'에 '-ㄴ'이 결합하여 '얼굴'을 꾸미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ㄴ'이 결합하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므로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선어말 어미 '-았-'을 통해 과거 시제를 표현하였다.

② 선어말 어미 '을' 겹쳐 쓴 '-았았-'을 통해 대과거를 표현하였다.

③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 회상 시제를 표현하였다.

⑤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다.

41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 1>은 능동사 어근에 피동의 접미사가 결합하여 피동사를 이룰 때 음소의 변동을 동반하거나 불규칙 동사의 활용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기 2>의 ㄱ~ㄴ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들을 보여 주고 있다. ㄱ은 동사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고, ㄴ은 동사 '감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이다. 또 ㄷ은 동사 '굽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며, ㄹ은 동사 '들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것이다.

정답 해설 | ㄱ은 동사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피동사 '쓰이다'가 되는데 이것이 음절 축약되어 '썩다'가 되었다. ㄹ은 동사 '들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피동사 '들리다'가 되는데 ㄷ 불규칙의 활용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42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 1>은 주어와 목적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주어는 일반적으로 주격 조사 '이/가'와 결합하는데, '이/가'는 주격 조사가 아닌 보조사로 쓰일 때가 있으며, '이/가' 외에 '에서' 등도 주격 조사의 일종으로 쓰인다. 목적어도 주어와 마찬가지로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지만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도 목적격 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면 목적어로 봐야 한다. 더불어 목적격 조사가 결합을 했다하더라도 그 단어가 문장에서 반드시 목적어로 쓰이는 것도 아니다. 즉 '이/가'나 '을/를'이 보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정답 해설 | '궤도에서'의 조사 '에서'는 앞말이 어떤 일의 출발점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이탈하다'는 부사어 '~에서'나 목적어 '~을'을 필수 성분으로 가지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해설 | ① ㄱ의 주어는 '사람은', ㄴ의 주어는 '너는', ㄷ의 주어는 '그 여자는', ㄹ의 주어는 '나는'이다. 모두 보조사 '은/는'이 주격 조사의 자리에 쓰였다. 반면에 ㄴ의 주어는 '문제가', ㄷ의 주어는 '아이가', ㄹ의 주어는 '우주선이'로 모두 주격 조사 '이/가'를 통해 주어로 표시되고 있다.

② ㄱ의 목적어는 '사회를', ㄷ의 목적어는 '채소를', ㄹ의 목적어는 '위문품을'로, 모두 목적격 조사 '을/를'을 통해 목적어로 표시되고 있다. 반면에 ㄴ의 목적어 '내 말은', ㄹ의 목적어 '천지가'에는 목적격 조사 대신 각각 보조사 '은'과 '가'가 쓰였다.

④ ㄱ에서 보조사 '가'는 부사 '원래' 뒤에 결합하고, ㄴ에서 보조사 '가'는 본용언 '쉽지' 뒤에 결합하며, ㄹ에서 보조사 '가'는 체언 '천지' 뒤에 결합하고 있다. 이때 보조사 '가'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고 문법적으로도 어긋남이 없다.

⑤ ㄴ에서 보조사 '를'은 본용언 '먹지' 뒤에, ㄹ에서 보조사 '를'은 부사격 조사 '에' 뒤에, ㄷ에서 보조사 '를'은 부사 '곧이' 뒤에 결합하고 있다. 보조사 '를'은 '먹다'와 같은 타동사와도 결합이 가능하지만, 보조사 '가'는 자동사나 형용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black label 특강 보조사로 쓰이는 '가'와 '를'

보조사 '가'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또는 연결 어미 '-지'나 '-고' 앞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없는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 연결 어미 '-지' 뒤에 오는 '가'는 '를'이나 '로'로 바뀔 수 있으며,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이때 보조사 '가' 앞의 서술어는 반드시 자동사 혹은 형용사이여야 한다.

보조사 '를'은 조사 '에, 으로,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받침 없는 일부 부사 뒤에 붙어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 이때 부정문에서 쓰이는 '를'은 그것이 결합하는 서술어가 자동사이건 타동사이건 상관없이 쓰일 수 있다.

01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우리말 문장 기본 문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언어는 무수히 많은 문장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 문장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를 분석하면 몇 개의 유형으로 묶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묶어 낸 유형의 문장을 기본 문형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해당 언어의 문장 규칙을 가장 간명한 형태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문장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의 기본 문형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는 서술어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ㄱ	형용사가 서술어로 기능하여 '주어+서술어'의 형태를 띄는 형용사문
ㄴ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 동사를 서술어로 가져 '주어+서술어'의 형태를 띄는 자동사문
ㄷ	체언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형식
ㄹ	동사를 서술어로 가지되 목적어가 필요하여 '주어+목적어+서술어'의 형태를 띄는 타동사문
ㅁ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로 와서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문장 성분인 보어를 요구하여 '주어+보어+서술어'의 형식을 지니는 문장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우리말의 문장도 이 5가지 기본 문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본 문형을 분석할 경우 문장의 서술어를 찾고 그것이 어떤 주어와 호응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정답 해설 | 예문은 다음 단계에 따라 문장을 분석할 수 있다.

- 나는 (A) 생각을 하였다.
- (A) = 그 사람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 + (B)
- (B) = 그 사람의 얼굴이 바람처럼 지나간다.

(A)는 '생각'을 수식하며, (B)는 '그 사람의 얼굴'을 수식하는 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은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문으로 ㄹ에 해당하며 2)는 '낯설다'가 형용사이므로 ㄱ에 해당한다. 3)은 '지나가다'가 자동사이므로 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문은 ㄱ, ㄴ, ㄷ의 문형이 조합되어 이루어진 문장이다.

blacklabel 특강 기본 문형과 문장 성분

우리말 문장의 기본 문형 구성에 필요한 문장 성분을 '필수 성분'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성분을 '부속 성분'이라고 한다. 목적어와 보어는 각각 특정한 서술어에서만 요구되지만 그것이 우리말의 기본 문형에 포함되기에 필수 성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제시된 우리말 기본 문형이 국어의 모든 문장 형태를 완전히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의 사례가 바로 그 예이다.

예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

부사어는 통상 일반적인 문장 구성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부속 성분이다. 하지만 예문의 서술어로 쓰인 '닮다'는 주어 외에 부사어를 필수로 요구하기에 부사어가 생략될 경우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른다.

02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 1>은 우리말 주어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주어는 문장의 서술어가 동사일 경우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주체를,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 또는 성질의 대상을 의미한다. 또한 주어는 문장에서 대체로 주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쓰이는데 우리말에서 주격 조사는 '이/가' 외에도 높임의 대상에 쓰이는 '께서', 기관이나 단체에 쓰이는 '에서'가 있고, '혼자, 둘이'와 같이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는 '서' 등이 있다. 그리고 주어는 필수 성분이지만 문맥에 따라 독자나 청자가 주어를 명확히 추론할 수 있는 경우 생략이 되기도 하며 단어가 아닌 구나 절이 하나의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문장에서 주어는 하나이지만 서술절

을 안은 문장에서처럼 주어가 두 개 이상 연달아 나열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정답 해설 | ③ '아버지는 숨씨가 좋으셔서'에서 '아버지는'은 안은문장의 주어이며 '숨씨가 좋으시다'라는 절이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때 '숨씨가'는 서술절의 주어로 '아버지는 숨씨가'와 같이 각 서술어의 주어가 연달아 나열되고 있다.

② '내 마음에는 구멍이 하나 났다.'에서 '내 마음에는'은 안은문장의 부사어이며 '구멍이'는 안은문장의 주어이다. 이 문장에서는 '하나(가) 났다'라는 절이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하는데, 이때 '하나'는 서술절의 주어로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이에 '구멍이 하나'와 같이 주어가 연달아 나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① '날이'는 주어로 '흐리다'라는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④ '만 원이'는 서술어 '되는'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보어이지 주어가 아니다.

② ④ '뭇 할까 고민을 하다가 미술관에 가기로 했다.'에서는 주어를 찾을 수 없다. 이 글이 화자인 '나'의 독백 성격을 띠고 있기에 주어를 생략하더라도 주어가 누구인지 쉽게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에서는 '혼자서'가 문장의 주어로 나타나 있다.

③ ⑤ '미술관에서'는 서술어 '연다'의 주어로 '미술관'이 기관이기에 주격 조사 '에서'가 쓰인 것이다. 하지만 ⑥ '대표소에서'는 '표를 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부사격 조사 '에서'가 쓰인 것이다.

④ ② '입춘이 지난 지'는 관형절 '입춘이 지난'이 의존 명사 '지'를 꾸며 주는 구성으로 이 전체를 하나의 주어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⑤ '꽃이 피지'에서 '피지'는 서술어의 일부로 쓰인 본용언에 보조사 '가'가 붙은 형식일 뿐 주어가 아니다. 여기서 주어는 '꽃이'만 해당된다.

03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 1>은 부사어의 기능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라는 점과 문장에서 수의적 성분으로 쓰이는 부속 성분이라는 점에서 부사어는 관형어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 두 성분은 수식 대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반면 부사어는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그리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명사나 관형사를 꾸며 주기도 한다.

부사어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어절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유형이 다양하다. 품사로서 부사 외에도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구,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은 부사절, 관형절과 명사가 결합한 구성 등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

정답 해설 | '카페에서'의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카페에서'는 '나'와 '그'가 시간을 보낸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어이다. '이야기를 끝냈을 때'는 '때'라는 명사를 관형절 '이야기를 끝냈을'이 수식하는 구성으로 이 자체가 문장 '이미 날이 어두웠다'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기능한다. 이 두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의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 ① '어제'와 '아주'는 모두 부사이지만 용언 '본'을 꾸미는 '어제'와 달리 '아주'는 체언 '미남'을 꾸미고 있다.

② '인상이 선한 편'은 '관형절+명사' 구성은 맞지만, 부사어가 아니라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야기부터'의 '부터'는 보조사이다.

③ '가볍게'는 형용사 어간 '가볍-'과 부사형 어미 '-게'의 결합으로 볼 수 있지만 '아프게'는 형용사 어간 '아프-'에 보조적 연결 어미 '-게'가 붙은 것이다. '-게 하다'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보조 용언은 '사동'의 의미를 덧붙여 주는 것으로 '아프게 하다'는 이 자체가 하나의 서술어를 이룬다.

⑤ '이미'는 'ㄱ'에 해당하기는 하나 필수적 부사어는 아니다. '끝나지'는 동사 어간 '끝나-'에 보조적 연결 어미 '-지'가 붙은 것이다. '-지 않다'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보조 용언은 '부정'의 의미를 덧붙여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하나의 서술어를 이룬다.

보기 분석 | <보기>는 동사 ‘들다’의 여러 의미와 그에 따른 쓰임을 탐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문이다. ㄱ~ㅅ에 쓰인 ‘들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ㄱ. 꽃은 해가 잘 드는 데 심어야 한다.
→ ‘~에(또는 으로) 들다’의 형태로 쓰여 ‘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옴.’을 뜻한다.
- ㄴ. 그 일에는 공이 많이 든다.
→ ‘~에 들다’의 형태로 쓰여 ‘어떤 일에 시간이나 노력, 물자 따위가 쓰임.’을 뜻한다.
- ㄷ.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당에 들었다.
→ ‘~에(또는 을) 들다’의 형태로 쓰여 ‘어떤 조직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됨.’을 뜻한다.
- ㄹ. 추위 탓인지 아이가 감기가 들어 병원에 다니고 있어.
→ ‘~이/가 들다’의 형태로 쓰여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김.’을 뜻한다.
- ㅁ. 춘향이는 변사포의 수청을 드는 것을 거부했다.
→ ‘~을 들다’의 형태로 쓰여 ‘남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함.’을 뜻한다.
- ㅂ.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세를 든 지 3년 만에 결혼을 한다.
→ ‘~에 ~을 들다’의 형태로 쓰여 ‘돈을 내고 셋집을 얻어 삶.’을 뜻한다.
- ㅅ. 우리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연극반에 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 ‘~에 ~을 들다’의 형태로 쓰여 ‘어떤 조직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됨.’을 뜻한다.

정답 해설 | ㄱ. ㄴ의 의미로 쓰일 때 ‘들다’ 앞에는 ‘~에’ 또는 ‘~으로’의 형태를 갖는 부사어가 와야 하는데, 이때의 부사어는 서술어의 의미 특성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부사어이다.

ㄱ은 ‘꽃은 (이러한) 데에 심어야 한다.’의 문장에 관형절 ‘그곳에 해가 잘 든다.’가 안겨 있는 문장으로 관형절의 서술어 ‘든다’는 ‘그곳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ㄴ의 주어는 ‘공이’이며 서술어는 ‘든다’, 부사어는 ‘그 일에는’과 ‘많이’이다. 이때 ‘그 일에는’은 ‘그 일’에 보조사 ‘는’이 결합된 것으로 필수 부사어이다. ‘많이’는 수의적 부사어이다.

오답 해설 | ㉔에서 ‘아이가 감기가 들어’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이때 ‘들어’는 서술절의 서술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ㄴ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 아닌 홀문장으로 ‘그 일에는’은 부사어이다.

③ ㄷ과 같은 의미로 쓰일 때 ‘들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ㅁ의 의미로 쓰일 때 ‘들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내포된 의미는 다르지만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서술어의 자릿수)는 같다.

④ ㄷ, ㅅ은 각기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와 목적어를 취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일하다. 우리말의 일부 동사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다’이다. 예) 나는 {학교에/학교를} 간다.

⑤ ㅁ은 주어, 목적어만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ㅂ은 주어, 목적어 외에도 ‘집에’라는 부사어를 필수로 요구한다. 따라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보기 분석 | <보기>에는 국어의 높임 표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말의 높임 표현의 종류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의 3가지가 있고 높임의 실현 방법으로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는 방식, 종결 어미를 활용하는 방식, 일반 어휘에 대응하는 높임의 특수 어휘를 쓰는 방식, 조사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말 높임 표현의 종류와 실현 방법은 비교적 간명한 듯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높임 표현이 쓰이는 방식은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상황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예문 ㄱ~ㅁ은 바로 그 예시들이다.

정답 해설 | ㄱ의 ‘삼촌이 진지 드시러 나오시래요.’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시래요’는 ‘~시라고 해요’의 준말로 ‘삼촌이 ~라고 해요.’라는 문장에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시러 나오시다.’가 안겨 있다. 이에 화자에게 높임의 대상은 청자와 인용절의 주어인 ‘할머니’와 인용절을 안은 문장의 주체인 ‘삼촌’이다. 하

지만 가족 관계의 지위상 ‘삼촌’은 ‘할머니’가 청자인 상황에서 높임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ㄱ에서는 청자인 ‘할머니’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과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그 실현 방법으로 ‘진지’와 같은 특수 어휘와 ‘드시러’와 같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요’와 같은 높임의 보조사가 종결 표현 뒤에 붙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따라서 ‘진지’와 ‘드시러’는 삼촌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㉔ ㄴ의 ‘-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ㅂ니다’는 상대(청자)를 높이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된 ‘손님께서’이며 청자 역시 ‘손님’이다. 이에 ‘-시-’와 ‘-ㅂ니다’를 통해 화자가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동일하다.

③ ‘-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ㄷ의 ‘오시느라’와 ‘피곤하셨을 텐데’에서의 ‘-시-’가 높이고자 하는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청자와 동일한 대상이다. ‘하십니다’의 ‘-시-’ 역시 높이고자 하는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화자에게 말을 전하라 지시를 내린 상위자이다.

④ ㄹ의 ‘말씀드리면’의 ‘말씀’은 문장의 주체인 ‘너’의 ‘말’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맥상 ‘너’보다 상위자인 ‘선생님’ 앞에서 ‘너’의 ‘말’을 높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말씀’은 높임의 용법과 낮춤의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높임의 대상 앞에서 주체의 말을 낮추어 높임의 대상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⑤ ㅁ의 ‘드리시면’은 ‘주다’의 특수 어휘 ‘드리다’에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된 구성이다. ‘드리다’의 경우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시-’는 주체인 ‘청자’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기 분석 | <보기 2>의 ㉑은 동작주의 의지가 작용하여 어떠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의도 부정문을 의미한다. ㉒은 ‘부정 표현과 주로 어울리는 부사어’를 포함한 부정문을 의미한다. 부정 표현과 어울리는 부사어로는 ‘절대, 도무지’ 등이 있다. ㉓에서 ‘대상이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부정’은 ‘만족하다, 크다’ 등과 같은 형용사를 부정할 경우 나타나는 부정을 의미한다. 이는 ‘못’ 부정문에서 나타난다. ㉔은 형용사를 서술어로 가진 문장이 ‘안’ 부정문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는 짧은 부정문이 아닌 긴 부정문으로 나타난다. ㉕은 부사 ‘못’을 활용한 ‘못’ 부정문을 의미한다.

정답 해설 | ㉑에서 말하고 있는 부사어에 의한 부정 표현은 <보기 1>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그는 나를 안 믿으려고 한 것 같아.’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려고’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㉑의 설명과 부합한다.

③ ‘나는 정말 내 작품에 만족하지 못했었다고’는 형용사 ‘만족하다’에 ‘못’ 부정문이 결합한 것으로 ㉑의 설명과 부합한다.

④ ‘남의 말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은 형용사 ‘쉽다’에 부정의 보조 용언 ‘-지 않다’가 붙어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㉑의 설명과 부합한다.

⑤ ‘그나저나 왜 그 사람은 내 말을 못 믿는 걸까.’는 부사 ‘못’을 활용한 능력 부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㉑의 설명과 부합한다.

07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 1>은 국어의 문장 유형에 대한 설명이고, <보기 2>는 실제 사례들이 제시된 것이다. <보기 2>의 ㄱ ‘고기잡이배가 먼 바다에 나갔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바다’를 수식하는 관형어 ‘먼’은 ‘(바다가) 멀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붙어 형성된 관형절이다. ㄴ ‘그는 책상 위에 책을 놓아 두었다.’는 홑문장이다. ‘놓아 두었다’는 본용언 ‘놓다’에 보조 용언 ‘두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하여 형성된 하나의 서술어이다. ㄷ ‘그녀는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무엇)을 시작했다’는 문장의 ‘무엇’ 자리에 ‘그녀는 내리막길을 달렸다.’는 문장이 안겨 있는 구성이다. 이때 안긴문장은 명사절로 ‘달렸다’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된 구성이다. 안겨 있는 명사절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ㄹ ‘오늘 매장의 총매출이 100만 원이 조금 안 된다.’는 홑문장이다. ‘100만 원이’는 ‘된다’ 앞에서 ‘이/가’를 취하는 문장 성분으로 보어이지 서술절의 주어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보어+서술어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홑문장이다. ㅁ ‘그는 갓은 양념으로 김치를 담그면서 보쌈용 고기를 삶았다.’는 연결 어미 ‘-면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정답 해설 | ② ‘놓아 두었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구성으로 이 두 용언이 합쳐져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므로 ㄴ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먼’은 ‘멀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붙어 이루어진 관형어이다.

③ ㄷ은 명사절 ‘내리막길을 달리기’를 안은 문장으로 ‘그녀는’은 주어, 명사절 ‘내리막길을 달리기’는 목적어, ‘시작했다’는 서술어이다. 곧 ㄷ에 부사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ㄹ의 ‘100만 원이’는 보어이므로, ㄹ은 홑문장이다.

⑤ ㅁ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선행절은 ‘그는 갓은 양념으로 김치를 담그면서’이다. 이때 ‘갓은’은 관형사로 선행절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08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 1>은 피동과 능동의 정의와 피동문과 능동문의 통사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미 면에서 피동문과 능동문이 진리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두 문장이 담고 있는 명제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피동문과 능동문은 하나의 사태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 뿐 이기에 그 사태 자체의 내용은 동일하다. 통사적 측면에서 피동문이 대응되는 능동문을 가진다는 것은 능동문의 주어가 대체로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능동문의 서술어가 피동 접미사나 피동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과 결합해 피동문의 서술어로 바뀌는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정답 해설 | ㅁ에 해당하는 능동문은 ‘야구공이 유리창을 깨다.’이다. 이때 능동문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성을 취하기에 서술어의 자릿수는 2자리이다. 하지만 피동문의 경우 부사어 ‘야구공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이에 ‘야구공에 유리창이 깨졌다’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1자리이다. 곧, 피동문에서 능동문으로 바뀌면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두 사냥꾼이 여우 네 마리를 잡았다.’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사냥꾼 두 명이 총 네 마리의 여우를 잡은 것인지 각각 네 마리씩 잡은 것인지가 모호하다. 반면 피동문은 사냥꾼 두 명이 총 네 마리를 잡은 의미로만 해석된다. 이처럼 피동문에 수량 표현이 올 경우 능동문이 나타내

는 명제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다.

② ㄴ에 해당하는 능동문은 상정되지 않지만 그 이유가 피동문의 주어가 추상 명사이기 때문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그에 의해 찢어졌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ㄴ에 해당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흐르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진 인위적인 행동이 아닌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위 주체가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상황의 변화에 의존하는 경우 능동문을 만들기 어렵다.

③ ㄷ은 ‘모기가 그녀의 다리를 물었다.’ 혹은 ‘모기가 그녀를 다리를 물었다’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능동문의 문장 성분은 ‘주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 구성이거나 ‘주어+목적어+목적어+서술어’ 구성으로 부사어를 가진 피동문과 구성이 다르다.

④ ㄹ은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운다.’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주어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운다’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능동문은 타동사문이지만 ‘운다’, ‘날다’와 같이 자동사를 가진 문장이 피동문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대응되게 된다.

09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양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태란 문장에서 나타난 사태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이므로, 어미의 통사적 기능보다 문장 내의 의미를 파악하여 어미의 양태적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

정답 해설 | 선어말 어미 ‘-더-’는 흔히 과거 시제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정확한 양태적 의미는 조금 다르다. ‘-더-’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시점에서 떠올리는’, 이른바 ‘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철수가 아침부터 가방을 들고 부리나케 나가더라.’는 그 전형적 사례이다. ‘일기 예보를 보니 내일부터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더라.’에서 ‘-더-’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내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가 일기 예보를 통해 그 사실을 과거에 알게 되었고, 이를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회상’의 양태적 의미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오늘 학교에서 소풍을 가지.’에서의 ‘-지’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양태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하지.’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나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에서의 선어말 어미 ‘-리-’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의미를 지니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해가 뜨리라.’는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④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나부터 먼저 밥 먹을까?’에서 ‘-(으)ㄹ까’는 ‘청자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명수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까?’는 ‘청자의 추측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의미를 드러낸다.

⑤ ‘오늘 오후에 제가 잠깐 댁에 들러도 되겠습니까?’에서의 ‘-겠-’은 ‘청자에 대해 공손함을 표하는 의미’를 지닌다. ‘-겠-’이 빠진 ‘제가 잠깐 댁에 들러도 됩니까?’와 비교해 볼 경우 그 의미가 명확히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겠-’이 쓰인 사례로 ‘처음 뵙겠습니다.’ 정도를 들 수 있다. ‘기차 시간을 따져 보니 지금쯤 영희는 서울역에서 내렸겠다.’는 어떤 사실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 경우는 현재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기에 미래 시제와는 상관이 없다.

10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사동과 주동의 의미, 사동문의 의미적 특성과 주동문과 사동문의 통사적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동은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하도록 시키는 것이기에 ‘일을 시키는 존재’를 사동주, ‘시킴을 당해 실제 일을 하는 존재’를 피사동주라 부른다. 그리고 사동주의 시킴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을 피사동 사건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경우 사동주, 곧 문장의 주어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곧 통사적 측면에서 보면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것은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ㄴ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ㄷ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한다.’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때 ㄴ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직접 입히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엄마가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게 말로 시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자처럼 사동주가 직접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 사동, 후자처럼 사동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시만 하는 것을 간접 사동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은 직접, 간접 사동의 의미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ㄷ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이는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이 가지는 의미 특성에 기인한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로, ㄴ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로 설정할 수 있다. 두 문장 모두 주동문에 비해 사동문에서는 사동주가 새로 설정되어야 하기에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

② ㄱ의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는 의미상 ‘어떤 일을 시키는’ 사동의 의미라고 말하기 힘들다. 피사동주가 무정물인 ‘길’이기 때문이다. 이에 ‘길’에게 어떤 행동을 시킨 것이 아니라 ‘길’의 상태가 변화했다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 특성은 사동문의 피사동주가 무정물인 경우 또는 사동문의 서술어로 형용사가 올 경우 주로 나타난다.

④ ㄹ은 ‘동생이 잔다.’ 정도로 구성할 수 있기에 행위 주체는 ‘동생’이다. 이에 대응하는 사동문의 피사동 사건의 행위 주체, 곧 피사동주 역시 ‘동생’이다.

⑤ ㄹ은 상정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겼다’에서 피사동주는 ‘유산’이다. 이는 무정물로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동문의 피사동주가 주동문의 주어, 곧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특성상 위와 같은 경우는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을 구성할 수 없다.

11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사전에서 문형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 주고 있다. 문형 정보란 주어를 제외한 서술어의 필수적 성분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문형 정보의 분석 방법을 보면, 우선 예문에서 서술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을 분석하고 그 문장 성분 중 필수적 문장 성분만 추출한다. 그런 다음 주어를 생략하여 남은 필수적 문장 성분의 격 조사 또는 어미만 남긴다.

정답 해설 | ‘아이들은 여름방학을 멋지게 지냈다.’와 ‘고향에서 남은 삶을 조용하게 지내고 싶다.’의 서술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어- 아이들은 / • 목적어- 여름방학을, 삶을 / • 관형어- 남은 / • 부사어- 멋지게, 고향에서, 조용하게

여기서 필수적 문장 성분을 추출하면 주어와 목적어만 남고, 문형 정보에서 주어는 생략하므로 밑줄 친 서술어 ‘지내다’의 문형 정보는 [···을]이 된다.

오답 해설 | ① ‘개에게 먹이를 주었다.’와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다.’의 필수적 문장 성분은 부사어인 ‘개에게 아이에게’와 목적어인 ‘먹이를, 용돈을’이다. 따라서 ‘주다’의 문형 정보는 [···에/에게 ···을]이 된다.

② ‘불쌍한 고아를 양자로 삼았다.’와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의 필수적 문장 성분은 목적어인 ‘고아를’, ‘딸을’과 부사어인 ‘양자로’, ‘며느리로’이다. 따라서 ‘삼다’의 문형 정보는 [···을 ···으로]가 된다.

③ ‘책상 다리에서 녹슨 못이 빠졌다.’와 ‘마침내 목구멍에서 가시가 빠졌다.’의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부사어 ‘다리에서’, ‘목구멍에서’이다. 따라서 ‘빠지다’의 문형 정보는 [···에서]이다.

④ ‘나는 철수와 서로 때리면서 싸웠다.’와 ‘그는 견디기 힘든 병마와 싸웠다.’의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은 부사어인 ‘철수와’, ‘병마와’이다. 따라서 ‘싸웠다’의 문형 정보는 [···과]이다.

12

정답 ①

보기 분석 | 〈보기〉의 선생님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관형절의 가장 큰 차이는 관형절의 성립 방식에 있다. 관계 관형절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와 동일한 명사를 가지고 있기에 관형절이 만들어질 때 생략된 문장 성분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푸른 하늘이 예쁘다’라는 문장은 ‘하늘이 푸르다.’와 ‘하늘이 예쁘다.’의 결합인데, 이때 ‘하늘이 푸르다.’에서 ‘하늘이’가 생략되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붙어 관형절로 바뀌는 것이다. 반대로 동격 관형절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일 뿐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를 절 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명사의 생략 없이 관형절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나는 그와 밥을 먹은 기억이 없다.’라는 문장은 ‘나는 그와 밥을 먹었다.’와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의 결합으로 이때 ‘나는 그와 밥을 먹었다.’는 ‘기억’의 내용인 것이다.

정답 해설 | ①은 ‘그가 보고 싶다는’이라는 관형절이 피관형어 ‘생각’과 동격이므로 동격 관형절이다.

오답 해설 | ② 관형절 ‘하마가 물속으로 숨어 버리는’이 피관형어 ‘일’과 동격이므로 동격 관형절이다.

③ 관형절 ‘누군가를 진정하는 사랑하는’이 피관형어 ‘일’과 동격이므로 동격 관형절이다.

④ 관형절 ‘세종 대왕님께서 만드신’의 피관형어 ‘한글’은 안은문장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성분으로, 관계 관형절이다.

⑤ 관형절 ‘수정이가 지은’의 피관형어 ‘노래’가 안은문장과 공통된 성분이므로 관계 관형절이다.

black label 특강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

관형절은 크게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관계 관형절을 삭제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동격 관형절은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 학교에 늦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늦는 일도 있다.

→ *학생들이 일도 있다.

둘째로 관계 관형절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동일 명사가 삭제되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에 동격 관형절은 동일 명사의 삭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셋째로 동격 관형절은 긴 관형절(문장의 종결 어미가 유지되는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문장의 종결 어미가 탈락하는 관형절)로 나눌 수 있다.

예 긴 관형절: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짧은 관형절: 그녀를 만난 기억이 없다.

IV. 국어사

STEP	A	1등급 도전문제	국어사 ①
01 ④	02 ⑤	03 ②	04 ①
07 ⑤	08 ③	09 ⑤	10 ①

01

정답 ④

보기 분석 |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의 제자 원리에 대한 자료다. 초성 자음은 기본자 ‘ㄱ, ㄴ, ㄷ, ㄱ, ㅇ’에 획을 더하는 방법으로 다른 자음들을 만들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중성인 모음은 천지인을 상징하는 ‘ㆍ, ㅡ, ㅣ’를 기본자로 하여 이들을 결합해 초출자가 만들어졌고 초출자와 기본자가 결합해 재출자가 만들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사용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해설 | 자료를 보면 모음의 초출자는 기본자 ‘ㆍ, ㅡ, ㅣ’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모음의 재출자는 초출자에 기본자의 ‘ㆍ’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출자는 기본자 ‘ㆍ’와 초출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진술해야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자음은 초성자 5개(ㄱ, ㄴ, ㄷ, ㄱ, ㅇ)를 기본자로 사용하고 있음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음은 중성자 3개(ㆍ, ㅡ, ㅣ)를 기본자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어금닛소리의 기본자 ‘ㄱ’은 같은 조음 위치의 가획자 ‘ㅋ’과 형태상 유사하다. 혀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의 기본자와 가획자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이처럼 훈민정음에서는 조음 위치가 같은 기본자와 가획자가 형태상 유사성을 띤다.

③ 자료의 초성자를 보면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은 문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체자로, 가획과는 별도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⑤ 훈민정음에서는 종성을 위해 별도의 문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자음의 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여 문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았다.

02

정답 ⑤

보기 분석 | 『훈민정음』 언해는 『훈민정음』 해례의 어제 서문과 예의(例義) 부분을 한글로 쓴 것으로, 한글을 만든 이유와 그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초성은 중성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순경음의 사용 방법과 음가, 합용 병서의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정답 해설 | <보기>에 제시된 중세 국어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초성에 쓰인 어두 자음군은 모두 쌍시옷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된소리로 바뀐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쓰느니라’와 ‘꼴디면’에서 보듯 초성에 합용 병서가 사용되고 있다. ② ‘니셔쓰면’은 현대 국어에서 ‘이어쓰면’으로 풀이되므로 두음 법칙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③ 중세 국어는 이어적기가 많이 사용되는데 <보기>에는 보면 ‘니셔쓰면’과 같은 이어적기 방식과 ‘어울워’와 같은 끊어적기 방식이 모두 나타난다. ④ ‘니셔쓰면’에 쓰인 반치음이나, ‘입시를 가비야본 소리’에 쓰인 순경음 비음 등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문자다.

03

정답 ②

정답 해설 | ㄱ의 ‘ㅁ술’과 ‘ㅁ술’의 첫째 음절 ‘ㅁ’과 ‘ㅁ’는 현대 국어에서 각각 ‘ㅁ’과 ‘가’로 바뀌고, 둘째 음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술’은 현대 국어에서 ‘을’로 바뀐다. 이를 통해 ‘ㅁ술’과 ‘ㅁ술’ 모두 첫째 음절의 ‘ㆍ’는 ‘ㅁ’로 바뀌고, 둘째 음절의 ‘ㆍ’는 ‘ㅡ’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ㄱ에 쓰인 ‘ㆍ’가 현대 국어에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ㄱ을 보면 ‘ㅁ술’과 ‘ㅁ술’의 ‘ㅁ’은 모두 변천 과정 중에 소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ㄴ에서 ‘딛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와 결합하여 ‘더벼’로 바뀐 것을 볼 때, ‘딛다’의 ‘ㅁ’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여 ‘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고바’는 ‘ㅁ’ 뒤에 양성 모음 ‘ㅏ’가 결합하여 현대 국어에서 ‘고와’로 변화했고, ‘구벼’는 ‘ㅁ’ 뒤에 음성 모음 ‘ㅓ’가 결합하여 현대 국어에서 ‘구워’로 변화했다. 그러므로 ‘ㅁ’에 결합되는 어미의 모음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의 표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⑤ 현대 국어 ‘딛다’와 ‘굽다’, ‘굽다’는 활용 과정에서 ‘더워, 고와, 구워’로 활용되므로 모두 ‘ㅁ’ 불규칙 용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04

정답 ①

보기 분석 |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의 다양한 용례를 보여 주고 있다. 관형격 조사는 결합되는 명사의 의미가 사람인가 동물인가, 끝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가 음성 모음인가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 <보기 2>의 ‘아들’은 사람이면서 마지막 음절에 양성 모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기 1>의 첫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술위’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경우이므로 <보기 1>의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여래’는 부처를 달리 이르는 말로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므로 <보기 1>의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①이 적절하다.

05

정답 ④

정답 해설 | 현대어 풀이를 보면 ‘배’는 ‘ㅁ+ㅣ’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현대에도 준말로서 남아 있는 어휘이다. ‘불휘’의 경우만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어린’, ‘여름’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어리석은’, ‘열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라’, ‘하느니’는 현대 국어의 (행위를)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각 음절의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였으나 17세기에 소멸해 현대 국어에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③ ‘ㅎ’, ‘(아래아)’ 등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모두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로 오면서 소실된 음운들이다.

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어적기(연철) 형태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적기는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쓰는 방법을 가리킨다. ㄱ의 ‘뜨들(뜻을)’, ‘노미(놈이)’, ㄴ의 ‘기픈(깊은)’과 ‘벼르매(바람에)’가 이를 뒷받침한다.

06

정답 ④

보기 분석 |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를 한글로 옮겨 놓은 자료이다. 이 번역 작품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정답 해설 | ‘江村(강촌)’을 보면 체언 ‘강촌’에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체언 ‘강촌’의 마지막 음절은 양성 모음인 ‘ㅓ’이다. 그렇기에 조사 역시

양성 모음인 ‘개’가 온 것이다. 이는 중세 국어 시기에 모음 조화 현상이 규칙적으로 지켜진 예다.

- 오답 해설** ① 현대에는 ‘맑은 강’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지만, 중세의 ‘물근 강’에서는 띄어쓰기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모술’의 첫 음절의 아래아는 ‘ㅏ’로, 두 번째 음절은 ‘ㅓ’로 바뀌어 오늘날 ‘마울’로 쓰인다.
 ③ ‘아나’는 ‘안아’를 연철로 표기한 사례이다.
 ⑤ <보기>를 보면 음절의 왼쪽에 방점이 더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정답 ⑤

보기 분석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의 일부이다.

정답 해설 중절은 어간의 받침을 어간에도 쓰고 어미에도 받쳐 표기하는 방법이다. ‘밧드니잇가’를 중절로 표기한다면 어간 ‘밧-’의 받침 ‘ㄷ’을 어간의 종성과 어미 ‘-으니잇가’의 초성으로 겹쳐 표기하여 ‘밧드니잇가’로 적어야 하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에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 ‘ㅆ’과 모음 ‘ㅓ’가 쓰였다.
 ② ‘구드시리이다’의 ‘-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로서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③ ‘하’는 대상을 직접 호칭하여 높이는 조사로서 여기에서는 ‘님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중세 국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현대 국어와 달리 ‘애, 익, 예’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애’는 양성 모음 아래에서, ‘예’는 음성 모음 아래에서, ‘예’는 ‘ㅣ’ 모음 아래에서 사용되었다. ㉡의 ‘낙수’에 조사 ‘예’가 붙은 것에 대해, ‘낙수’는 당시 [낙쉬]와 같이 발음되어 뒤에 부사격 조사로 ‘예’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08

정답 ③

보기 분석 중세 국어에 사용된 의문형 어미에 대한 설명이다. 오늘날과 달리 중세 국어 시기에는 설명 의문문인지 판정 의문문인지에 따라 어미가 달리 사용되었고,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별도의 어미가 사용되었다.

정답 해설 ‘네 모르던가’는 어미로 볼 때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이다. 여기에서 2인칭인 ‘너’를 3인칭인 ‘그’로 바꾸면, ㄷ은 ‘그는 모르느냐?’가 되므로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판정 의문문이다. 따라서 판정 의문문에 쓰이는 어미 ‘모르던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모르던고’의 ‘-고’는 설명 의문문의 어미이다.

- 오답 해설** ① ‘엇던’이 쓰이면 설명 의문문이 되므로, ‘종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평안’이 쓰이면 판정 의문문이 되므로, ‘홍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판정 의문문인 ㄷ과 설명 의문문인 ㄹ을 통해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이 특수한 의문형 종결 어미 ‘-나다’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⑤ 2인칭 주어가 추가되면 어미가 ‘-나다’가 되므로 ‘홍나다’로 바뀌어야 한다.

09

정답 ⑤

정답 해설 ㉡의 ‘부처계 바치리라’에서 ‘바치리라’는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서술어이므로 여기에 사용된 ‘-줄-’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 오답 해설** ① ‘니르샤디’는 주어 ‘선혜’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를 사용하고 있고, ‘니르다’를 오늘날에는 ‘이르다’로 적고 발음하므로 ‘ㄴ’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두음 법칙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은도노로’는 ‘은돈오로’를 연철로 표기한 것이다. 여기에 쓰인 조사 ‘오로’는 앞 체인의 양성 모음과 호응하는 것이므로 모음 조화는 지켜졌다.
 ③ ‘므스게’는 ‘므숙+예’를 연철로 표기한 것이다.

④ ‘쁘시리’의 초성자에 함용 병서가 나타나 있다.

10

정답 ①

보기 분석 중세 국어에서는 시제 표시 선어말 어미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주어가 화자 자신일 때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해설 ‘命終(명종) 호라’의 ‘-오-’는 주어가 화자 자신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命終(명종) 호라’ 앞에 쓰인 ‘하마’가 ‘이미’라는 의미이므로 ㉠은 과거 시제이다.

- 오답 해설** ② ‘묻는다’의 ‘-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다.
 ③ ‘롱담하더라’의 ‘-다-’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더-’에 주어가 화자 자신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것이다.
 ④ ‘하더이다’에서 ‘-더-’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⑤ ‘어드리라’의 ‘-리-’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11 ⑤	12 ④	13 ②	14 ⑤	15 ④	16 ①
17 ④	18 ⑤				

11

정답 ⑤

보기 분석 <보기>는 훈민정음 창제 전 차자 표기를 활용한 고유 명사 표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할 때 한자의 음만 빌리거나 한자의 뜻만 빌리는 방식을 취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보기>에 제시된 문장으로 ㉠과 ㉡은 동일한 고유 명사(사람의 이름)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은 음을 빌린 표기 방식이고 ㉡은 뜻을 빌린 표기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면 ‘소나’ 혹은 ‘쇠내’로 그 이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한자가 우리말 음운 체계에 기반을 둔 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자의 음, 뜻을 빌리더라도 우리말의 정확한 소리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우리말에 유사한 소리를 찾아 표기한 것일 뿐이다.

정답 해설 ⑤ ‘코끼리’의 ‘코’와 ‘끼’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된 한자는 鼻(코 비), 厓(끼일 차)로 이들은 모두 뜻을 활용해 ‘코’와 ‘끼’를 나타낸 것이다. 반면 ‘리’를 나타내고자 里(마을 리)를 사용한 것은 한자의 음을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鼻厓里’로 ‘코끼리’를 나타낸 것은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활용한 표기이다.

- 오답 해설** ① ‘書(글 서)’는 뜻을 빌린 표기로 ㉠과 방식이 같고, ‘路(길 로), 伐(칠 벌)’은 음을 빌린 표기로 ㉡과 방식이 같다.
 ② ‘歌呢悲(노래 가, 소곤거릴 니, 성별 예)’는 모두 소리를 빌린 표기로 ㉠과 방식이 같다.
 ③ ‘徐齡(천천히 할 서, 고을이름 울)’은 모두 소리를 빌린 표기로 ㉡과 방식이 같다.
 ④ ‘世宗(누리 세, 마루 종)’은 모두 뜻을 빌린 표기로 ㉠과 방식이 같다.

보기 분석 | <보기>는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오/우-’의 의미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선어말 어미 ‘-오/우-’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기에 그 기능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주된 확설은 주어의 인칭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종결 어미나 연결 어미 앞에서 ‘-오/우-’는 주어가 1인칭이거나, 혹은 3인칭이라도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오/우-’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이런 인칭을 표시하는 기능 대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정답 해설 | ‘닐오리라’는 ‘닐-’(니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변화된 형태) + -오- + -리-(추측, 의도의 선어말 어미) + -라(평서형 종결 어미)의 결합형으로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었다. 청자인 ‘태룡왕’을 ‘너’라 칭하며 말하는 화자는 1인칭으로 설정되기에 이를 표시하기 위해 ‘-오-’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아노닌’은 ‘알- + -느-(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 -오- + -ㄴ(관형사형 전성 어미) + 이(사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 ㄴ(보조사)의 결합형이다. ‘아논’이라는 관형어가 의존 명사 ‘이’를 수식하는 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아논+이’라는 관형절을 분석해 보면 ‘이’가 관형절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어말 어미 ‘-오-’는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딩ᄇ노니’는 ‘딩ᄇ-(만들-) + -느-(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 -오- + -니(연결 어미)’의 결합형이다. 이때 ‘-오-’는 연결형에서 쓰인 것으로 ‘딩ᄇ노니’의 주어가 ‘나’(1인칭)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對호니’는 ‘대호-(대하-) + -오- + -니(연결 어미)’의 결합형으로 역시 연결형에서 쓰인 것으로 관형사형에 나타난 ‘-오-’의 예가 아니다.

② ‘머구니’는 ‘떡- + -우- + -니(연결 어미)’의 결합형으로 ‘-우-’가 연결형에서 쓰여 주어가 ‘우리’(1인칭 복수)임을 표시하고 있다. ‘뿌메’는 ‘뿌-(쓰-) + -옵- + 예(부사적 조사)’의 결합형으로 이때의 ‘-옵-’은 명사형 어미이지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③ ‘일우샤’는 ‘일- + -우- + -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 -어(연결 어미)’의 결합형이다. 현대어 해설에 나타나듯 사동 표현인데 ‘-우-’는 사동 접미사이다. ‘흫’은 ‘ᄃ-(하(爲)-) + -오- + -ㄴ(관형사형 어미) + ㅎ’의 결합형이다. 이때 관형어 ‘흫’은 의존 명사 ‘바’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 관형절을 분석하면 ‘바’가 관형절의 목적어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오-’는 관형어가 수식하는 명사가 관형절의 목적어일 때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가 맞다.

⑤ ‘너토시고’는 ‘넬-(엿(淺)-) + -오- + -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 -고(연결 어미)’의 결합형이다. 현대어 해석을 보면 ‘엿게 하시고’이니 사동 표현이고 이때 ‘-오-’는 사동 접미사이다. ‘언논’은 ‘언- + -느- + -오- + -ㄴ(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결합형이다. 해당 관형절이 꾸며 주는 명사는 바로 ‘藥(약)’인데 ‘약’은 관형절의 목적어로 기능한다. 즉 ‘-오-’는 ‘약’이 관형절의 목적어일 때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가 맞다.

보기 분석 | <보기>는 중세 국어에서 높임 표현들이 쓰인 문장을 모은 자료이다. ㉠은 높임의 대상인 ‘부텨’를 높이기 위해 사물이 아님에도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으며(높임의 대상이 아닌 유정물의 경우 ‘이/의’가 활용) 그런 ‘부텨’가 한 ‘말’도 높이고자(간접 높임: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과 같이 높임의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통하여 높여야 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식)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졸-’이 사용되었다.

㉡ 역시 ㉠과 동일하게 높임의 대상인 ‘생존(부처)’을 높이기 위한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으며, 높임의 대상인 ‘생존’의 ‘안부’도 높이고자(간접 높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졸-’이 사용되었다.

㉢은 선어말 어미 ‘-시-’와 ‘-이-’가 나타나 있는데 선어말 어미 ‘-시-’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며, 선어말 어미 ‘-이-’는 현대 국어에는 사라졌지만, 중세 국어 시기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에 활용되었다.

㉣은 호격 조사 ‘하’와 함께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다. 호격 조사 ‘하’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지만 중세 국어 시기 높임의 대상에 붙었던 것이다. 여기서 ‘돌ᄃ’를 의인화하여 ‘-시-’를 활용해 높이고 있기에 높임의 호격 조

사가 붙을 수 있는 것이다. (‘돌ᄃ’은 중세 국어 시기 ᄃ 종성 체언이었기에 높임의 호격 조사 ‘하’가 아니라 일반적인 호격 조사 ‘아’가 붙은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를 활용한 높임과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은 높임의 대상인 ‘용왕’을 높이기 위해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다.

정답 해설 | ㉠의 ‘-졸-’과 ㉡의 ‘-졸-’은 모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각각 ‘부텨말’과 ‘생존ㅅ안부’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간접 높임의 대상이다.

오답 해설 | ㉠ ㉡과 ㉢에서 나타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졸-’은 현대 국어의 선어말 어미 ‘-옵/오-’의 형태로 계승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그 의미 기능이 바뀌었는데 ‘-옵/오-’는 객체 높임이 아닌 화자의 공손함을 드러내는 의미를 나타낸다.

③ 선어말 어미 ‘-이-’는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에서는 숨어 있는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④ ㉤에서는 ‘돌ᄃ’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호격 조사 ‘하’ 대신 ‘하’를 쓴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중세 시기에는 호격 조사가 높임의 유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선택되어 쓰였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도 계승되어 있다. 현대 국어의 호격 조사는 ‘아, 야이며, 높임의 경우 ‘이시여’가 존재한다.

⑤ ㉤ ‘龍王(용왕)’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을 붙여 ‘龍王(용왕)’을 높이고 있지만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자본’의 ‘-은’은 용언 어미의 일부다. ‘조이로라’에서의 ‘이’는 ‘중(중)’의 받침이 서술격 조사의 어간 ‘이’에 연결되어 쓰인 표기이다.

black label 특강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던 중세 국어의 높임법

오늘날 우리말의 높임법은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의 종류에 따라 그것이 주로 실현되는 방식이 다르다.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로, 객체 높임은 특수 어휘로,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높임의 방법이 높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높임법이라는 문법 범주가 그다지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세 국어 시기 높임법은 현대 국어에 비해 훨씬 체계적이었다.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모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 실현되었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졸-’,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근대 국어 시기에 접어들며 선어말 어미들이 소멸하기 시작하면서 높임의 문법 범주도 체계를 잃기 시작했다.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는 아예 사라져 높임의 기능을 종결 어미가 대신 맡게 되었으며,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졸-’은 현대의 ‘-옵/오-’로 바뀌었으나 객체 높임의 기능이 아니라 화자의 공손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능이 바뀌었다.

㉤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자 하오니’

보기 분석 | <보기>는 1459년 간행된 책 『월인석보』의 일부 구절을 따온 것이다. 석가모니의 전생인 ‘선해’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로, 해당 장면은 ‘선해’가 당시 모시고 있던 ‘등조왕’의 명령에 의해 ‘보광불’이라는 부처님(불교에서 부처는 석가모니 뿐만 아니라 여럿이다.)을 위해 꽃을 구하다가 ‘구이’라는 인물과 만나게 된 장면이다. 15세기 국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자료이다.

정답 해설 | ㉠ ‘저ㅅ바’와 ㉡ ‘보내ㅅ바’, ㉢ ‘발주ᄃ’은 모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저ㅅ바’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다’는 의미로 객체인 ‘왕의 명령’을 간접 높임하고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다’는 의미의 동사 ‘ᄃ다’의 어간 ‘ᄃ-’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솔-’이 붙은 형태이다. ‘보내ㅅ바’는 동사 ‘보내다’의 어간 ‘보내-’ 뒤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솔-’이 붙은 형태로 객체인 ‘대궐’을 간접 높임하고 있다. 또한 ‘발주ᄃ’은 ‘바치다’는 의미의 동사 ‘발다’의 어간 ‘발-’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졸-’이 붙은 형태로 객체인 ‘부처’를 높이고 있다. 이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모두 같은 형태소이나 ‘-솔-, -솔-, -졸-’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는 앞뒤 형태소의 음운에 따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 ㉡ ‘燈燈照ᄃ王’과 ㉢ ‘普佛光ᄃ佛’의 한자 표기 뒤에 제시된 훈민정음 표기는 한자의 음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자음과 다른데 이는 당시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함께 만들었던 ‘동국정운’의 영향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우리말 한자음을 당시 중국의 한자음

과 유사하게 수정하고자 중국의 한자음을 표기할 문자를 만드는 것에 있었다. 삼국 시대 초반 한자가 전래된 이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에서 쓰던 한자음과 중국에서 쓰던 한자음이 서로 달라졌고 조선 시대에 와서는 서로 통용이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이에 세종은 우리말 한자음을 당대 중국(명나라)의 한자음과 유사하게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이 당대 중국의 한자음을 정리한 ‘동국정운’이라는 중국 한자음 발음 모음집(운서)을 간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훈민정음으로 간행되는 책에는 동국정운에 실린 한자음대로 한자음을 표기하게 된다. 이에 ‘쑤’, ‘퐁’, ‘뽕’과 같이 특이한 표기가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우리말에는 없지만 중국어 발음에는 있던 음을 표기하기 위해 만든 문자에 기인한 것이다.

㉔ ㉕ ‘나라해’와 ㉖ ‘짜홀’은 각각 ‘나라ㅎ + 해(부사격 조사)’, ‘짜ㅎ + 올(목적격 조사)’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나라ㅎ’, ‘짜ㅎ’은 오늘날의 ‘나라’, ‘땡’과 달리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들을 ‘ㅎ’ 종성 체언이라 부르는데 이들의 발음은 체언 뒤에 위치하는 음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체언 뒤에 모음이 올 경우 연음되어 종성 ‘ㅎ’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는데 ㉔과 ㉖이 바로 그 예이다.

㉗ ㉘ ‘꽃잇논’과 ㉙ ‘고지’는 각각 ‘꽃+잇논(용언의 활용형 ‘잇논’), ‘꽃+이(주격 조사)’로 분석할 수 있다. ‘꽃잇논’에서의 ‘꽃’은 ‘꽃’의 종성을 대표음 발음대로 적은 표기이다. 이를 보면 ㉙은 연음을 시키지 않은 표기이고 ㉘은 연음을 시킨 표기로 이를 통해 중세 국어 시기에는 연철(이어적기)과 분철(끊어적기)이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㉚ ㉛ ‘닐굽’, ㉜ ‘니르샤디’는 각각 현대어 ‘일곱’, ‘이르시되’에 대응되는 말이다. 우리말의 음운적 특성 중 하나가 구개음화된 ‘ㄴ’이 어두에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기에 ‘ㄴ’이 구개음화되면서 발음되지 않게 되고, 이에 ‘일곱, 이르샤되’와 같이 탈락된 형태가 현대 국어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두에 ‘ㄴ’이 쓰인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blacklabel 특강 ‘ㄴ’의 구개음화

현대 국어에서는 어두의 ‘ㄴ’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근대 국어 시기 나타난 구개음화의 영향 때문이다. 오늘날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는 구개음화는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ㄹ’ 앞에서 ‘ㄷ, ㅌ’으로 바뀌는 것만 존재하지만 실제 구개음화 현상은 대단히 폭넓은 현상이다. 본디 구개음화란 구개음적 속성을 지닌 ‘ㄹ’ 모음 앞에 구개음이 아닌 음운이 놓였을 때 이것이 구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 전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닐굽’, ‘니르샤디’의 ‘ㄴ’ 역시 구개음화의 대상이 되었다. ‘ㄹ’ 모음 앞에 위치한 ‘ㄴ’이 ‘ㄹ’ 모음의 영향으로 본래의 조음 위치인 윗잇몸에서 발음되지 않고 더 뒤에 위치한 천임천장에서 발음되게 된 것이다.

15

정답 ④

정답 해설 | 훈민정음 해례 기록은 창제 당시의 모음 체계가 글자 창제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모두 반모음 ‘ㅣ’를 가지고 있는 모음들로 글자 형태에서도 ‘ㅣ’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들 모음들이 모두 이중 모음인 것은 아니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만 반모음 ‘ㅣ’가 단모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이며, ‘ㅑ, ㅕ, ㅗ, ㅛ, ㅜ, ㅠ, ㅡ’는 모두 이중 모음 뒤에 다시 반모음 ‘ㅣ’가 이어진 삼중 모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훈민정음 해례 기록에서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고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오되’라고 언급한 부분은 ‘ㅇ’의 조음 위치 및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ㅇ’이 어금닛소리(오늘날 연구개음)에서 발음되는 비음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훈민정음에서 자음을 나타내는 문자들은 조음 위치에 따라 기본자를 먼저 설정하고 그 후 기본자에 가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어금닛소리는 기본자 ‘ㄱ’과 가획자 ‘ㅋ’을 가진다. 하지만 ‘ㅇ’은 이 원리에 따라 문자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금닛소리의 ‘ㄱ, ㅋ’과 조음 위치가 같더라도 실제 소리가 목구멍소리(목청소리)인 ‘ㅇ’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모양을 다르게 만드는 이체의 원리를 따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② 훈민정음 해례 기록에서 ‘반헛소리’는 반설음, 곧 ‘ㄹ’을 의미한다. ‘반헛소리는 가볍고 무거운 두 소리가 있으나 운서의 자모는 오직 하나뿐’이며 ‘우리나라 말에서는 비록 가볍고 무거운 것을 구별하지 않더라도’라는 부분은 우리말 음운 ‘ㄹ’이 음성적으로 두 가지 소리로 구분되어 쓰일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ㄹ’은 초성에 올 때는 혀를 잠깐 잇몸에 붙였다 떼면서 내는 ‘탄설음’(영어의 r에 가까운 발음)으로 발음되지만 종성에 올 때는 혀를 잇몸에 계속 붙인 채 공기를 혀 양 옆으로 통과시켜 흐르게 하는 ‘설측음’(영어의 l에 가까운 발음)으로 발음된다. 이들의 소리적 성질은 분명 다르지만 우리말에서 별개의 음

운으로 구분되지 않기에 국어 화자들은 두 가지 소리를 모두 1개의 음운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이 두 가지 음성적 소리를 구분한 후 비록 음운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소리를 표기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둔 것이다. ‘반헛가벼운소리’가 바로 ‘탄설음’ ㄹ이며 표기를 ‘뽕’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는 훈민정음 문자 체계가 음운론에 대한 대단히 깊은 이해 속에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③ 훈민정음 해례의 기록 중 ‘합자해’의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초성, 중성, 종성을 나타내는 각 문자들을 합쳐서 하나의 글자처럼 쓰도록 언급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초성 글자의 위치를 정하고 또 된소리나 어두 자음군, 이중 모음을 나타내기 위해 글자들을 모아 쓸 때(각자 병서, 이중 모음 표기, 합용 병서)의 순서가 왼쪽부터 오른쪽인 것 역시 각 문자들을 모아 쓰게 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곧 훈민정음 표기에서 글자를 음소 단위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음절 단위로 모아 쓰도록 규정한 것이다.

⑤ 훈민정음 해례의 기록 중 ‘ㅇ, ㄴ, ㅁ, ㅂ, ㄷ, ㄹ의 여섯 자는 평성 ~ 모두 입성의 끝소리가 된다.’는 것은 종성에서는 모든 초성의 글자를 쓸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뒤 구절에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 여덟 자 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에 대한 것은 당시 우리말 발음 과정에서 종성의 자음들은 대표음화된 8개만 발음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종성 표기에 모든 자음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훈민정음으로 간행된 대다수의 책들은 종성 표기에 8개의 대표음을 나타내는 문자만 쓰게 된다. 이는 모든 종성을 표기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표기 원리를 구현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실제 소리대로 쓰기 쉽게 표기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6

정답 ①

보기 분석 | <보기>는 1587년 간행된 책 『소학언해』의 일부로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이다. <보기>의 부분은 공자가 제자인 증자에게 효도와 벗의 사귀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다.

정답 해설 | 중세 국어 시기 엄격하게 지켜지던 모음 조화는 근대 국어 시기 음운 및 문법의 변천을 거치면서 많이 파괴되어 현대에 이르렀다. 그 사례 중 하나로 중세 국어의 조사는 선행하는 체언의 모음에 따라 모음 조화를 고려해 형태를 달리 취했는데, ‘효도이’와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오늘날 관형격 조사는 ‘의’만 존재하지만 중세 시기는 모음 조화를 고려해 ‘이/의’의 두 가지 형태를 사용했다. 또한 용언의 활용에서도 중세 시기 모음 조화가 엄격히 지켜졌다. ‘해로운’은 ‘해롭다’의 어간 ‘해롭-’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결합된 형태이다. 중세 시기 ‘해롭다’는 오늘날과 같이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었다.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은 모음 어미 앞에서는 어간 받침이 ‘ㅂ’에서 ‘ㅍ’으로 교체되었는데 16세기 들어 ‘ㅍ’이 사라지면서 받침 ‘ㅂ’이 모음 앞에서 ‘-오/우-’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모음 조화를 고려하여 ‘-오-나 -우-’가 선택되는데 ‘해롭다’의 활용에서 ‘-오-’가 선택되는 것은 어간의 모음들이 모두 양성 모음이기 때문이다. 반면 오늘날에는 ‘해로운’의 형태로 나타나 모음 조화가 파괴된 것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 ② ‘뽀이뽀’, ‘뽀헛면’에서의 ‘-뽀’, ‘-면’은 모두 연결 어미로 오늘날과 형태와 기능이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뽀죽은 거시라’에서의 ‘-라’는 평서형 종결 어미이다.

③ 오늘날의 국어 표기법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방식을 중심으로 하되(분철), 소리대로 적는 방식(연철)을 혼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한글맞춤법 표기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세 국어 시기에는 규정된 표기법이 없었기에 연철, 분철, 중철의 표기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뽀헛면’은 분철(연철 표기라면 ㅎ 축약에 의해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야 한다), ‘비르소미오’는 연철(비르-+ㅛ(명사형 어미))+ㅛ-이-(서술격 조사의 어간)+ㅛ(평서형 종결 어미) 표기이다. ‘닐러’ 역시 연철 표기인데 동사 ‘니르다’의 어간 ‘니르-’에 연결 어미 ‘-어’가 붙은 것으로 이때 ‘니르다’는 활용 과정에서 오늘날 ‘르’ 불규칙과 동일한 양상을 띤다. 따라서 중철 표기가 아니다.

④ ‘아니 흙이’의 ‘흙’은 동사 ‘흐다’의 어간 ‘흐-’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 된

것이지만 ‘일홈’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명사이다.

⑤ ‘혈워’는 동사 ‘혈다’의 어간 ‘혈-’에 사동 접미사 ‘-우-’와 연결 어미 ‘-어’가 붙은 구성이다. 사동 접미사 ‘-우-’는 오늘날 ‘혈다’에 붙지 않지만 다른 용언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현덕케 흠’은 동사 ‘현덕히다’의 어간 ‘현덕히-’에 연결 어미 ‘-게’와 보조 용언 ‘히다’의 어간 ‘히-’, 명사형 어미 ‘-옵’이 붙은 구성이다. 이때 ‘-게 히-’는 사동 표현을 만드는 연결 어미+보조 용언 구성으로 오늘날 긴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다.

17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노걸대’라는 중국어 학습서에 실린 동일한 예문에 대한 16세기와 17세기 자료이다. 이에 (가)에는 중세 국어의 특징이, (나)에는 근대 국어의 특징이 자료에 나타나 있다. 대화의 내용은 중국인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고려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는지 묻자 고려인이 중국어 학당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해설 | 『번역노걸대』에서는 ‘이른 새배 니러 학당의 가’와 ‘학당의 노하든’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모두 ‘의’로 나타나지만 『노걸대언해』에서는 ‘이른 새배 니러 學堂(학당)의 가’와 ‘學堂(학당)의 노하든’처럼 ‘의’가 ‘의’와 ‘의서’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이는 오늘날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에 대응되는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에’가 ‘지향점’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낸다면 ‘에서’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기에 그 쓰임이 다르다. 따라서 17세기 ‘의’와 구분되는 ‘의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부사격 조사가 의미에 따라 형태가 구분되어 쓰이기 시작함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에서 모두 ‘高麗(고려)ㅅ’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때 ‘ㅅ’은 관형격 조사로, 아직 17세기까지 관형격 조사 ‘ㅅ’이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에서 모두 어두 자음군을 찾을 수는 없다. ‘ㅈ’의 ‘ㅅ’은 어두 자음군이 아닌 된소리 표기이다.

② 『번역노걸대』에서의 ‘네 므슴 그를 비훈다’와 『노걸대언해』에서의 ‘네 므슴 글을 비훈다’에서 모두 주어는 ‘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대명사 ‘너’ 뒤에 주격 조사가 ‘ㅣ’의 형태로 결합한 것으로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모음 뒤에서 결합하는 주격 조사 ‘가’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음은 확인할 수 있다.

③ 『번역노걸대』의 ‘닐고라’가 『노걸대언해』에서 ‘닐그라’로 바뀌었는데 이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닐고라’는 ‘읽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넙다’의 어간 ‘넙-’에 주어가 1인칭임을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 ‘-오-’와 평서형 종결 어미 ‘-라’가 결합된 것이다. ‘닐그라’는 동사 어간 ‘넙-’에 평서형 종결 어미 ‘-으라’가 결합된 형태이다. 선어말 어미 ‘-오-’가 사라진 것은 맞지만 어간의 형태는 ‘넙-’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평서형 종결 어미의 형태는 ‘-라’에서 ‘-라’로 변화되었다.

⑤ 『번역노걸대』에서는 ‘옴기’를 ‘이피’와 ‘입피’로 쓰고 있고, 『노걸대언해』에서는 ‘옴기’로 쓰고 있다. 즉, 16세기는 ‘읽다(옴다)’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해 하나의 단어인 ‘이피’로 쓰인 것으로 이어적기에 해당하고, 뒤에 나온 ‘입피’는 과도기적 표기법인 거듭적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17세기에는 끊어적기가 16세기보다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18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1466년 간행된 책 『구급방언해』의 일부 구절을 따온 것이다. 목과 목 바깥쪽이 붓는 증상에 대해 우엉씨 분말과 소금을 볶아 찜질하면 붓기가 즉시 좋아진다는 처방을 담고 있다.

정답 해설 | ㉔의 ‘도호리라’는 ‘좋다’라는 의미의 용언 ‘똥다’의 어간 ‘똥-’에 추측의 선어말 어미 ‘-리-’와 평서형 종결 어미 ‘-라’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에 대한 현대어 해석은 ‘좋아지리라’에 해당한다. 이때 중세어 ‘똥다’는 현대어 ‘좋다’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좋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형용사로만 쓰인다. 하지만 현대어 해석에 나타난 ‘좋아지리라’의 ‘좋아지다’는 형용사 ‘좋다’에 접미사 ‘-아지다’가 붙어 된 동사이다. 이를 보면 ‘똥다’는 현대의 형용사 ‘좋다’와 동사

‘좋아지다’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용언이 별다른 형태 변화 없이 동사나 형용사로 모두 쓰일 수 있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오답 해설 | ① ㉔은 ‘똥+이’로 분석할 수 있으며 ‘똥’은 오늘날 ‘똥’에 대응되는 단어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중세와 달리 어두에 자음군이 오지 않지만 중세에는 중세 국어와 같이 자음군(㉔) ‘값’과 같은 겹받침이 올 수 있다.

② ㉔은 ‘똥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어간 ‘똥-’에 선어말 어미 ‘-오-’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리-’, 의존 명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 의존 명사 ‘이’는 ‘똥은 것’의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물을 지칭하고 있다. 오늘날 의존 명사 ‘이’는 사람(㉔) 성냥팔이)과 사물(㉔) 재떨이)을 두루 지칭한다.

③ ㉔ 중세 국어 시기 접속 조사 ‘와/과’를 활용해 단어를 나열할 경우, ‘디호니와 소곰 두 량과롤’의 형태처럼 접속 조사를 후행하는 명사에도 결합하여 쓰는 특징이 나타난다.

④ ㉔은 ‘똥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똥다’의 어간 ‘똥-’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과 의존 명사 ‘디’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똥다’는 ㅅ 불규칙 용언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 ㅅ이 ㅌ으로 바뀌는 활용을 하였다. 받침이 연음되어 표기된 것으로 보아 이는 이어적기에 따른 표기인데 이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기보다는 소리대로 적는 원리에 충실한 표기법이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19 ③	20 ③	21 ①	22 ⑤	23 ②	24 ④
25 ①	26 ①	27 ③	28 ③	29 ④	

19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의 학생들은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생 1’은 자음 ‘ㄴ’에 적용된 상형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학생 2’는 기본자의 합성으로 새로운 모음을 만들어 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 3’과 ‘학생 4’는 기본자에 가획하여 새로운 초성을 만드는 가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학생 3’은 거센소리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 5’는 초성을 다시 중성에 쓰는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생 6’은 순경음을 만드는 연서의 원리와 어두 자음군을 만드는 병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정답 해설 | ‘학생 3’은 ‘ㄴ’에서 ‘ㄷ’이 ‘ㅇ’에서 ‘ㅎ’이 되는 과정을 <A>-<A에 획 추가>로 소리의 세기가 글자의 모양에 반영된 것이라 했으므로 기본자에 획을 추가해 거센소리를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 4’도 기본자 ‘ㄷ’ 모양에서 획을 더한 글자가 ‘ㅌ’과 ‘ㅍ’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기본자에 가획하여 새로운 초성을 만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두 학생 모두 기본자에 가획하여 새로운 초성자를 만들었다는 제자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이 기본자를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는 이해는 적절하나, ‘학생 2’는 그렇지 않다. ‘학생 2’는 상형의 원리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중성자를 만들었다는 제자의 원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② ‘학생 2’는 맞으나, ‘학생 3’의 경우 ‘ㄱ, ㅋ, ㅇ, ㅎ’은 모두 중성자(모음)가 아니라 초성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 4’는 상형의 원리, ‘학생 5’는 중세 국어 한글의 제자 원리에서 음절의 중성(끝소리)은 새롭게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중성에 쓴다는 ‘중성부용초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는 병서의 원리와는 모두 관련이 없다.

⑤ ‘학생 6’은 초성자에는 속하지 않으나 다양한 소리를 적기 위해 기존의 글자

를 함하여 만들었다는 제자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지만, '학생 5'는 그렇지 않다.

20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중세 국어의 표기 및 문법적 특징을 알 수 있는 예시들이다. ㉠은 높임의 관형격 조사 '스'이 사용되었고, ㉡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줄-'이 사용되었다. ㉢은 이어적기 표기법이며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은 모음으로 끝난 체언에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된 예이다.

정답 해설 | 중세 국어 ㉢의 '거르믈'이 현대 국어 '걸음을'과 대응되고 있는데, 이는 음절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은 현대어 표기 방식으로 '끊어적기'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은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표음주의-이어적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 해설 | ㉠ ㉡ '부텃'은 현대 국어 '부처의'와 대응하는데, 여기서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하는 것이 중세 국어의 '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사잇소리(합성어에서 덧나는 소리)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듣주보디'는 현대어 '말씀'을 높이는 '듣되'와 대응되고 있는데, 두 어휘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는 선어말 어미 '-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와 달리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말씀을 하는'의 주체인 '부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부처의 말씀)'를 높이고 있는 선어말 어미이다.

㉣ ㉤ '니르샤디'는 현대 국어 '이르시되'와 대응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는 주체를 높이는 '-시-'가, 중세 국어에서는 '-샤-'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베'는 현대 국어 '바가'와 대응되고 있다. '바가'는 의존 명사 '바'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형태이고, 중세 국어 '베'는 의존 명사 '바'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국어에서 주격 조사로 '가'가 쓰일 자리에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ㅣ'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바'에 결합되어 '베'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1

정답 ①

보기 분석 |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 창제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 문학 사상 최초의 국문 시가로 1445년(세종 29년)에 간행되었다. 모두 125장에 달하는 서사시로 조선 개국의 위대함과 시련을 노래했고, 그것이 하늘의 명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정답 해설 | '지미'를 형태소 분석하면 '집+이'가 되고 '내히'는 '내ㅎ+이'가 된다. 즉, 주격 조사 'ㅣ'가 아니라 '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휘'는 '불휘+ㄹ'이 되어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 '남근'을 형태소 분석하면 '남+근'이 된다. 이때 '나무'의 중세 국어 기본형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와'와 결합할 때는 '나모'가 된다. 반면에 '와'를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남'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뒤에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체언이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여름'을 형태소 분석하면 '열+ㅡ+음'이 된다. '열다'의 어간과 명사 파생 접미사 'ㅡ음'이 결합하여 '열매'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하느니'를 형태소 분석하면 '하+ㅡ+느+ㅡ+니'가 된다. 이때 'ㅡ느ㅡ'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 '부르매', '구르매'를 형태소 분석하면 '부름+애'가 되고 '구름+애'가 된다. 이때 '부름+애'의 '애'는 '~로 인해, ~때문에'의 뜻을 지닌 부사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22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중국 당나라 두보가 지은 「춘망(春望)」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출처에 따르면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의 초간본에서 그 원전을 따온 것이다.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 초간본은 1481년(성종 12년)에 간행되었으므로 15세기 중세 국어를 탐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정답 해설 | '눈믈'과 대응하는 현대 국어는 '눈물을'이고, '드룰'과 대응하는 현대 국어는 '달을'이다. '눈믈'은 '눈믈+을'인데 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이어적기) '눈믈'로 표기한 것이니 여기서 목적격 조사는 '을'이다. 마찬가지로 '드룰'은 '돌+을'인데 이어적기를 하여 '드룰'로 표기하였으니 여기서 목적격 조사는 '을'이다. 따라서 <보기> 자료에서 당시의 목적격 조사 '을/을'이 앞 음절의 모음 성격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알 수는 있지만, '를/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고지'는 현대어 '꽃이'와 대응되고, '나라히'는 '나라가'와 대응되고 있다. 따라서 둘은 모두 주격 조사가 사용된 체언인데, '고지(꽃+이)'에는 'ㅎ' 종성이 없고, '나라히(나라ㅎ+ㅣ)'에는 'ㅎ' 종성이 있으므로, 'ㅎ' 종성 체언이 존재했다는 탐구는 가능하다.

② '얏'은 현대어 '안의'와, '지뵈'는 현대어 '집의'와 대응된다. 이때 '얏'은 '안+스(→ 안의)'로, '지뵈'는 '집+의+스(→ 집의)'로 분석되므로, '뵈'에는 '의+스'이라는 이중의 관형격 조사가 있다는 탐구는 가능하다.

③ '쁘리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인 '스'와 'ㅂ'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④ '무수물'은 현대어 '마음을'과 대응된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 와서 'ㅡ'는 'ㅂ'와 'ㄴ'로, 초성의 'ㄷ'은 음가 없는 'ㅇ'으로 바뀌었다는 탐구는 가능하다.

black label 특강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

중세 국어에서는 목적격 조사에서도 모음 조화를 지켜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각각 '을/을, 를/를'이 있었는데, 'ㅡ' 모음의 소실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금의 목적격 조사 '을/를'로 단순화되었다.

중세국어(목적격 조사)		현대 국어(목적격 조사)
양성 모음 뒤	음성 모음 뒤	
밥+을 → '바을'	법+을 → '바을'	밥을/법을(자음으로 끝남.+을)
나+를 → '나를'	너+를 → '너를'	나를/너를(모음으로 끝남.+를)

23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에서 중세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는 끝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애'를 사용하였고, 음성 모음이면 '예'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ㅣ'나 받모음 'ㅣ' 계열의 이중 모음 뒤에서는 '예'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정답 해설 | ㉠에는 끝음절이 양성 모음('ㅡ')이므로 '부름+애=부르매', ㉡에는 끝음절이 'ㅣ' 모음이므로 '서리+예=서리예', ㉢의 끝음절이 음성 모음 'ㅣ'이므로 '굴형+예=굴허예'가 적절하다.

24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알 수 있는 예시들이다. (가)의 밑줄 친 부분의 '스'는 높임의 관형격 조사이며, (나)의 밑줄 친 부분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이 사용된 예이다. (다)의 밑줄 친 부분은 주어 2인칭일 때 쓰이는 의문형 어미 '-나디'의 예이며, (라)의 밑줄 친 부분은 주격 조사 'ㅣ'를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 마지막으로 (마)의 밑줄 친 부분은 무정 명사에 사용된 최초의 부사격 조사 '의'가 사용된 예이다.

정답 해설 | (라)의 밑줄 친 '부테'는 현대어 '부처께서'와 대응된다. '께서'는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이고, 이와 대응되는 중세 국어는 'ㅣ'이다. 그리고 그 앞 체언이 '부터'로 모음으로 끝나고 있다. 따라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쓰였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大王ㅅ 말쑤미ㅅㅅ’과 대응하는 현대어가 ‘대왕의 말씀이야’이므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된 것은 맞다. 그러나 ‘무정 명사’는 식물이나 사물처럼 감정을 지니지 않는 명사를 말하는데, (가)에 밑줄 친 ‘대왕’은 유정 명사(사람이나 동물처럼 감정을 지닌 명사)이다. 따라서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부처를 請ᄒᆞᆫᄌ쇼셔’가 현대어로 ‘부처를 청하십시오.’와 대응되고 있다. ‘請ᄒᆞᆫᄌ쇼셔’는 ‘청ᄒᆞ-+-ᄌ쇼셔’로 분석되는데, 이 서술어는 목적어 ‘부처’를 높이고 있다. 즉, 선어말 어미 ‘-ᄌ쇼-’는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주체’를 높이고 있다고 했으니 적절하지 않다.

③ (다)의 밑줄 친 부분은 ‘네가 어떻게 알았니?’라고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설명 의문문이다. 그런데 그 의문형 어미를 보면, ‘-ㄴ다’로 끝나고 있다. 따라서 ‘-오-’ 계열의 의문형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그 물 미티 金물에 잇느니’에서 ‘미티’는 현대어 ‘밑에’와 대응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에’는 처소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이해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덧붙여 ‘밑’이란 명사는 유정 명사(사람이나 동물처럼 감정을 지닌 명사)도 아니다.

blacklabel 특강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에는 ‘의, 의, ㅅ’이 있다. ‘의’는 유정 명사의 양성 모음 뒤에서, ‘의’는 유정 명사의 음성 모음 뒤에서, ‘ㅅ’은 높임의 유정 명사와 무정 명사 뒤에서 사용된다.

ㄱ. 유정 명사의 양성 모음 뒤+의

예 누미 뜻(남의 뜻)=누(유정 명사의 양성 모음 ㅁ)+의(관형격 조사)+뜻

ㄴ. 유정 명사의 음성 모음 뒤+의

예 최구의 집=최구(유정 명사의 음성 모음 ㅁ)+의(관형격 조사)+집

ㄷ. 높임 유정 명사 그리고 무정 명사+ㅅ

예 부텨뵈(부처의 뵈)=부텨(높임의 유정 명사)+ㅅ(관형격 조사)+뵈

나뭇 열매(나무의 열매)=나뭇(나무-무정 명사)+ㅅ(관형격 조사)+열매

25

정답 ①

보기 분석 <보기>는 세조가 1459년(세조 4년)에 부왕인 세종과 그의 정비인 소헌왕후, 그리고 요절한 세자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발간한 『월인석보(月印釋譜)』 권1에 수록되어 있는 구절이다.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내용을 본문으로 먼저 실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주석처럼 붙여 합판한 것이다. 이 문헌에는 세종과 세조 당대의 말과 글자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국어사에서 매우 귀중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두음 법칙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말하는데, ‘ㄹ’ 앞에서의 ‘ㄹ’과 ‘ㄴ’이 ‘ㅇ’이 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보기>의 ㉠ ‘니르샤디’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이르샤디’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은 ‘銀은돈+오로’로 분석되고, 이를 이어적기를 해서 ‘銀은도노로’로 표기되어 있다. 거듭적기(은돈노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 ‘俱공夷잉’은 현대어의 ‘구이’와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한자어에 종성이 없는 경우에 음가 없는 ‘ㅇ’을 붙인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해당된다. 주격 조사와는 관련이 없는 표기이다. 여기서 주격 조사는 ‘ㅣ’ 모음 뒤에서 ‘ㅇ’로 수행되고 있다.

④ ㉣ ‘쓰시리’가 현대어 ‘쓰시리’와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중세 국어의 어두 자음군은 현대 국어에서 예사소리가 아닌 된소리로 바뀌었다.

⑤ ㉤ ‘對뵈ᄃᆞᆫᄌ샤디’에 사용된 ‘샤’는 객체가 아닌 주체(선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blacklabel 특강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훈민정음은 국어의 전면적 표기를 위하여 제작되었는데, 이 전면적 표기에는 외래 요소의 표기도 포함되었다. 당시 국어에서 외래 요소는 주로 한자어였으므로 훈민정음 체계는 순수한 국어 단어와 더불어 한자음의 표기를 고려해야만 했다. 이 한자음의 표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동국정운(東國正韻)’이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한자음을 표기할 때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의 3성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종성이 없는 한자어에는 음가 없는 종성 ‘ㅇ’을 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자음 ‘世세’를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한다면 ‘생’가 되는 것이다.

26

정답 ①

보기 분석 <보기>는 1446년 세종 28년에 세종의 왕비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종이 수양대군(훗날의 세조)에게 편찬하게 한 『석보상절(釋譜詳節)』의 일부분이다. 이 문헌은 세종이 생존해 있던 당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당대의 국어를 알기에는 매우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잇고’는 현대어 ‘-입니까?’와 대응되는 의문형 어미로, 그 앞에 ‘누가’라는 의문사를 통해 설명 의문문의 의문형 어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잇고’의 ‘-고’는 의문형 어미로,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에서 나타난다는 탐구는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대왕하’는 현대어의 ‘대왕이시여’와 대응되고 있는데, ‘-이시여’는 높임의 대상을 부르는 호격 조사이다. 따라서 주격 조사가 아니라 호격 조사로, 높임을 나타내는 대상에 결합하는 형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仙人(선인)’은 현대어 ‘선인’에, ‘蓮花(연화)’는 ‘연꽃’에 대응되고 있다. ‘이’와 ‘ㅣ’는 모두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④ ‘ㅈ물’이 현대어 ‘딸’에 대응되고 있으므로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⑤ ‘世間(세간)’에와 ‘時節(시절)’에 사용된 조사 ‘에’와 ‘에’는 현대어와 대응시켜 보았을 때 모두 부사격 조사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를 올림소리 유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간과 시절에 붙은 ‘ㄴ’과 ‘ㄹ’은 모두 올림소리이기 때문이다. 부사격 조사 ‘에’와 ‘에는’ 끝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27

정답 ③

보기 분석 <보기>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실현되는 음운 환경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ㅎ’이면 ‘-ᄌ쇼-’, 모음과 ‘ㄴ, ㄹ’이면 ‘-ᄌ쇼-’, ‘ㄷ, ㅌ, ㅊ’이면 ‘-ᄌ쇼-’으로 나타났으며,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면 ‘ㅂ’이 ‘ㅈ’으로 교체되었다.

정답 해설 (A)에 들어갈 어미는, 결합하는 어간이 ‘보-’로 모음으로 끝나고 있고, 후속하는 어미가 ‘-도다’로 안올림소리로 시작하므로 ‘-ᄌ쇼-’이 적절하다. (B)에 들어갈 어미는, 결합하는 어간이 ‘뵈-’으로 ‘ㅈ’으로 끝나고, 후속하는 어미가 ‘-고’로 안올림소리로 시작하므로 ‘-ᄌ쇼-’이 적절하다.

28

정답 ③

보기 분석 <보기>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통사 구조를 지키는 합성어를 일컫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한다. 즉,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합성될 때는 이를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가 필요하므로 연결 어미 없이 어간만 쓰이는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라 한다.

정답 해설 ‘놀뒸뒸’는 현대 국어 ‘날아 움직이던’과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놀뒸뒸’는 ‘놀-+뒸뒸’로 분석되고, 이는 용언의 어간 ‘놀-’에 어미가 없이 다른 용언과 결합하고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다.

오답 해설 ① ‘니러서니이다’는 현대 국어 ‘일어셨습니다’와 대응된다. 여기서 ‘니러서니이다’는 ‘니러서--니이다’로 분석되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올마가더니라’는 현대 국어 ‘올아가더니라’와 대응된다. 여기서 ‘올마가다’는 ‘올--아--가다’로 분석되기 때문에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수라디느니라’는 현대 국어 ‘사라지느니라’와 대응된다. 여기서 ‘수라디느니라’는 ‘수르지--아--느--니라’로 분석되기 때문에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도라오느’는 현대 국어 ‘돌아오느’와 대응되고, 여기서 ‘도라오다’는 ‘도라(돌--아)--오--다’로 분석되기 때문에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29

정답 ④

보기 분석 『훈민정음』 언해본은 세종 28년(1446)에 나온 『훈민정음』을 한글로 풀이한 책이다. 『훈민정음』은 예의편과 해례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기〉는 예의편에 포함되어 있는 ‘어제 서문’이다. 표기 수단을 가지지 못한 백성들에게 표기 수단을 가지게 하기 위해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창제했다는 내용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밝혔다.

정답 해설 원순 모음(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으로 ‘고, 구, 기, 귀’ 따위가 있다.)이 아닌 것이 원순 모음으로 변한 것을 원순 모음화라 하는데, ‘스물’이 ‘스물’로 변한 것이 원순 모음화이다. 따라서 〈보기〉 자료를 통해서 중세 국어가 현대로 오면서 원순 모음화가 나타났다고 탐구하여야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나랏’이 현대 국어 ‘우리나라의’와 대응되므로 현대어의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하는 것이 ‘ㅅ’이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ㅅ’은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에 해당한다는 탐구는 적절하다.

② 중세 국어 ‘ㅍ:들’에서 초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있고, 현대어 ‘뜻’의 초성에는 하나의 자음이 있으므로,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초성에 오는 두 개의 자음을 모두 발음했을 것이라는 탐구는 적절하다.

③ ‘ㄷ’이 ‘ㄴ’ 모음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 ‘ㄷ’으로 변하는 것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따라서 ‘피디’가 오늘날 ‘피지’로 변한 것을 보니,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탐구는 적절하다.

⑤ ‘ㅍ:매’는 오늘날의 ‘쌈’이라는 의미로, 동사 어간 ‘ㅍ:’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은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현대 국어에서 명사형 전성 어미가 변했다는 탐구는 적절하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30 ①	31 ③	32 ③	33 ⑤	34 ④	35 ④
36 ①	37 ③	38 ④			

30

정답 ①

보기 분석 〈보기 1〉은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한 글이다. 중세 국어의 의문문은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나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이나에 따라, 의문문 주어의 인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결 어미나 의문 보조사가 붙음으로써 의문문이 된다. 〈보기 2〉는 중세 국어 의문문의 예이다. ㉠은 의문 보조사 ‘가’를 사용한 판정 의문문이고, ㉡은 주어가 2인칭인 설명 의

문문이다. ㉢은 의문형 종결 어미 ‘-니잇고’를 사용한 설명 의문문이다. ㉣은 의문 보조사 ‘가’를 사용한 판정 의문문이고, ㉤은 의문 보조사 ‘고’를 사용한 설명 의문문이다. ㉥은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를 사용한 판정 의문문이고, ㉦은 의문형 종결 어미 ‘-노’를 사용한 설명 의문문이며 ㉧은 의문형 종결 어미 ‘-너’를 사용한 판정 의문문이다.

정답 해설 의문 보조사를 사용한 의문문은 ㉠, ㉢, ㉤이고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의문문은 ㉡, ㉣, ㉥, ㉦, ㉧이다. 의문 보조사는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 결합하고 의문형 종결 어미는 어미이므로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뒤에 결합한다.

오답 해설 ② ‘-아’ 계통의 어미와 의문 보조사 ‘가’가 쓰인 판정 의문문은 ㉠, ㉢, ㉤, ㉦이며, ‘-오’ 계통의 어미와 의문 보조사 ‘고’가 쓰인 설명 의문문은 ㉡, ㉣, ㉥이다. 한편 ㉡은 문장에 있는 ‘엇테’를 통해 설명 의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니다’를 사용하였다.

③ ㉡은 설명 의문문으로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의문형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였다. 주어가 2인칭인 경우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의문형 어미는 구별이 없다.

④ ㉢은 설명 의문문으로 의문형 종결 어미 ‘-니잇고’를 사용하였다. ㉣은 설명 의문문으로 의문형 종결어미 ‘-노’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어미들은 ‘-오’ 계통의 어미에 속한다.

⑤ ㉤은 판정 의문문으로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를 사용하였다. ㉥은 판정 의문문으로 의문형 종결 어미 ‘-너’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어미들은 ‘-아’ 계통의 어미에 속한다.

31

정답 ③

보기 분석 〈보기〉는 ‘ㅎ’을 종성으로 가진 체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말음에 ‘ㅎ’을 가진 체언들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ㅎ’ 말음이 뒤에 오는 조사와 결합하여 ‘ㅋ, ㅌ’으로 축약되며, 모음이나 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난다.

정답 해설 ‘돌’의 중세 국어 표기는 ‘돌ㅎ’이다. ‘돌ㅎ+과’의 경우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축약이 되어 ‘돌과’로 적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무술ㅎ+이’의 결합 형식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는 ‘ㅎ’을 연음시키므로 ‘무술히’로 표기해야 한다.

② ‘가을 하늘이’에서 ‘가을’은 ‘하늘’을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므로 관형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을ㅎ+ㅅ’의 형식이 되고 이때 ‘ㅎ’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가을’로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ㅎ+이’의 형식이 되므로 ‘ㅎ’이 연음되어 ‘하늘히’로 표기해야 한다.

④ ‘내ㅎ+도’의 형식으로 결합한다.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르고 있으므로, 축약되어 ‘내토’로 표기해야 한다.

⑤ ‘길 가에’의 경우 ‘길’이 단독형으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ㅎ’이 나타나지 않아 ‘길’로 표기해야 한다.

32

정답 ③

보기 분석 〈보기〉의 (가)는 15세기 국어의 조사는 주로 체언에 결합하였고 이 형태가 많다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실제 문헌인 『석보상절』의 일부분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해설 현대어 풀이를 통해 ‘衆生(중생)’은 ‘많은 사람’의 의미이며, 존칭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관형격 조사는 앞 음절이 양성 모음이면 ‘이’, 음성 모음이면 ‘의’를 사용하였다. ‘衆生(중생)’의 경우는 양성 모음 ‘ㅈ’로 끝나므로 관형격 조사 ‘이’를 사용하였다. 한편 선행하는 체언이 존칭의 대상일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 ‘ㅅ’을 사용하였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의 ‘계’에 해당하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로 ‘찌’가 쓰였다. 따라서 ‘부터’를 높이기 위해 ‘찌’를 썼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雨達(수달)’이는 자음 ‘르’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경우

이다. '精畵(정사) 1', '내(나+1)'는 '1'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가 오면 '1'을 사용한 경우이다.

④ '邪曲(사곡)'은 체언의 마지막 음절 '곡'이 양성 모음 '고'이고 자음 'ㄱ'으로 끝나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하였다. '사르문'은 체언의 마지막 음절 '문'이 양성 모음 'ㅜ'이고 자음 'ㅁ'으로 끝나 보조사 '은'을 사용하였다.

⑤ '나라해(나라하+에)'를 통해 양성 모음 뒤에 오는 부사격 조사로 '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15세기 국어의 불규칙 용언들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은 현대 국어의 'ㅅ' 불규칙 동사로 이어진다. ㉡은 현대 국어의 'ㅂ' 불규칙 형용사로 이어진다. ㉢은 현대 국어의 '르' 불규칙 동사로 이어진다. ㉣은 현대 국어의 '여' 불규칙 동사로 이어진다. ㉤은 현대 국어의 '러' 불규칙 형용사로 이어진다.

정답 해설 |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프르다, 프르고, 프르니'처럼 '프르-'로 나타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어서'가 결합한 경우에는 '프르어서'가 아니라 '프르러서'로 나타나는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현대 국어의 '푸르고, 푸르러'와 같은 '러' 불규칙 형용사로 이어진다.

오답 해설 | ①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짓다, 짓고' 등 '짓-'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지서, 지스니' 등 '짓-'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대 국어의 'ㅅ' 불규칙 동사로 이어진다.

②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곱다, 곱고' 등 '곱-'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고뻘, 고뻘니' 등 '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대 국어의 '곱다, 곱와'와 같은 'ㅂ' 불규칙 형용사로 이어진다.

③ 어간이 '오르-'와 '올오-'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현대 국어에서 '오르-', '올르'로 어간이 교체되는 활용 양상과 일치한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 '오르다, 올라'와 같은 '르' 불규칙 동사로 이어진다.

④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규칙 활용이라면 '-아'로 나타나야 하지만 '-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 '하고, 하여'와 같은 '여' 불규칙 동사로 이어진다.

34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 1>은 향찰의 개념 및 표기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보기 2>(가)는 「서용요」의 일부이고 (나)는 「처용가」의 일부이다.

정답 해설 | '密只'는 '그스지(그옥이)'의 뜻으로, '密(밀)'은 '그옥하다'의 뜻을 빌려 읽어야 하고 부사 파생 접미사인 '只(지)'는 음을 빌려 읽어야 한다. '入伊'는 '드리'의 뜻으로, '入(입)'은 '들다'의 뜻을 빌려 읽어야 하고 부사 파생 접미사인 '伊(이)'는 음을 빌려 읽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善化公主'의 '主(주)'는 '선화 공주'로 풀이하였으므로 소리인 '주'로 읽어야 하지만 '主隱'의 '主(주)'는 '님'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② (가)의 '良(량)'은 어미 '어'로 읽고 있고 (나)의 '良(량)'은 조사 '애'로 읽고 있다. 이는 '良(량)'의 한자음이 현대 국어의 그것과 달랐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③ (가)의 '古(고)'는 연결 어미 '-고'로 읽고 있고 (나)의 '可'를 보면 연결 어미 '-다가'의 일부분인 '가'로 읽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와 (나)의 표기 방식 모두 향찰 표기로 우리말 문장을 전면적으로 표기하는 체계이다.

35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 서문」이다. 이 문헌에 나타난 음운론적 특징은 세종 당시에 쓰였던 'ㄸ, ㅃ, ㅍ, ㅈ, ㅊ, ㅌ' 등의 음운이 글자로 쓰였다는 점, 어두 자음군이 발음되었다는 점, 성조가 발음되었다는 점, 모

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는 점 등이 있다.

정답 해설 | <보기>에서 'ㅈ(여린히음)'은 '홍 배', '홍노미', '便便安한키', '홍짜르미니라'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중 '홍 배', '홍노미', '홍짜르미니라'에서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르'에 붙어 사용되었으나, '便便安한키'에서는 한자음의 초성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便便安한키'를 형태소 분석하면 '便便安한키-+-기'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키'와 '기'의 '기'이 축약이 일어나 '키'로 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쁘들'에서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스똥'과 '똥'에서 종성에서 'ㄷ'과 구별되는 음가를 지닌 'ㅅ'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中庭國'과 '百姓姓'이 종성은 'ㅇ(옛이음)'으로 발음이 되고, '文文字' 중의 'ㅇ'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원칙에 따라 초성, 중성, 종성을 맞추기 위해 음가 없는 'ㅇ'을 붙인 것이다.

36

정답 ①

보기 분석 | <보기>는 16세기의 국어 자료인 『번역노걸대』의 일부이다. 『번역노걸대』는 15세기의 국어 문헌들과 다르게 'ㅅ, ㅃ, ㅍ'이 쓰이지 않았으며, 끊어 적기도 종종 시도하고 있다. 반면 방점은 찍혀 있었으며 '△(반치음)'과 'ㅇ(옛이음)'은 15세기와 다름없이 사용되었다. 『번역노걸대』는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를 잇는 16세기의 국어 자료를 보여 줌으로써 국어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정답 해설 | 과거 시제로 해석되는 '비호니(배웠으니)', '비혼다(배웠는가)', '비호라(배웠다)', '닐고라(읽었다)'를 형태소 분석해 보면 각각 '비호+니', '비호+--니다', '비호+--라', '닐+--오+--라'로 분석된다. 모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중세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근대 국어에 들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답 해설 | ② '漢兒人(한아인)'의 '손·디'와 '손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인한테', '누구한테'로 해석되며, 이는 상대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볼 수 있다.

③ '·잇·다漢語(한어)닐·오·미잘·ㅎ·노·노'에서 설명 의문문의 종결 어미로 '노'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비·혼·다', '·이·력·ㅎ·논·다'에서 주어가 2인칭일 때 의문형 종결 어미로 '·니다'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비·호·니'를 통해 연결 어미 '-니'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고, '듣·줍·고', '못·고', 'ㅎ·고' 등을 통해 연결 어미 '-고'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blacklabel 특강 중세 국어의 시제 표시

중세 국어의 시제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 체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우선 동사의 경우 과거 시제는 아무런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상의 의미를 지닌 '-더-'를 사용하였다.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느-'를 사용하였다. 이 두 선어말 어미는 특수 선어말 어미 '-오-' 앞에서 '-다'와 '-노'로 변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리-'를 써서 표현하였다. 즉, 'ㅎ다' 또는 'ㅎ더라'는 과거 시제, 'ㅎ느다'는 현재 시제, 'ㅎ리라'는 미래 시제가 된다.

37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소학언해』의 일부로, 『소학언해』는 『소학』을 1586년에 학자들이 한국어로 언해한 책이다. 15세기에 제작된 훈민정음 이후 변화된, 16세기 말 한국어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우선 방점은 유지되고 있으나 표기 방법에 심한 혼란을 보인다. 그리고 'ㅇ'과 'ㅇ(옛이음)'의 구분이 흔들리며 더 이상 '△(반치음)'이 쓰이지 않고 있다. 또한 명사형으로 활용한 용언의 어미가 '-음/-모'로 실현된 예가 보이기도 한다.

정답 해설 | '흙(-ㅎ+--음-)', '비르소미오(비릇+--음+--이+--오)'에서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을 확인할 수 있고 '무춤이니라(뭇+--음+--이+--오)'

-니-+-라)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사형 전성 어미 ‘-기’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술흔(술ㅎ+은)’에서 ‘ㅎ’ 종성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혈워(혈--+우--+어)’에서 사동 접사 ‘-우-’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굴?샤디’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거시라’, ‘비르소미오’ 등에서 연철 표기를 확인할 수 있고, ‘굴?샤디’, ‘몸이 며’ 등을 비롯한 여러 표기에서 분철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38

정답 ④

보기 분석 <보기>는 1632년(인조 10년)에 출간된 『두시언해』 중간본에 수록된 두보의 시 「춘망」이다. 『두시언해』 중간본은 1481년(성종 12년)에 간행된 『두시언해』 초간본의 내용을 17세기 초엽의 국어로 그대로 옮긴 것으로, 초간본과 중간본의 시대적 격차인 150여년의 국어의 변화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 <보기>에서는 근대 국어의 특징 중 ‘·’의 동요, ‘모음 조화의 동요’, ‘△의 소실’, ‘거듭적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해설 ‘늪물물’, ‘석돌물’에서 거듭적기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적기 방식으로 쓴다면 ‘늪물물’, ‘석드물’로 써야 하고, 끊어적기 방식으로 쓴다면 ‘늪물을’, ‘석들을’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주격 조사 ‘가’의 출현이 근대 국어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②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근대 국어의 특징이지만 <보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③ ‘더르니’가 ‘저르니’가 되었다면 구개음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티다>치다’의 변화가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받침에서 ‘ㄷ’과 ‘ㅅ’을 혼용하는 것은 근대 국어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보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01 ③ 02 ③ 03 ⑤ 04 ① 05 ② 06 ⑤

01

정답 ③

정답 해설 ‘거시다’는 ‘누가 어디에 있다’의 문장 구조로 쓰이므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이고, ‘드리다’는 ‘누구에게 무엇을 드리다’의 문장 구조로 사용되므로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이 두 형태의 단어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각각 설명하는 것이므로 중세와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의 사례로 제시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은 ‘-습-’, ‘-줍-’, ‘-습-’을 통해 실현되었는데, 이 중 ‘-습-’은 어간 끝소리가 ‘ㄱ, ㅂ, ㅅ, ㅎ’인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빗습게’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②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중 ‘-샤-’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선어말 어미 ‘-오-’ 앞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미드오다’에 ‘-샤-’가 추가된 ‘미드샤오다(민으시다)’의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④ ‘호수부시고(하시고)’의 형태를 분석하면 ‘ㅎ--+습--+?--+시--+고’이므로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각각 찾을 수 있다.

⑤ ‘가고’에 선어말 어미 ‘-시-’가 포함된 ‘가시고’의 형태는 중세 국어나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법에서 모두 발견된다. ‘-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이다.

02

정답 ③

정답 해설 <자료>에 따르면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시-’와 ‘-샤-’로 나타나는데 ‘-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선어말 어미 ‘-오-’ 앞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료>는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모두 선어말 어미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②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들은 ‘-습-’, ‘-줍-’, ‘-습-’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습-’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어미와 결합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사용 분포가 균등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중세 국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중 ‘-샤-’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고, 객체 높임에서도 선어말 어미는 사라지고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고 하였다.

⑤ <자료>에 따르면 현대 국어에 비해 중세 국어의 높임의 대상의 폭이 넓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03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의 ‘한아비’와 ‘선비’는 문맥상 주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나 ‘가’와 같은 주격 조사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즉 주격 조사가 들어갈 자리이지만 모음으로 음절이 끝났기 때문에 표기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현대어 풀이에 ‘적에’로 표기되므로 이어쓰기가 나타난 것이다.

② 현대어 풀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옛적에’로 표기되었으나 (나)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③ (나)에는 방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가)에는 방점이 나타나 있다.

④ 현대어 풀이에 ‘마지’와 ‘전기선’으로 표기되므로 두 단어 모두 (가)와 (나)에서는 구개음화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04

정답 ①

정답 해설 | '부테'는 '부처'가 풀이되고 있으므로 이미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상태다. 그런데 여기에 관형격 조사를 붙여서 '부텨'이란 형태를 만든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관형격 조사가 결합했을 때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어두의 'ㄴ'에 모음 '이'가 결합되었으나 'ㄴ'이 탈락하지 않고 있으므로 ㉠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이다.

③ 현대어 풀이가 '부처의'이므로 '부터' 다음에 관형격 조사로 '의'가 아니라 'ㅅ'이 쓰였다.

④ 문장의 주어인 '야수'를 높이기 위해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없다.

⑤ 문장의 목적어인 '부터'를 높이기 위해 어간에 선어말 어미 '-습-'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5

정답 ②

정답 해설 | '쌍조(雙鵲)'는 한자어로 된 체언이지만,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것은 앞말이 '이' 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뒤에 나오는 '쌍작(雙鵲)'의 경우, 한자어로 된 체언이지만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古聖(古聖)'은 현대어로 '중국 옛 성왕들이 하신 일과'로 풀이되는 것으로 볼 때, 조사 '이'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의 '페니'에서 '페'는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모음 조화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ㅞ'는 양성 모음이므로 ㉠에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구개음화는 'ㄷ, ㅌ'이 'ㄴ'과 만나서 'ㄷ, ㄷ'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므로 ㉠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6

정답 ⑤

정답 해설 | 한글 창제 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 달라진 표기법상의 특징으로는 이어적기(연철)와 끊어적기(분철), 거듭적기(중철)가 있다. '굿업스시니'를 분석하면 '굿업(가없다, 끝없다)-+-으시-+-니'로 분석되므로 이를 끊어적기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시미'에서와 같이 체언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의 형태가 나타나고, '쇠울었다'와 같이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ㅣ'의 형태가 나타나고, '불휘'와 같이 'ㅣ'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형태가 없는 주격 조사 'ㅇ'이 나타난다. 따라서 '불휘'는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단지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다고 해야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

② 부사 '아니'가 동사 '필썌' 앞에 쓰였다.

③ '-르썌'는 연결 어미 '-므로'로 해석된다.

④ '정후샐'에는 높임 선어말 어미 '-샤-'가 쓰였다.



07 ⑤

08 ②

09 ①

10 ③

11 ②

12 ③

07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우리말 차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과 차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제망매가」 일부의 향찰 표기법을 분석한 것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선조들은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빌리는 방식을 취했다. 한자의 뜻을 버리고 음을 빌려 표기하는 방식을 '음차' 혹은 '음독 표기'라고 하며, 한자의 음을 버리고 뜻을 빌려 표기하는 방식을 '훈차' 혹은 '석독 표기'라고 한다. 대체로 우리말의 실질 형태소를 표기할 때에는 석독 표기 방식을, 형식 형태소를 표기할 때에는 음독 표기 방식을 취하였다.

간혹 현대 한자 독법으로는 해독이 되지 않는 차자 표기도 존재한다. 이는 남아 있는 차자 표기 자료들이 그 당시 우리말의 어휘를 그 당시의 한자음과 뜻을 통해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말의 문법과 음운 등이 변화하고, 동시에 한자를 읽는 방식 역시 변화했기에 현대에 와서 이를 해독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답 해설 | ㉠과 ㉡은 모두 한자의 음을 빌린 것으로 각각 '가느 낫고'에서의 'ㄴ-느-'와 'ㄴ-고'에 해당한다. 'ㄴ-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며, 'ㄴ-고'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두 형태소 모두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 해설 | ① ㉠과 ㉡은 한자의 뜻을 빌려 각각 명사 '나'와 동사 '가다'의 어간 '가-'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과 ㉡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② ㉢은 조사 '은'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빌려 썼으나, ㉣은 동사 '이르다'의 어간을 표현한 것이므로 한자의 뜻을 빌려 썼다.

③ ㉤은 명사 '말'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빌려 사용하였고, ㉥은 어미 '-니'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④ ㉦은 한자의 음을 빌려 써서 조사 '도'를 나타내었고, ㉧도 한자의 음을 빌려 써서 부사 '몹(몹)'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은 형식 형태소로 음을 빌려 쓴 경우이고, ㉧은 실질 형태소이나 음을 빌려 쓴 경우에 해당한다.

08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 1>은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표를 보여 주고 있고, <보기 2>는 훈민정음 초성자의 제자 원리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 2>에서 주목할 것은 조음 위치에 따른 글자의 분류이다. 현대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할 경우 훈민정음 문자 체계와 차이를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ㅅ소리이다. 현대 국어 자음 체계는 훈민정음 문자 체계의 ㅅ소리 'ㄴ, ㄷ, ㅌ, ㄹ'과 ㅅ소리 'ㅅ'이 ㅅ소리로 함께 묶인다. 또한 ㅅ소리 'ㅅ, ㅆ'은 섣입천장소리로 구분된다. 하지만 훈민정음 초성자 체계에서 'ㅅ'이 'ㄴ, ㄷ, ㅌ, ㄹ'과 구분되고, 'ㅅ, ㅆ'과 함께 엮인다는 것은 15세기 당시 우리말 자음 체계에서 이들 음운들의 조음 위치가 오늘날과 달랐음을 의미한다. 즉, 15세기 'ㅅ, ㅆ, ㅅ, ㅅ'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ㅅ소리로 오늘날과 음운의 특징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정답 해설 | <보기 2>를 보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 'ㅅ'은 'ㅅ'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치음이었다. 그러나 <보기 1>의 'ㅅ'은 섣입천장소리로 15세기 'ㅅ'과 음성적으로 구분되는 차이를 지닌다.

오답 해설 | ① 현대 국어의 'ㅇ'은 초성에서는 발음되지 않고 종성에서만 여린입천장에서 비음으로 발음되는 음운이다.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ㅇ'은 오늘날 'ㅇ'과 표기는 같으나 목청에서 발음되는 음이라는 점에서 조음 위치가 다르다. 당시 'ㅇ'은 'ㅎ'보다 약하게 발음되는 음으로, 초성 자리에서도 음가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 국어의 'ㅇ' 표기는 근대 국어 시기로 접어들며 목청소리 'ㅇ'이 지칭하는 음운과 어금닛소리의 이체자인 'ㅇ(옛이응)'의 표기가 각각 소멸되고 'ㅇ'의 소리가 'ㅇ'의 표기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 ③ 훈민정음 제자해에 따르면 이체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도(가획) 소리의 세기가 세지지 않는 글자들을 의미한다. 이는 곧 기본자와 조음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는 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ㄹ’은 올림소리이나 유음이라는 점에서 올림소리이면서 비음인 ‘ㄴ’과 차이를 보인다. 이에 ‘ㄹ’이 가획자 ‘ㄷ, ㅌ’과 달리 올림소리인 점은 맞으나 그 이유 때문에 이체자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같은 올림소리인 ‘ㄴ, ㄷ, ㅌ’은 기본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 ④ ‘ㄷ(반치음)’의 표기와 음운, ‘ㅇ’의 표기는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ㅇ’의 음운은 오늘날에도 ‘ㅇ’의 음가(여린입천장소리/비음)로 남아 있다.
- ⑤ 훈민정음 제자해에 따르면 가획의 원리는 기본자에 획을 더할 경우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때 ‘소리의 세기’라는 것은 오늘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에서처럼 입 밖으로 나오는 기류의 양이나 조음기관의 긴장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 여부 등과 같은 다른 기준을 함께 뭉뚱그려 표현하는 말이다. 실제로 가획자 중 ‘ㄷ, ㅌ, ㅈ, ㅊ’ 등은 오늘날의 예사소리에 해당하는 음운들인데 이들은 각각의 기본자들과 다른 이유에서 조음 방법의 차이를 보인다.

09

정답 ①

보기 분석 | 〈보기〉는 「용비어천가」 원문 및 현대어 해석 자료로 제1장, 제2장, 제125장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 해설 | ‘도코’는 오늘날의 ‘종교’에 대응되는 말이다. ‘도코’의 어간 ‘동-’이 오늘날의 어간 ‘종-’으로 바뀐 것은 ‘ㄷ’이 ‘ㄴ’ 모음 앞에서 경구개음 ‘ㅈ’으로 바뀐 구개음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당시 ‘도코’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은 아직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오답 해설 | ② ‘古聖(고성)’은 현대어 풀이에서 알 수 있듯 ‘고성과(옛 성인들과)’와 대응된다. 즉, 조사 ‘이’는 비교의 부사격 조사 ‘와/과’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 시기 ‘이’는 현대와 달리 주격 조사 외에도 비교의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에서도 그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불휘’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중세 국어 시기 주격 조사는 선행하는 체언의 모음에 따라 ‘이/ㅣ/∅(생략)’의 3가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③ ‘구드시리이다’는 ‘굳-+-(-으)시-+-리-+-이-+-다’의 형태로 분석되며 이때 ‘-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이다. 이는 현대의 주체 높임 방식과 동일하다. ‘님금하’에서 ‘하’는 호격 조사의 높임말로 오늘날의 호격 조사 ‘이시여’에 해당한다. 이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에 해당하는 것이다.

④ ‘남근’은 ‘남+은’으로, ‘므른’은 ‘믈+은’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보조사의 형태가 ‘은’과 ‘은’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이는 모음 조화를 고려해 보조사가 붙는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이나에 따라 조사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중세 국어 시기에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 앞말의 모음의 성격에 따라 형태가 교체된다. 하지만 모음 조화가 많이 파괴된 현대 국어의 경우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른 형태 교체만 남아 있고, 모음 조화를 고려한 형태 교체는 남아 있지 않다.

⑤ ‘바루래’는 ‘바를+에’로, ‘北(북)’에는 ‘北(북)+에’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애’나 ‘에’는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애’와 ‘에’의 형태 교체는 모음 조화를 고려해 이들 앞에 놓인 체언의 모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동일한 의미의 현대 국어 ‘에’는 형태 교체를 하지 않는다.

10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중세 국어의 관형어와 부사어가 쓰인 예시들을 보여 주고 있다. (가)는 관형사형이 사용된 예시이고 (나)는 관형사와 관형사형이 쓰인 예시이다. (다), (라) (마)는 부사격 조사가 쓰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는 예이다.

정답 해설 | ‘남기 때여 性命을 못주시니’의 ‘남기’는 ‘ㄴ’ 덧생김 현상을 보여 주는 특수 체언 ‘나모’에, 부사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나무에’라는 처소를 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가 관형격 조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늘근 놀근 브륵 사루미 있느니’의 ‘늘근 놀근 브륵’은 현대어 풀이 ‘늘고 낡은 부릴’에 대응되는 관형사 구로, 중세 국어에서는 용언이 병렬될

때 대등적 연결 어미 대신 관형사형 어미가 나타나는 일이 많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이 곧 혼 어린 사루미 구즌 길헤 떠디여’의 ‘이’는 지시 관형사이고, ‘곧 혼’은 관형사형으로 현대 국어의 ‘같이’가 쓰이는 환경이다. 즉, 관형사와 관형사형이 나란히 놓일 때는 지시 관형사가 앞서 나온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④ ‘나랏 말싸미 中國에 달아’는 중국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말이 다르다는 뜻으로, 중세 국어에는 기준으 표시할 때 낙착점 처소를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웃사롭두고 더은 양호야’는 현대 국어 ‘웃사람보다 더한 양호여’에 대응되므로, 차등 비교에 해당하며 ‘두고’는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 ‘보다’에 해당한다.

11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는 중세 국어의 불규칙 용언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도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이 존재하는데, 오늘날의 용언과 활용 양상이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예문들은 중세 국어의 불규칙 용언들이 자음 어미와 모음 어미 앞에서 각각 결합했을 때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제시된 것들이다. 불규칙 용언들은 모음 어미 앞에서 형태가 변화하는데, 중세 국어 시기 주된 표기법이 이어적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이들 용언들의 불규칙 활용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좁가 두고’의 경우 연결 표기를 고려하면 ‘좁-+-아+두-+-고’로 분석할 수 있다. 곧 ‘조ㅁ다’가 모음 어미와 결합하였을 때, 어간의 ‘ㅁ’가 줄어들면서 ‘ㄱ’이 덧생기는 어간의 형태 변화가 일어난다. 반면, 현대 국어의 ‘잠그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ㄴ’만 탈락하여 ‘잠가’와 같은 형태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모음 앞에서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양상이 현대 국어와 동일하다는 진술은 틀린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우셔서는’은 ‘우-+-어’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 시기 ‘웃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받침 ‘ㅅ’이 ‘ㄷ(반치음)’으로 교체된다. 이는 모음 어미 앞에서는 형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현대의 ‘웃다’와 차이 나는 점이다.

③ ‘주셔’는 ‘주-+-어’로 분석할 수 있다. ‘웃다’는 모음 어미 앞에서 받침 ‘ㅅ’이 ‘ㄷ(반치음)’으로 교체되는 형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대응되는 현대의 ‘좁다’는 ‘주위’와 같이 모음 어미 앞에서 받침 ‘ㅁ’이 ‘우’로 교체된다.

④ ‘달아’는 ‘달ㅁ-+-아’로 분석할 수 있다. 곧 ‘다르다’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 ‘다르-’의 ‘ㅁ’가 탈락하고 음운 ‘ㅇ’이 첨가되는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현대의 ‘다르다’ 역시 ‘달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ㄴ’이 탈락하고 ‘ㄹ’이 덧생기는 형태 변화를 일으킨다.

⑤ ‘니르러’는 ‘니를-+-어’로 분석할 수 있다. 어간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현대의 ‘이르다’도 마찬가지이다. ‘이르러’로 활용될 때 어간은 바뀌지 않지만, 어미 ‘-어’ 대신 ‘-러’가 온다. 반면, ‘니를다’는 어미 ‘어’가 그대로 쓰인다.

12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국어에 남아 있는 ‘화석형’에 대한 설명이다. 화석형이란 과거에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언어의 흔적이 오늘날 단어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화석형을 나타내는 단어는 그 화석형의 존재를 현재의 언어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는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언어가 오랜 세월 변화가 집약된 결과물임을 의미한다.

정답 해설 | 중세 국어 시기 존재했던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화석형으로 남아 있는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팍(안+밖)’, ‘머리카락(머리+가락)’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현대의 형태소끼리 결합했을 때 거센소리가 될 이유가 없음에도 단어 형성 과정에서 거센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안’, ‘머리’ 등의 단어가 과거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던 체언이기 때문이다. 예문에 나타나는 ‘암ㅎ, 수ㅎ’ 등이 바로 그런 사례로, 오늘날 단독으로 쓰일 때는 종성의 ‘ㅎ’이 사라진 채 ‘암, 수’의 형태를 띤다. 하지만 이들이 복합어의 어근으로 쓰인 경우 현재 탈락

한 ‘ㅎ’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암탉’과 ‘수탉’이 그 예이다. 하지만 ‘갈치’의 경우 ‘ㅎ’이 살아나 거센소리가 나타나는 예는 아니다. ‘갈’이라는 중세 국어 시기 형태를 보이긴 하지만 뒤에 붙는 ‘-치’는 생선을 의미하는 접미사이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 자료에서 나타나듯 현대 국어 ‘이(齒)’는 ‘니’로, 현대어 ‘입(葉)’은 ‘님’으로 과거에 쓰였다. 오늘날 이들이 ‘이’, ‘입’으로 쓰이는 것은, 근대 국어 시기 진행된 구개음화의 영향으로 어두의 구개음화된 ‘ㄴ’이 탈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합성어의 어근으로 쓰일 때 탈락했던 ‘ㄴ’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송곳니’의 경우 원래 ‘송곳+이’의 구조를 가진 단어이지만 현실 발음에서 대중들이 과거의 형태인 ‘니’로 발음하기에 표기를 ‘송곳니’로 삼은 경우이다. 곧, 화석형 ‘ㄴ’의 첨가를 표기로까지 인정한 것이다. ‘나뭇잎’의 경우 발음 과정에서 ‘ㄴ ㄴ’이 첨가되는데 중세 국어 시기까지 이 단어의 형태는 ‘나뭇닐’이었기 때문이다. 구개음화로 인해 두음 ‘ㄴ’이 탈락하기 이전부터 합성어로 존재했기에 실제 사람들의 발음은 [나문님]으로 굳어진 것이고, ‘닐’의 두음 ‘ㄴ’이 표기에서 탈락한 후에도 발음은 ‘ㄴ’을 첨가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②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듯 현대어 ‘쓸다’는 중세 국어에서 ‘뿔다’의 형태를, 현대어 ‘뿔’은 중세 국어에서 ‘뿔’의 형태를 지닌다. 곧, 이들은 중세 국어 시기 어두 자음군을 가지고 있던 단어들로, 근대 국어를 거치며 어두 자음군이 소멸하고 ‘ㅅ’으로 초성이 바뀌게 된다. 하지만 단어 합성 과정에서는 어두 자음군의 일부인 ‘ㅂ’이 되살아난 것이다. ‘휩쓸다’는 본디 ‘휩+쓸다’의 구조이고, ‘찰쌀’ 역시 ‘찰+쌀’의 구조이다. ‘ㅂ’이 끼어들 이유가 없음에도 ‘ㅂ’이 덧생기는 것은 화석형의 존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④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듯, 현대 국어 ‘이튿날’의 과거 표기는 ‘이툼날’이었다. 이때 ‘ㅅ’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형격 조사로서 쓰임을 가진다. 근대 국어 시기를 거치며 이 ‘ㅅ’의 발음이 ‘ㄷ’으로 바뀌고 동시에 관형격 조사 ‘ㅅ’이 소멸하였는데, 그 발음이 몇몇 단어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튿날’, ‘술가락’, ‘반진고리’ 등과 같이 ‘ㄷ’ 받침을 가진 단어들이다. 이들은 각각 ‘이툼+날’, ‘술+가락’, ‘바느질+고리’의 구조를 가지는데,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들이 하나의 구로 인식되어 앞 단어와 뒤 단어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끼어들어 있었다. 그 화석형이 여전히 남아 있기에 원래 형태소의 받침 ‘ㄷ’이 쓰이지 못하고 ‘ㄷ’이 나타난 것이다.

⑤ 중세 국어 시기 주격 조사 ‘ㅣ’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그런데 근대 국어 시기로 접어들며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결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체언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형태 뒤에 다시 주격 조사 ‘가’가 붙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유는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형태가 대중들이 보기에는 뚜렷해 보이지 않기 때문었다. 이 대표적 사례들이 바로 대명사 ‘나, 너’이다. 현대 국어에서 체언은 형태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불변어나 대명사에 한해 형태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 국어 시기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된 형태 뒤에 다시 주격 조사 ‘가’를 덧붙이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V. 복합

STEP A 1등급 도전문제

01 ③ 02 ③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9 ②

01

정답 ③

정답 해설 ‘이르다’의 ㉠은 잘못을 잊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한다는 의미인데, 용례로 제시한 ‘네 엄마에게 손님이 한 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일러라.’에는 ‘잘못’을 말한다는 의미가 없으므로 적절한 용례라 할 수 없다. 여기서 사용된 ‘이르다’는 ‘이르다’의 ㉡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 해설 ① ‘이르다’는 동사, ‘이르다’는 형용사이므로 기능상 용언이지만, 의미상 품사는 서로 다르다.

② ‘이르다’의 ㉠은 【…에게 …을, …에게 -고】로 보아, 주어 외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술어이다. 그리고 ‘이르다’의 ㉠은 【…에】로 보아, 주어 외 부사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이르다’의 ㉠이 ‘이르다’의 ㉡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더 많다.

④ ‘이르다’의 [이르리]를 통해 ‘리’ 불규칙임을, ‘이르다’의 [일리]를 통해 ‘르’ 불규칙임을 알 수 있다.

⑤ ‘이르다’라는 형태는 같으나, 의미상 관련이 없어 별개의 표제어로 사전에 올랐으므로, ‘이르다’와 ‘이르다’는 동음이의어이다.

02

정답 ③

정답 해설 ㄱ.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에서 ‘ㅼ’는 [ㅼ]로 발음해야 하므로 ‘송례문’의 로마자 표기에서 이중 모음은 ‘ye’로 표기해야 한다.

ㄴ.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4에서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 발음도 허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충의사’의 ‘의’는 [ㅣ]로도 발음되나 로마자 표기법 [붙임 1]의 ‘ㄴ’은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충의사’의 ‘의’ (이중 모음)는 ‘ui’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ㄴ. ‘광희문’의 ‘희’는 [히]로 발음해야 하지만 로마자 표기법의 [붙임 1]에서 ‘ㄴ’은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광희문’의 ‘ㄴ’은 로마자 표기에서 이중 모음은 ‘ui’로 표기해야 한다.

ㄷ. ‘퇴계원’에서 ‘계’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2에서 ‘예, 례’ 이외의 ‘ㅼ’는 [ㅼ]로도 발음한다고 했으니 [계]와 [계] 모두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계]로만 발음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덧붙여, 퇴계원의 로마자 표기에서 이중 모음은 ‘ye’와 ‘e’ 모두 가능하다.

03

정답 ④

정답 해설 ‘달다’는 문형 정보 【…에 …을】를 통해서 ‘주어’ 외에 필수 성분으로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달다’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달다’는 ‘달다’와 달리 3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라는 탐구는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달다’는 하위에 있는 ‘1’과 ‘2’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유의어’가 아닌 ‘다의어’에 해당한다.

② ‘본문에 각주를 달다.’에서 각주는 책의 구성 요소이므로 물건을 어딘가에 붙인다는 의미인 ‘달다’의 ‘2’의 용례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③ ‘달다’와 ‘달다²’는 모두 연결 어미 ‘-니’와 결합하면 ‘ㄹ’ 탈락이 일어나 ‘다니’가 된다는 문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ㄹ’ 탈락은 보편적인 음운 현상으로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 ⑤ ‘달다²’는 형용사, ‘달다’는 동사로 각기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고 있다.

04

정답 ⑤

정답 해설 | ㄹ의 ‘나는 과거에 모범생이 아니었다.’에 쓰인 ‘-었-’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그리고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였다.’의 ‘-였-’은 ‘먹-+ -이-(사동 접사)+-었-(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다’의 ‘-이-’와 ‘-었-’이 축약된 것이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었-’이 쓰인 것이다. 따라서 ㄹ의 ‘-었-’과 ‘-였-’은 특정 형태소와 어울릴 때에만 형태를 달리하는 ‘형태론적 이형태’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붓다’와 ‘씻다’를 비교해 볼 때, ‘붓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어간 ‘붓-’의 받침 ‘ㅅ’이 탈락하여 ‘부어라’와 같이 활용한다. 반면 ‘씻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어간 ‘씻-’의 형태 그대로 결합하여 ‘씻어라’와 같이 활용한다. 따라서 ‘부어라, 붓고, 붓느냐’의 어간 ‘부-/붓-’은 단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특정 환경에서 형태를 달리하는 이형태로 볼 수 있으며, 형태가 달라지는 조건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② 명령형 어미 ‘-어라’는 ‘먹어라’와 같이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이와 달리 ‘-너라’는 어간이 ‘오-’일 때에만 나타나므로, ‘-어라’와 ‘-너라’는 형태가 달라지는 조건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③ ‘-기-’와 ‘-추-’는 모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거나, 각각 일부 동사 어간에만 붙는다. 따라서 ‘-기-’와 ‘-추-’는 형태가 달라지는 조건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론적 이형태이다.

④ ‘어디로’와 ‘집으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서울로’와 같이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는 조사이다. 반면 ‘으로’는 ‘로’와 의미가 같으나,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는 조사이다. 두 형태가 실현되는 조건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로’와 ‘으로’는 음운론적 이형태이다.

05

정답 ④

정답 해설 | (가)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문장이다. ‘결코’는 부정어와 호응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처럼 수정해야 한다. (마)도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문장이다. ‘~점은 ~것이다’와 같이 호응하므로, (마)의 문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처럼 수정해야 한다.

(나)는 중의적인 문장이다. 모임에 친구들이 전부 오지 않았는지, 일부가 오지 않았는지가 모호하여 중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는 ‘모임에 친구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처럼 수정해서 중의성을 해소해야 한다. (다)도 중의성을 가진 문장이다. 포수들이 합쳐서 세 마리를 잡은 것인지, 각각 세 마리씩을 잡은 것인지가 모호하므로, ‘포수들이 각각 삼새 세 마리를 잡았다.’처럼 수정하여 중의성을 해소해야 한다.

(라)는 조사 사용이 잘못된 문장이다. 무정 명사인 ‘일본’에 유정 명사에 붙는 조사 ‘에게’를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조사를 수정해서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처럼 바꿔야 한다.

06

정답 ⑤

정답 해설 | ‘아직도 할 일도 많이 남아 있고, 그때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는 조사와 어미의 사용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두 군데를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 문장에서는 조사만 수정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이 문장은 두 개의 절이 이어져 있는데 선행절과 후행절이 맥락상 인과 관계로 이어져야 하므로 대등 연결 어미 ‘-고’가 아니고 인과 관계로 이어지는 연결 어미 ‘-어’가 사용되어 ‘아직도 할 일

이 많이 남아 있어, 그때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처럼 수정되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우리의 연구 계획이 선정되어졌다.’에서 ‘선정되어졌다’는 이중 피동이 사용된 표현이므로, ‘우리의 연구 계획이 선정되었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나는 오늘 빵과 우유를 마셨다.’에서 서술어 ‘마셨다’가 빵, 우유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나는 오늘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좋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소개시켜 줘.’에서 ‘소개시켜’가 이중 사동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좋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줘.’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이곳에서는 반드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에서 부사어 ‘반드시’가 부정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이곳에서는 절대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07

정답 ③

정답 해설 | 우리말의 통사 구조상 용언의 어간에 체언이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나, ‘뜬소문, 어린이, 건널목’은 모두,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 체언’으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blacklabel 특강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 따른 합성어의 종류

용언의 어간에는 반드시 어미가 결합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 순서이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할 수 있다.

예 오르고내리다(통사적 합성어) ↔ 오르내리다(비통사적 합성어)

08

정답 ④

정답 해설 | ⑤ 용언의 어간 ‘자르-’에 어미 ‘-아’가 결합하였을 때 어간의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자르아’로 적지 않고 ‘잘라’로 적는다. 이는 ‘자르다’의 활용형에서 어간 ‘자르-’가 원래 형태에서 벗어나 ‘잘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적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에 해당되므로 ⑤에 해당한다. ‘불리’도 마찬가지이다.

⑥ ‘바가지, 지붕’은 각각 ‘박+ -아지’와 ‘집+ -을’에서 나온 말인데, 이들은 ‘박아지, 집을’으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바가지, 지붕’으로 적는다. 따라서 파생된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은 것으로 볼 때, ⑤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④ ‘좋아, 낱아’는 [조아], [나아]처럼 음운이 탈락하는 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모두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밝혀 적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좋아, 낱아’는 ‘ㅎ’ 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었으므로 ④에 해당한다.

④ ‘노인(老人), 원로(元老)’ 중 ‘노인’은 어두 자음에 끼리는 음을 피해서 소리 내는 두음 법칙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고, ‘원로’는 원래 한자음 ‘로(老)’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두 단어 모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이므로 ⑤에 해당한다.

09

정답 ②

정답 해설 | ‘갯이랑’과 ‘갯난로’를 분석해서 <보기 1>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갯이랑’은 ‘갯+이랑’의 합성어이다. 여기에 제29항을 적용해 보면, 앞 단어의 끝자음(‘갯’의 ‘ㅅ → ㄷ’)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이므로 ‘ㄴ’ 소리를 첨가하여 [갯나랑]으로, 다시 18항을 적용하여 [갯나랑]으로 발음해야 한다. ‘갯난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갯난로]로, 여기에 제20항을 적용해서 [갯날로], 다시 18항을 적용해서 [갯날로]로 발음해야 한다.

10

정답 ④

정답 해설 | ‘bus’를 적을 때 ‘버스’로 적어야 할까, ‘뽀스’로 적어야 할까?라는 질문은 외래어 표기에서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의 기본 원칙’ 중 제4항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이 원칙에 의해서 된소리 ‘뽀스’가 아니라 ‘버스’로 적어야 한다. ‘rocket’의 발음 [t]를 받침으로 표기할 때, ‘ㄷ’, ‘ㅅ’, ‘ㅈ’ 중 무엇으로 적어야 할까?라는 질문은 받침과 관련된 외래어 표기 규정이므로,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의 기본 원칙’ 중 제3항에 따라 ‘ㅅ’으로 표기해야 한다. ‘[t]를 왜 ‘ㅎ’이 아닌 ‘ㅍ’으로만 표기해야 할까?’라는 질문은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11

정답 ②

정답 해설 | ‘진행 중에 있다.’의 부정 표현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혹은 중단되었다.’ 등으로 쓴다. ‘있다’의 부정어로 ‘없다’를 쓰기 위해서는 ‘있다’가 소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행 중에 있다.’의 ‘있다’는 소유의 의미가 없으므로 ‘현재 진행 중에 없다.’는 표현은 어색한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① ㄱ의 ‘말다’의 부정어 ‘끝다’를 통해서 반의 관계를 만들었으므로 적절하다. 문장 흐름을 고려해서 ‘뒤’를 반의어인 ‘앞’이라는 어휘로 교체했다.

③ ㄷ의 ‘맑다’의 반의어 ‘흐리다’라는 어휘의 교체를 통해서도 반의 관계의 문장을 만들 수 있고, ③처럼 ‘안 부정문’을 사용하여 ‘호수의 물이 맑지 않다.’로 바꿀 수도 있다.

④ ㄹ의 능동문인 ‘호랑이가 사슴을 물었다.’를 피동문인 ‘사슴이 호랑이에게 물렸다.’로 써서 유의 관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⑤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 ‘귀가 얇다’를 통해서 ㄹ과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2

정답 ①

정답 해설 | ‘나는 할머니의 안부를 어머니께 여쭙었다.’는 ‘나는’이 주어고 ‘여쭙다’가 서술어인 홀문장이고, 객체인 ‘어머니’를 조사 ‘께’와 ‘여쭙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높이고 있으며, 문장의 체언 ‘안부’를 수식하는 관형어 ‘할머니의’가 있고, 필수 부사어 ‘어머니께’가 있다.

오답 해설 | ② 객체를 높이는 단어인 ‘께’, ‘드렸다’와 필수 부사어 ‘어머니께’는 있지만, ‘꽃이 향기가 좋다.’가 ‘영수가 꽃을 어머니께 드렸다.’에 안긴 겹문장이다.

③ ‘가신다’는 객체가 아닌 주체를 높이는 어휘이다. 문장 또한 홀문장이 아니고 겹문장(날씨가 좋다. + 아버지께서는 그 산에 가신다.)이다.

④ 홀문장이지만, 객체를 높이는 단어가 없다. 관형어 ‘새’와 필수 부사어 ‘손자들에게’는 있다.

⑤ 홀문장이 아닌 겹문장(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많으시다. + 할아버지께서는 고기를 잘 잡수신다.)이며, 객체를 높이는 어휘도 없다. 관형어 ‘많은’은 있지만 필수 부사어는 없다.

13

정답 ②

정답 해설 | <보기>의 탐구 단계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ㄷ’이 ‘ㄴ’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ㄴ’이 어간 받침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기다’는 ‘안다’의 사동사로 용언의 어간이 사동 접사를 포함한 ‘안기-’이므로 ‘ㄴ’은 용언의 어간 받침이 아니다. 따라서 ‘안기다’는 표준 발음의 된소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베개를 꼭 껴안고 있었다.’에서 ‘껴안고’는 용언의 어간이 ‘껴안-’으로 받침에 ‘ㄴ’이 있고,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가 ‘ㄱ’이므로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벽을 더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와라.’에서 ‘더듬지’는 용언의 어간이 ‘더듬-’으로 받침이 ‘ㄹ’이고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ㅈ’이므로,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반가움에 신도 벗고 뛰어갔다.’에서 ‘신도’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므로 용언의 어간에 해당하는 된소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땀물에 녹두를 간다.’에서 ‘간다’는 기본형이 ‘갈다’이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4

정답 ④

정답 해설 | ‘좋다’는 활용할 때 ‘좋고[조코], 좋지[조치]’와 같이 음운 축약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아[조아], 좋으니[조으니]’와 같이 음운 탈락이 일어나기도 한다. ‘짓다’는 ‘짓고[질코], 짓지[질찌]’와 같이 음운 교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어[지어], 지으니[지으니]’와 같이 음운 탈락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공통점은 ‘음운 탈락’이다. 활용의 유형을 보면 ‘좋다’는 다른 ‘ㅎ’을 받침으로 갖는 용언과 같이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ㅎ’이 탈락하고,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축약되므로 규칙 활용이고, ‘짓다’는 ‘웃다’와 달리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형태 변화가 있으므로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좋다’는 규칙 활용의 유형 ㉠과 ㉡ 중 하나인데, ‘좋다’의 활용형 ‘좋고[조코], 좋으니[조으니]’를 보면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에 들어갈 유형은 ㉢이다. 그리고 ‘짓다’의 활용형 ‘지어[지어]’를 보니, 불규칙 활용으로 표기에 발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 들어갈 유형은 ㉣이다.

15

정답 ②

정답 해설 | ‘문제는 그들이 잠을 많이 잔다.’를 ‘문제는 그들이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이다.’로 수정한 것은 필수 문장 성분이 빠져서 수정한 것이 아니라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아 서술어를 수정한 것이므로 적절한 검토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조사 ‘치고’는 ‘그중에서는 예외적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어색하다. 따라서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의미를 가진 접사 ‘-답다’를 결합한 ‘그는 축구선수답게 공을 잘 찬다.’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손님’을 높여라 ‘커피’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를 ‘손님,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④ ‘않았다’는 부정의 범위가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중의성을 갖는 문장인데, 보조사 ‘는’을 사용하면 부정의 범위가 일부로만 국한되므로 중의성이 해소된다.

⑤ 부사어인 ‘결코’는 부정 서술어와 호응하므로 문장 성분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아 서술어를 ‘아니었다’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16

정답 ④

정답 해설 | ‘하다, 출렁거리다’는 동사, ‘아름답다’는 형용사인데, 동사든 형용사든 [B]의 장형 부정문에서 모두 문법적으로 비문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를 보니 용언의 품사에 따라 장형 부정문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탐구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A]의 ㉠의 두 사례 중 ‘안’ 부정문은 의미상 동작주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어 ‘의지’ 부정문이고, ‘못’ 부정문은 의미상 그 능력이나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능력’ 부정문이다.

② [A]의 ㉡에서 ‘하다’가 동사인 데 못 부정문이 문법적으로 가능하고, ㉢은 ‘아름답다’가 형용사인 데 못 부정문일 때 비문이므로, 형용사로는 ‘못’을 이용한 단형 부정문을 만들지 못한다는 탐구는 적절하다.

③ [A]의 ㉣에서 ‘출렁거리다’는 동사인 데, ‘못’이란 부정 부사를 사용한 경우 비문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부정 부사로 부정문을 만들지 못하는 동사가 있다는 탐구는 적절하다.

⑤ [A]~[C]의 ㉠을 볼 때, 부정 명령문 ‘-지 마라’는 장형 부정문 형식인 ‘-지 않다, -지 못하다’와 유사하므로 그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탐구는 적절하다.

blacklabel 특강 부정문의 종류

문장의 내용을 의미적으로 부정하는 방법이 문법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이를 ‘부정법’이라 한다. 부정법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용언 앞에 부정 부사 ‘안’과 ‘못’을 놓아 만드는 단형 부정문과 용언 뒤에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를 놓아 만드는 장형 부정문이 있다.

17

정답 ⑤

정답 해설 ‘사랑스럽다’는 어근 ‘사랑’과 -스럽-(=스릅-: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에 문장을 종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종결 어미 ‘-다’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의 형태소로 되었지만 용언의 어간 ‘사랑스럽-’에 어미 ‘-다’가 결합한 ‘사랑스럽다’는 전체가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가 된다.

오답 해설 ① ㉠의 ‘눈빛이’는 명사(체언)와 조사의 결합이므로 2개의 단어(눈빛, 이)로 이루어져 있다.

② ㉢의 ‘초롱초롱’은 부사로 1개의 단어이다.

③ ㉣의 ‘반짝거리는’은 동사로 1개의 단어이다.

④ ㉡ ‘어린이들이’는 형태소가 ‘어리-(어간), -ㄴ(관형사형 어미), 이(의존 명사), 들(접사), 이(조사)’로 5개이다.

18

정답 ⑤

정답 해설 ‘묻히다’ 2와 ‘묻다’ 2는 의미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단어이다. 따라서 이들을 유의어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묻다’은 [묻어, 묻으니, 묻는]이란 활용 정보를 통해 기본 형태의 변화가 없는 규칙 활용이고, ‘묻다’는 [묻어, 묻으니, 묻고]란 활용 정보를 통해 기본 형태에 변화가 있는 ‘ㄷ’ 불규칙 활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묻다’과 달리 ‘묻다’는 어미와 결합할 때 기본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② ‘묻다’ 1의 ‘주어’는 능동문에서의 주어이고, 피동사 ‘묻히다’ 1이 쓰인 문장에서는 부사어로 바뀐다. (예: 사냥꾼이 토끼를 묻다 → 토끼가 사냥꾼에게 묻히다.)

③ ‘묻히다’은 뜻이 두 개 이상이므로 다의어이다.

④ ‘묻다’과 ‘묻다’의 1은 형태는 같으나 의미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어이다.

STEP A 1등급 도전문제					
19 ③	20 ③	21 ②	22 ⑤	23 ④	24 ③
25 ④	26 ⑤	27 ①	28 ③	29 ③	

19

정답 ③

보기 분석 합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음의 탈락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유음 탈락이 일어나는 이유는 유음 ‘ㄹ’이 조음 위치로 보면 다른 잇몸소리(ㄷ, ㄱ)와 조음 위치가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정답 해설 ㄴ의 ‘술+나무’는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잇몸소리 ‘ㄴ’ 앞에서 유음 ‘ㄹ’이 탈락하고 있다. ㄷ의 ‘달+달+이’는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잇몸소리 ‘ㄷ’ 앞에서 유음 ‘ㄹ’이 탈락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ㄱ. 유음화 현상으로 ‘ㄹ’의 탈락과는 상관이 없다.

ㄷ. 유음 ‘ㄹ’이 탈락하고 있지만 합성어가 아니므로 적절한 예가 아니다.

ㄴ. 구개음화 현상으로, 유음의 탈락과는 상관이 없다.

blacklabel 특강 ‘ㄹ’ 탈락

‘ㄹ’ 탈락은 조음 위치가 ‘ㄹ’과 같은 잇몸소리(치조음)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일종의 이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ㄷ’은 현대 국어에서는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로 ‘ㄹ’과 조음 위치가 다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잇몸소리(치조음)’였다.

20

정답 ③

정답 해설 ‘고다’는 고기나 뼈 따위를 무르거나 진액이 빠지도록 끓는 물에 푹 삶는 것을 이르는 동사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제 활용형은 ‘고느’이 맞다. ‘발치다’는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나 야채 따위를 올려 물기를 빼는 것을 이르는 동사이다.

오답 해설 ① ‘얹히다’는 ‘얹다’의 사동사이다. 문맥상 ‘밥, 떡,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린다.’의 의미인 ‘안치고’로 고쳐 써야 한다.

② ‘벌어서’가 아니라 ‘벌려서’로 고쳐야 한다.

④ ‘때로는’과 ‘의지하기도’ 사이에 부사어 ‘사람에게’가 누락되어 있다.

⑤ ‘놀래다’는 ‘놀라다’의 사동사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놀랄’로 고쳐 써야 한다. ‘삼가하다’는 비표준어로 ‘삼가다’가 기본형이다. 따라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blacklabel 특강 비문 파악하기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 문장의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즉 단어의 측면에서는 단어 사용의 적절성, 의미의 중복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문장의 측면에서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장 성분의 중복 혹은 생략, 피동·사동 표현의 적절성, 시제의 적절성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1

정답 ②

보기 분석 한글 맞춤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ㄱ과 ㄷ은 표음주의 원칙에 따른 규정이고, ㄴ과 ㄹ은 표의주의 원칙에 따른 규정이다.

정답 해설 ㄴ은 구개음화라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소리가 달라지더라도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원형을 밝혀 적으라는 규정이다.

오답 해설 ① 우리말의 단어 구조에 대한 음운론적 제약 중에 어두에서 ‘이’나

반모음 ‘ㅣ’ 앞에 ‘ㄴ’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어두에서 ‘ㄴ’이 탈락하게 되는데 ㄱ은 바로 이러한 음운론적 제약의 위반에 따른 음운의 탈락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규정으로, 두음 법칙과 관련있다.

③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용언의 활용형의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ㄹ’이 탈락하는 경우, ‘ㅅ’ 불규칙, ‘ㅎ’ 불규칙, ‘ㅈ’ 불규칙 등 다양하다.

④ 어근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으로, 표의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음주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것은 표의주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ㄱ, ㄴ은 표음주의 원칙, ㄴ, ㄹ은 표의주의 원칙을 따르는 규정이다.

blacklabel 특강 한글 맞춤법의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한글 맞춤법 제1항을 보면 표음주의를 반영한 ‘소리대로 적되’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표의주의를 반영한 ‘어법에 맞도록 함’은 마치 표음주의에 대한 단서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는 어느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둘은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22

정답 ⑤

보기 분석 한글 맞춤법 규정 중 준말에 관한 조항 일부이다. ㉠은 한글 맞춤법 제35항이고, ㉡은 한글 맞춤법 제38항이며, ㉢은 한글 맞춤법 제39항이다.

정답 해설 ‘적지 않은’을 ‘적잖은’으로 줄여 표기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음운 ‘ㅣ’의 탈락만이 있을 뿐, 축약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쭈어’는 모음 ‘ㅜ’로 끝난 어간에 어미 ‘-어’가 어울린 것이고, ‘꼬았다’는 모음 ‘ㅛ’로 끝난 어간에 선어말 어미 ‘-았-’이 어울린 경우이므로 ㉠에 따라 각각 ‘쭈’, ‘꼐’로 줄여 적을 수 있다.

② ‘트이어’는 모음 ‘ㅣ’ 뒤에 ‘-이어’가 어울린 경우이므로 ㉡에 따라 앞의 두 음절이 줄어 ‘티어’로 적거나 뒤의 두 음절이 줄어 ‘트어’로 적을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쓰이어’는 ‘씩어’, ‘쓰여’로 줄여 적을 수 있다.

③ ‘그렇지 않다’는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린 경우이므로 ㉢에 따라 ‘-잖-’으로 줄여 적을 수 있다.

④ ‘추었다’는 ㉠에 따라 ‘쫘다’로 줄여 적을 수 있지만, 음운의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쫘다’는 단모음 ‘ㅜ’, ‘ㅣ’가 이중 모음 ‘ㅜㅣ’로 바뀐 경우로, 음운의 탈락으로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추이어 → 추어’ 역시 음운의 탈락으로 볼 수 없다.

23

정답 ④

정답 해설 띄어쓰기는 단어 단위로 한다. ④에서 ‘이때’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기대밖의’에서 ‘밖’은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뜻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② ‘형만한’은 ‘형만큼 한다’는 뜻이므로 ‘형만V한’으로 띄어 써야 한다. ‘만’은 보조사이고 ‘한’은 ‘하다’의 활용형이다.

③ ‘성공시키는데’에서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그러므로 ‘성공시키는V데’로 띄어 써야 한다.

⑤ ‘듣기는커녕’에서 ‘는커녕’은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그러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blacklabel 특강 띄어쓰기

띄어쓰기 원칙은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드러나 있다. 제2항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잘 지켜진다. 한 가지 예외란 ‘조사가 결합될 경우에는 단어이지만 항상 앞말에 붙여 써야만 한다.’는 것이다.

24

정답 ③

보기 분석 로마자 표기의 원칙 중 자음과 모음의 표기 일람표를 보여 주고 있고,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음운 현상을 로마자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정답 해설 거센소리되기는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의 ‘ㅎ’이 오는 경우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고 했으므로 ‘만형’은 ‘mathyeong’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꽃잎’은 ‘ㄴ’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의 음운 현상이 일어나 [꼇닙]으로 발음된다. 이를 반영해 ‘kkonnip’으로 표기해야 한다.

② ‘넙죽하다’는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넙쭈카다]로 발음된다. 이 중에서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넙쭈카다]를 바탕으로 ‘neopjukada’로 표기해야 한다.

④ ‘넋밤이’는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넉빠지]로 발음된다. 이 중에서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넉빠지]를 바탕으로 ‘neokbaji’로 표기해야 한다.

⑤ ‘줄넘기’는 유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줄럼끼]로 발음된다. 이 중에서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ㄹㄹ’은 ‘ll’로 적으므로 [줄럼끼]를 바탕으로 ‘julleomgi’로 표기해야 한다.

blacklabel 특강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한 어문 규범이다. 그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주요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음운 현상을 로마자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예외적으로 된소리되기만큼은 로마자 표기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25

정답 ④

보기 분석 음운의 첨가와 탈락이 일어날 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해설 ㄴ의 경우, 음운이 첨가되었고 그것이 표기에서 사이시옷으로 반영이 되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ㄱ의 경우, 음운 ‘ㄱ’이 탈락하였고 그것이 표기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ㄷ의 경우, 음운 ‘ㄷ’이 탈락하였고 그것이 표기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ㄹ의 경우, 음운 ‘ㄹ’이 첨가되었지만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에 해당한다. ㅁ의 경우, 음운 ‘ㅎ’이 탈락하였지만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에 해당한다. ㅂ의 경우, 음운 ‘ㅅ’이 탈락하였지만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에 해당한다.

blacklabel 특강 음운 현상과 표기 방법의 불일치

음운 현상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첨가되는 등의 현상을 일컫는다. 그런데 음운과 표기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말을 표기함에 있어서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형태소 식별에 유리함이 있어 표의주의적 요소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상황에 맞게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음운 현상과 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26

정답 ⑤

보기 분석 관형어로 사용되는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품사로서의 관형사와 문장 성분으로서의 관형어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정답 해설 ‘갓은’은 얼핏 용언의 활용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갓다’의 활용형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 ‘갓은’은 ‘곧글루 다 갓춘. 또는 여러 가지의’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관형사이다. 그러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이’는 지시 관형사로,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문장에서는 체언 ‘건물’을 꾸며

주고 있다.

② ‘두’는 수 관형사로,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돌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문장에서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고 있다.

③ ‘서울’은 고유 명사로, 문장에서 다른 체언인 ‘풍경’을 꾸며 주고 있다.

④ ‘마음’의 체언 ‘마음’에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로, 뒤의 체언 ‘빛’을 꾸며 주고 있다.

27

정답 ①

보기 분석 | 표준 발음법 제15항의 규정으로 받침 있는 단어(또는 접두사)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와의 결합에서 발음되는 받침소리와 연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답 해설 | ‘돌우다’에서 ‘우’는 형태소에 포함되거나 접미사 ‘-우-’로 볼 수 있다. 어느 쪽으로 보든 ‘ㄱ’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보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연음 규칙이 적용될 뿐이다.

오답 해설 | ② ‘맛있다’는 ‘맛’의 받침 ‘ㅅ’ 뒤에 ‘ㄷ’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있다(다)-’이 연결되므로 ‘ㅅ’의 대표음인 ‘ㄷ’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마딤따]로 발음해야 한다.

③ ‘햇웃음’은 ‘햇’의 받침 ‘ㅅ’ 뒤에 ‘ㄱ’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웃음’이 연결되므로 ‘ㅅ’의 대표음인 ‘ㄷ’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허두슴]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늘 앞’은 ‘늘’ 뒤에 ‘ㅌ’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앞’이 연결되므로 ‘ㅌ’의 대표음인 ‘ㅂ’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느뱌]로 발음해야 한다.

⑤ ‘겉웃’은 ‘겉’ 뒤에 ‘ㄴ’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웃’이 연결되므로 ‘ㄷ’의 대표음인 ‘ㄷ’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거둔]으로 발음해야 한다.

blacklabel 특강 받침소리와 연음

표준 발음법 제15항은 받침 있는 단어(또는 접두사)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와의 결합에서 발음되는 받침소리와 연음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발 아래’는 ‘발’을 일단 독립형인 [반]으로 발음하고 다시 모음 앞에서 받침소리 ‘ㄷ’을 연음하여 결국 [바다래]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 받침 뒤에 오는 모음을 ‘ㅏ, ㅑ, ㅓ, ㅕ, ㅗ, ㅛ’로 한정된 이유는, ‘ㅓ, ㅕ, ㅗ, ㅛ’와의 결합에서는 연음을 하지 않으면서 ‘ㄷ’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ㅕ, ㅗ, ㅛ’ 등을 들지 않은 것은 표준어에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딤따], [머딤따]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마싯따], [머싯따]도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 것이다.

28

정답 ③

보기 분석 |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인 ‘을/를/을/를’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지를 탐구 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대해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자료 분석’을 살펴보면 ‘나라’는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에 양성 모음 ‘ㅏ’가 있고 조사의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므로 조사 ‘을’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받침은 뒷말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나라홀’이 되었다. ‘法(법)’은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에 음성 모음 ‘ㅓ’가 있고 조사의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므로 조사 ‘을’을 사용한 것이다. ‘太子(태자)’는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에 양성 모음 ‘ㅏ’가 있고 조사의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조사 ‘를’을 사용한 것이다. ‘長壽(장수)’는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에 음성 모음 ‘ㅓ’가 있고 조사의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조사 ‘를’을 사용한 것이다.

정답 해설 |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에 양성 모음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격 조사는 ‘을/를’이다. 이 중에서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해야 한다. 반면에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를’을 사용해야 한다.

‘軍馬(군마)’는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에 양성 모음 ‘ㅏ’가 있고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목적격 조사 ‘를’을 사용해야 한다. ‘도죽(도적)’은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에 양성 모음 ‘ㅓ’가 있고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므로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에는 ‘목적격 조사의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에는 ‘軍馬’가, ㉢에는 ‘도죽’에 ‘을’이 결합한 후 받침 ‘ㄱ’이 연음된 ‘도죽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9

정답 ③

보기 분석 | 한글 맞춤법 제3장은 소리에 관한 규정으로, 그중 제1절인 된소리에 관한 규정이다.

정답 해설 | ‘기쁘다’에서 ‘ㅍ’은 모음 ‘ㅣ’와 ‘ㅡ’사이에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에 해당하므로 ㉠의 예이다. ‘몽땅’에서 ‘ㄷ’은 받침 ‘ㅇ’ 뒤에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다. 해당하므로 ㉡의 예이다. ‘몹시’에서 ‘ㅅ’은 받침 ‘ㅂ’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 것이므로 ㉢의 예이다.

오답 해설 | ① ‘소쩍새’는 ㉠에, ‘움짤’은 ㉡에 해당하는 예이다. 그러나 ‘입때’는 된소리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입때’의 경우 중세 국어에 존재하던 어두 자음군이 된소리로 변한 것이다.

② ‘이따금’은 ㉠에, ‘깍두기’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갑자기’는 ㉢이 아니라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④ ‘맹꽁이’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훨씬’은 ㉡에, ‘딱지’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거꾸로’는 ㉠에, ‘담뱃’은 ㉡에 해당하는 예이다. ‘만사위’는 ㉠, ㉡, ㉢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blacklabel 특강 한글 맞춤법 제5항

제5항에서 말하는 ‘한 단어 안’은 하나의 형태소 내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소쩍새, 아까-다’ 따위는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제시된 된소리 문제는 그 중 한 형태소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란, 발음에 있어서 경음화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조건(환경)이 아님을 의미한다.



30 ⑤ 31 ④ 32 ② 33 ④ 34 ③ 35 ③
36 ② 37 ③

30

정답 ⑤

보기 분석 | <보기>는 표준 발음법 중 소리의 길이를 다룬 규정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우리말에서 소리의 길이는 대표적인 비분절 음운에 속하는 것이기에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 어떤 환경에서 짧은 소리로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 해설 | ‘넘기다’는 ‘넘다’의 용언 어간 ‘넘-’에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경우로, 제7항 2의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첫음절을 짧게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걸치다’의 어간은 ‘걸치-’로 단음절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에 첫음절을 길게 발음해야 한다.

② ‘보이다’는 ‘보다’의 사동사/피동사로 단음절 어간인 ‘보-’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제7항 1이 아닌 제7항 2의 규정에 해당한다.

③ ‘누리다’는 용언 어간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가 아닌 경우로 <보기>에

제시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누리다’는 원래 짧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④ 제6항의 붙임에 따르면 ‘쥐’는 단음절 용언 어간 ‘주-’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어’가 결합되어 축약된 형태이므로 긴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31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받침 발음과 관련한 음운 변동을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다. 제12항은 종성 ‘ㅎ’의 탈락율, 제13항과 제14항은 연음율, 제15항은 대표음화 후 연음율, 제16항은 제13~15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글 자모 명칭의 발음을 다루고 있다.

정답 해설 | 제15항의 다만 이하의 규정은 현실의 국어 화자들이 ‘맛있다[마딘따]’, ‘멋있다[머딘따]’로 발음해야 하는 것을 [마신타], [머신타]로 발음해도 표준 발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다’와 ‘없다’의 어간 ‘있-’과 ‘없-’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15항 규정에 따라 선행하는 형태소의 종성은 대표음으로 바뀐 후 연음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딘따]와 [머딘따]가 규정에 맞는 표준 발음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마신타], [머신타]로 발음하는 것은 선행하는 형태소의 종성을 대표음으로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연음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보통 받침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난다. 따라서 [마신타], [머신타]로 발음하는 것은 ‘있-’과 ‘없-’이라는 실질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처럼 처리한 것이다. 제16항은 후행하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형태소의 종성을 교체해 연음한다는 점에서 제15항의 다만 이하의 규정과 상반된다.

오답 해설 | ① 제13항은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온 경우 받침을 그대로 연음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12항은 받침 ㅎ(ㅈ, ㅊ)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온 경우 ‘ㅎ’이 탈락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12항 규정은 13항 규정에 대해 예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② 제13항~제15항은 모두 연음 현상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단어가 표기된 형태는 ‘까아’인데 이를 발음할 때는 [까까]로 발음한다. 이때 음절의 경계는 [까/까]로 표기된 형태와 달라진다.

③ 제14항과 제15항은 공통적으로 겹받침의 발음을 다루고 있으나 뒤에 오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에 따라 겹받침의 대표음화 여부가 달라지게 됨을 보여 주는 규정이다.

⑤ 제16항은 한글 자모의 이름 뒤에 형식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의 발음을 규정한 것이다. 제13항의 규정에 따르면 받침이 그대로 연음되어야 하지만 제16항은 받침을 대표음화하거나 대표음이 아닌 다른 음으로 교제한 후 연음시킨다. 따라서 제16항은 제13항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32

정답 ②

보기 분석 | (가)는 체언, (나)는 수식언, (다)는 독립언, (라)는 관계언, (마)는 용언이다. 각 품사는 문장에 쓰일 때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게 된다.

정답 해설 | 체언인 (가)가 단독으로 문장에서 독립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나, ‘철수(체언)+야(호격 조사)’와 같이 체언에 호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에도 독립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가)가 독립어의 역할을 담당할 때 (라)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체언인 (가)는 다양한 조사와 결합하여 ㄱ~ㅂ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체언이 문장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되다/아니다’의 서술어 앞에 제시되어야 하며, 보격 조사인 ‘이’와만 결합해야 한다. ④ 수식언인 (나)는 문장에서 관형어나 부사어의 역할을 담당한다. ⑤ (마)의 동사, 형용사는 단독으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체언인 (가)가 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하려면 (라)의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야 한다.

blacklabel 특강 부사의 수식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다른 부사, 일부 체언을 수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직 너’, ‘바로 나’처럼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 품사는 ‘부사’이나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된다.

33

정답 ④

보기 분석 | <보기>는 한글 맞춤법 규정 중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의 표기를 다룬 규정이다. 제28항은 음운의 탈락, 제29항은 음운의 교체, 제31항은 음운의 첨가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 해설 | 제31항의 1은 음운 ‘ㅂ’이 첨가된 후 선행하는 형태소의 받침으로 발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 규정이고, 제31항의 2는 음운 ‘ㅎ’이 첨가된 후 후행하는 형태소의 초성과 결합하여 축약된 것을 표기에 반영한 규정이다. 제31항의 2는 제31항의 1에 비해 음운 변동이 한 차례 더 일어난 것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제27항에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말은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일어난 교체와 첨가 모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② 제28항과 제29항은 받침 ‘ㄹ’이 탈락되거나 ‘ㄷ’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이때 ‘ㄹ’의 교체나 탈락은 ‘ㄹ’에 후행하는 음운의 종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 단어의 실제 발음에 따른 것이다.

③ 제28항은 음운의 탈락율, 제31항의 2는 음운의 첨가 후 축약을 표기에 반영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제28항은 형태소 결합 이전에 비해 이후의 음운 개수가 줄어들었지만, 제31항의 2는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⑤ 형태소 결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형태소의 의미 변화와 관계가 없다.

34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뉘는데, 이때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음운 변동의 규칙성 여부와 관련이 깊다.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일어난 음운의 변동이 규칙적일 경우 ‘규칙 활용’, 불규칙적일 경우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정답 해설 | ‘잠그다’는 뒤에 모음 어미가 올 경우 ‘잠가, 잠갔다’와 같이 어간의 ‘ㄷ’이 탈락하고 이것이 표기에 반영된다. 이와 같은 ‘ㄷ’ 탈락은 어간이 ‘ㄷ’로 끝나는 용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규칙성을 도출할 수 있기에 ‘잠그다’는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푸다’는 뒤에 모음 어미가 올 경우 ‘퍼, 폼다’와 같이 어간의 ‘ㅍ’이 탈락한다. 하지만 어간이 ‘ㅍ’로 끝나는 다른 용언인 ‘주다’, ‘누다’는 ‘쥐(주어), 줬다(주었다), 뉘(누어), 뉘다(누었다)’와 같이 어간의 ‘ㅍ’가 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푸다’의 활용 과정에서 어간의 ‘ㅍ’가 탈락하는 현상은 규칙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푸다’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좋다’는 활용 과정에서 ‘좋나[존나], 좋다[조타], 좋아[조아]’와 같이 음운의 교체, 축약, 탈락이 일어난다. 이는 어간이 ‘ㅎ’으로 끝나는 다른 용언 ‘놓다, 쌓다’ 등의 활용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음운 변동으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좋다’는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며 이때 음운 변동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② ‘울다’와 ‘어질다’는 어미 ‘-는, -ㄴ, -느냐, -ㅂ니다, -오, -시-’ 등이 올 경우 어간의 ‘ㄹ’이 탈락한다. 어간이 ‘ㄹ’로 끝나는 모든 용언은 이러한 어미가 올 경우 ‘ㄹ’이 탈락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규칙 활용으로 본다. 또한 이때의 음운 변동은 ‘우는, 운, 우느냐, 읊니다, 우오, 우신다’ 등과 같이 표기에 반영된다.

④ ‘치르다’는 뒤에 모음 어미가 올 경우 ‘치러, 치러서’와 같이 어간의 ‘ㄷ’이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며 이는 표기에 반영된다. 이와 같은 ‘ㄷ’ 탈락은 어간이 ‘ㄷ’로 끝나는 대다수 용언에서 일어나므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반대로 ‘푸르다’의 경우 뒤에 모음 어미가 오더라도 ‘푸러, 푸르렀다’와 같이 어간의 ‘ㄷ’이 탈락하지 않고 대신 어미가 ‘러’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는 어간이 ‘르’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⑤ ‘들다’는 ‘들어, 들으니’와 같이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받침 ‘ㄷ’이 ‘르’로 교체된다. 그런데 ‘연다’의 경우,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연어, 연으니’와 같이 어간의 받침 ‘ㄷ’이 유지된다. 따라서 ‘들다’는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찾을 수 없으며, 이에 표기에도 반영된다.

'으' 탈락이란, 용언의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면 어간의 '으'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어간의 끝 모음이 'ㄷ'인 용언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므로, 규칙 활용으로 본다.

예 따르- + -아 → 따라, 치르- + -어 → 치러, 크- + -어 → 커

35

정답 ③

보기 분석 | <보기>는 의존 명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의존 명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로 기능하는 주어성 의존 명사, 주로 서술어로 기능하는 서술성 의존 명사, 주로 목적어로 기능하는 목적어성 의존 명사, 주로 부사어로 기능하는 부사성 의존 명사,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보편성 의존 명사로 나눌 수 있다. 의존 명사가 주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의존 명사들이 문장에서 주로 어떤 격 조사와 어울리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후 이를 토대로 의존 명사가 다른 문장 성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정답 해설 | 의존 명사 '대로'와 '겪'은 격 조사를 취하지 않는 의존 명사로 문장에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대로'는 관형절 '말하는'과 함께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서술어 '이루어진다'를 수식하고 있으며, '겪'은 '겪'을 수식하는 관형절 '얼굴도 볼'과 함께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인용절의 서술어인 '만나자고(만나자+인용격 조사 '고')'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의존 명사 '수'가 취할 수 있는 격 조사는 주격 조사 '가'로 서술어 '없이'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의존 명사 '것'은 비교의 부사격 조사 '과'와 결합하여 예문에서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것'의 경우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와 같이 조사 결합의 제한이 없이 주어나 서술어로도 쓰이는 보편성 의존 명사이다.

② 예문에서는 의존 명사 '체'에 보조사 '는'이 결합되어 있지만 격 조사로 바꿀 경우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야 가장 자연스럽다. 실제로도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의존 명사 '체'는 부사격 조사 '로'와 어울리지만 예문에서는 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의존 명사 '체'는 서술어 '서성거렸다'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의존 명사 '나위'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한다. 예문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서술어 '없이'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의존 명사 '만큼'은 격 조사를 취하지 않지만 부사절을 안은 관형절 '까다롭게 검사하는'과 결합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의존 명사 '지'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한다. 예문에서는 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관형절 '그를 만난'과 하나의 단위를 이뤄 서술어 '된'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의존 명사 '바'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한다. 예문에서는 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서술어 '모르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36

정답 ②

보기 분석 | <보기 1>은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다섯 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24자모만을 사용한다는 규정으로,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ㅃ, ㅆ, ㅈ 등의 자모를 외래어 발음 표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제2항은 외래어의 하나의 음운은 한국어에서도 하나의 기호로 표기한다는 규정이다. 제3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는 것인데, 현대 국어에서 음절 말음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만을 발음할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ㄷ'이 아닌 'ㅅ'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제4항은 외래어의 파열음을 표기할 때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cafe'를 '까페'가 아닌 '카페'로, 'Paris'를 '빠리'가 아닌 '파리'로 표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미 굳어진 외래어의 관용을 존중한다는 것은, 'camera'를 '카메라'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 정착한 외래어 중 원음과 멀게 표기된 것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표기하기로 한다는 의미이다.

<보기 2>는 외국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가 가지는 음운적 특징을 설명한 것이

다. 첫 번째는 파열음이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삼중 체계를 가진다는 것으로, 이는 영어 등의 외국어에서 자음이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로 구분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는 마찰음의 종류가 비교적 적다는 것으로, 현대 국어의 마찰음이 ㅅ, ㅆ, ㅎ의 세 가지뿐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세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받침으로 표기된 자음이 무엇이든지 발음될 때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정답 해설 | 영어 단어 'City'의 발음은 [sɪti], 'Silver'의 발음은 [sɪlvə(r)]로, 두 단어의 첫 음운은 's'로 동일하다. 's'라는 하나의 음운을 'ㅅ'이라는 하나의 기호로 표기한 것으로, 이는 제2항을 따른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영어 단어 'frypan'에서 'f'는 [f]로, 'p'는 [p]로 발음된다. 서로 다른 두 발음을 모두 'ㅍ'으로 통일한 것은, 현대 국어의 자모 중 [f] 발음을 표기할 만한 자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경을 피울(풍)과 같은 중세 국어의 자모나 혹은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진 새로운 자모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고,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는 자모 중 [f]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자모인 'ㅍ'을 사용하기로 한 것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frypan'을 '프라이팬'으로 표기한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영어 단어 'book'을 '북'으로 표기하지 않고 '북'으로 표기하는 것은 외래어에도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book'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나 '을'이 결합할 때의 발음이 [부키]나 [부쿨]이 아니라 [부기], [부글]이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④ 영어 단어 'bus'의 발음이 [뵘스]에 가까우면서도 불구하고 '버스'로 표기하는 것은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삼중 체계를 이루는 국어의 파열음과 달리 외래어의 파열음은 유성 파열음과 무성 파열음의 이중 체계를 이룬다. 이중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로 표기하고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로 표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뵘스]에 가까운 발음에도 불구하고 유성 파열음인 'b'를 'ㅂ'으로 표기하여 '버스'로 표기한 것이다.

⑤ 하나의 단어인 'cut'을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컷'과 '커트'로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관용을 존중하기로 한 제5항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37

정답 ③

정답 해설 | '법왕과 갓갑스왕'는 법왕이라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형태가 '스왕'로 된 것은 오늘날의 '아름답다'의 활용형 '아름다워'에서 보듯이 'ㅂ'이 '오/우'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스왕'은 '습아'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와 '-샤-'이다.

②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사용 조건을 고려할 때 어간의 끝소리가 'ㄷ'일 때 '-줄-'을 사용한 경우이다.

④ '반주보리'를 분석해 보면 '반-+-줄-+-오-+-리-+-라'이므로 이어적으로 표기된 것을 알 수 있다.

⑤ 상대 높임법이 '-잇-'을 통해 실현되었다.

01

정답 ③

정답 해설 ③은 ‘영수와 영철이’가 비교 대상인지, ‘영철이와 축구’가 비교 대상인지 모호한 중의성을 가진 문장이다. 만약 ③을 직접 구성 요소로 ‘영수는 영철보다’와 ‘축구를’로 분석하면 영수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영철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비교 대상이 ‘영수와 영철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④의 성분을 직접 구성 요소 ‘사과와’, ‘배 두 개’로 분석하면 내가 사과 하나와 배 두 개를 먹었다는 의미이고, ‘사과와 배’, ‘두 개’로 분석하면 내가 사과와 배를 합하여 두 개, 혹은 각 두 개씩을 먹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 ⑥의 성분을 직접 구성 요소 ‘영수는’, ‘울면서 떠나는 영희를’로 분석하면 영수가 울면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희가 울면서 떠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④의 성분을 직접 구성 요소 ‘착한’, ‘친구의 동생이’로 분석하면 ‘착한’이 수식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동생이 된다.
 ⑤ ⑤의 성분을 직접 구성 요소 ‘게으른 영수와’, ‘동희가’로 분석하면 게으른 이가 영수이므로 ‘게으른’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중의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02

정답 ⑤

정답 해설 ‘병마개’는 ‘병+마개(막+--+에)’로 1차 분석되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그리고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마개는 ‘막-(어근)+ -에(명사 파생 접사)’로 분석되므로 파생어이다. 즉, ‘병마개’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놀이터’도 ‘놀이(놀+--+이)+터(어근)’로 결합된 합성어인데, 직접 구성 요소인 ‘놀이’가 파생어이므로 ⑤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군것질’은 ‘군것(군+--+짓)+질’로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미달이’는 ‘미달(밀+--+달)+이’로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② ‘잠보’는 (잠(자+--+ㅁ)+--+보)로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달음질’은 ‘달음(달+--+음)+--+질’로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③ ‘뜨개질’은 ‘뜨개(뜨+--+개)+--+질’로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그러나 ‘군밤’은 ‘군(굽+--+ㄴ)+밤’으로 그 직접 구성 요소들이 단일어인 합성어이다. 이때 ‘군’은 파생 접사와 결합한 것이 아니므로 파생어가 아니다.
 ④ ‘눈웃음’은 ‘눈+웃음(웃+--+음)’으로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날날이’는 ‘날날(날+--+날)+--+이(부사 파생 접사)’로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03

정답 ④

정답 해설 3단락에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고 했으므로, <보기>의 ㄴ ‘이웃에 무심했던 우리는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이제야 깨달았다.’의 첫 분석 층위에서 직접 구성 요소는 ‘이웃에 무심했던 우리는’과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이제야 깨달았다’로 분석될 것이다. 그리고 한 층위 아래에서는 주어부가 ‘이웃에 무심했던’과 ‘우리는’으로 분석되고, 서술부는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과 ‘이제야 깨달았다’로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ㄴ의 한 층위 아래에서 직접 구성 요소는 위 네 개의 구절로 나타나야 한다. 덧붙여 문장 후반부의 직접 구성 요소는 ‘그가 성실한 사람임’이 하나의 명사절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문장 전체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3문단의 내용처럼

서술부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목적어와 서술어로 분석되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ㄱ의 ‘파란 모자를 쓴 동석은 키가 아주 크다.’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인데, 주어와 서술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파란 모자를 쓴 동석은’과 ‘키가 아주 크다’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고 했다. 따라서 꾸미는 말 ‘파란 모자를 쓴’과 꾸밈을 받는 말 ‘동석’은 위 층위를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이다.

③, ⑤ ㄴ은 첫 분석 층위에서 ‘이웃에 무심했던 우리는’과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이제야 깨달았다’로 나뉘며, ‘이웃에 무심했던’은 ‘우리는’을 꾸미는 말이므로, 이 두 요소는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이다.

04

정답 ③

정답 해설 ㉔ ‘널개[널개], 활다[활따]’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면 [널개], [활다]가 되는데, ‘ㄹ’ 다음에 예사소리 ‘ㄱ, ㄷ’ 등이 된소리로 바뀐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적절한 탐구라고 할 수 없다. ‘널개’는 먼저 겹받침 ‘ㅂ’ 뒤에 ‘ㄱ’이 오므로 뒤의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뀌는 규정에 의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이후 겹받침 ‘ㅂ’이 탈락한다고 탐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기>에 제시된 ㉔ ‘널개[널개]’의 음운 변동을 설명할 수 없다. ‘활다[활따]’도 마찬가지로, 된소리되기가 이루어진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진다고 탐구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㉔ 문히다[무치다], 달히다[다치다]는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ㄷ+ㅎ’의 자음 축약이 일어나 ‘티’를 이루고 다시 구개음화되어 [치]로 발음된다.
 ② ㉔ ‘물엿[물렛], 설익다[설릭따]’는 합성어 및 접두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을 첨가시켜 발음한다는 규정에 의해 ‘ㄴ’ 첨가가 이루어져 [물넛], [설넛따]가 되었고, 다시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는 유음화 규정에 의해 [물넛], [설릭따]로 발음된다.
 ④ ㉔은 유음 첨가 현상으로 유음 개수가 하나 늘었고, ㉔은 자음 축약으로, ㉔은 자음군 단순화로 유음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
 ⑤ ㉔은 받침 ‘ㄷ’이 피동 접사 ‘-히-’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㉔은 용언의 어간 겹받침 ‘ㅂ, ㅅ’이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자음과 만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있다.

05

정답 ⑤

정답 해설 ‘ㄴ’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오다’와 ‘기다리다’라는 서술어를 두 개 가지고 있다. 그런데 ‘ㄷ’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면서, 서술절 안에 또 관형절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예쁜 볼펜이 꽤 많아요.’라는 전체 서술어, 서술절 안에 ‘많아요’라는 서술어, ‘볼펜이 예쁘다’는 관형절의 서술어, 총 세 개의 서술어를 갖고 있는 문장이다. ‘ㄱ’에는 서술어가 ‘되었다’ 한 개 있다.

오답 해설 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이 ‘보여’다. ‘ㄱ’에는 ‘대학생’이라는 보어가 있다.
 ② ‘ㄴ’에는 목적어가 한 개(비가 오기를), ‘ㄷ’에는 목적어가 두 개(이유도, 돈을) 있다.
 ③ ‘ㄴ’은 명사절(비가 오기)을, ‘ㄹ’은 부사절(소문과는 달리)을 안은 문장이다.
 ④ ‘ㄷ’에는 ‘ㄱ’이나 ‘ㄹ’과 달리 관형어 ‘예쁜’이 들어 있다. 관형어는 문장 성분의 한 종류이므로 ‘ㄱ’의 ‘올해’는 그 구조를 ‘오+--+ㄹ+해’로 보더라도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일 뿐 관형어가 아니다.

06

정답 ①

정답 해설 ‘놓쳤다’의 어간은 ‘놓다’의 어간인 ‘놓-’에 접사 ‘-치-’가 결합된 ‘놓치-’인 것은 맞지만, 이때 쓰인 접사 ‘-치-’는 피동 접사나 사동 접사가 아니라 ‘넘치다’, ‘밀치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피동

접사로는 ‘-이-, -히-, -리-, -기-’가 있으며 사동 접사로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시키다’가 있다.

오답 해설 ② 2문단을 참고할 때, ⑥에서 ‘나무꾼’이 ‘토끼’를 숨게 하고,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므로 ‘숨겨’는 사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숨겨’는 ‘숨다’의 어간 ‘숨-’에 사동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를 지닌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③ ‘누워’의 기본형은 ‘몸을 바닥 따위에 대고 수평 상태가 되게 하다.’는 의미의 ‘눕다’인데, 2문단에서 말한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에 근거한다면, ‘눕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접미사 ‘-이-’가 붙어도 피동의 의미를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눕다’의 어간 ‘눕-’에 접미사 ‘-이-’가 붙어 ‘누이다’가 되었지만 사동의 의미만 가질 뿐 피동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④ 2문단을 참고할 때, ④에서 ‘높이’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높이’의 ‘높-’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⑤ 3문단을 참고할 때, ⑥에서 ‘가느다란’의 어근 ‘가느-’와 접미사 ‘-다랗-’ 사이에는 과거 시제를 넣을 수 없다.

07

정답 ②

정답 해설 ‘쌓여’는 동사 ‘쌓다’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활용된 것인데, 피동 접미사가 붙은 ‘쌓여’도 품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⑤의 사례로는 부적합하다.

오답 해설 ① ‘밝히며’는 형용사 ‘밝다’의 어간 ‘밝-’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활용된 것인데, 형용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 품사가 동사로 바뀌었다. ③ ‘미더운’은 동사 ‘민다’의 어간 ‘민-’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업-’이 붙어 활용된 것인데, 동사의 어근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 형용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④ ‘낮추다’는 형용사 ‘낮다’의 어간 ‘낮-’에 사동 접미사 ‘-추-’가 붙어 활용된 것인데, 형용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 동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⑤ ‘높일’은 형용사 ‘높다’의 어간 ‘높-’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활용된 것인데, 형용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 동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08 ④ 09 ③ 10 ① 11 ③ 12 ② 13 ④

08

정답 ④

정답 해설 ‘최 선생님, 내일 김 선생님께서 탕수육 사신다고 하세요.’에서 탕수육을 사는 주체는 ‘김 선생님’이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행동의 주체인 김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하세요’에서 ‘요’는 말을 듣는 청자인 최 선생님을 높임 표현이다. 즉 상대 높임을 위해 ‘요’가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 ‘이웃집 영희 엄마께서 산나물을 주러 오셨어요’에서 주체 높임은 ‘-시-’를 통해, 상대 높임은 ‘요’를 통해 동시에 실현되었다.

② ‘이 과제를 다음 주까지 제출하게.’에서 ‘제출하게’는 ‘하계제’로 아래사람에게 하는 예사 낮춤 표현이다.

③ ‘삼촌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넉넉하시다.’에서 ‘넉넉하시다’의 ‘-시-’를 통해 삼촌을 간접적으로 높임 표현이다.

⑤ ‘코치님, 정말 배영은 코치님이 최고로 잘 하십니다.’에서 ‘하십니다’는 ‘하십

시오체’로 아주 높임 표현이다.

09

정답 ③

보기 분석 음운 변동은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동일한 음운론적 조건을 가진 상황에서 형태론적 조건(형태소의 기능, 개별 어휘의 의미 차이 등)에 따라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보기>의 (가)~(마)는 국어에서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음운 변동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정답 해설 [이슬비]와 [가을뻘]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은 [가을뻘]의 [뻘]이다. [가을뻘]은 사잇소리 현상 때문에 ‘비’가 [뻘]로 소리 나지만, [이슬비]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슬비’와 ‘가을비’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므로 형태론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며, 앞말의 받침이 ‘ㄹ’로 끝나므로 음운론적으로도 동일한 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잇소리 현상이 한쪽에만 일어나는 것은 의미론적인 이유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뻘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뻘] 앞에 오는 형태소 ‘-(으)ㅁ’과 [북음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뻘] 앞에 오는 형태소 ‘-(으)ㅁ’은 같은 기능,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일한 형태소이므로 ③의 진술로 설명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금고’와 ‘신고’는 모두 명사이고, 음운 변동이 일어난 ‘담고[담꼬]’와 ‘신고[신꼬]’는 모두 용언의 활용형이다. 어간의 끝소리가 ‘ㄴ, ㅁ’이고 바로 뒤의 어미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①은 적절한 설명이다.

② ‘갈 사람[갈싸람]’, ‘만날 사람들[만날싸람들]’에서 ‘갈’과 ‘만날’의 ‘ㄹ’은 모두 관형사형 어미이고, ‘준비 시작해야’와 ‘날 도와’의 ‘ㄹ’은 모두 목적격 조사이다. 관형사형 어미 뒤에 오는 음운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목적격 조사 뒤에 오는 음운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②는 적절한 설명이다.

④ ‘호수’와 ‘호수[호쑤]’, ‘시가’와 ‘시가[시까]’는 동음이의어로, 음운 환경은 동일하지만 각 형태소의 의미가 다르므로 각각 다르게 소리 나는 것이다.

⑤ ㄱ의 ‘발이랑[반니랑]’에서 후행하는 형태소 ‘이랑’은 실질 형태소이고, ㄴ의 ‘발이랑[바치랑]’에서 후행하는 형태소 ‘이랑’은 형식 형태소이다. ㄱ의 ‘발이랑[반니랑]’의 음운 변동은 ‘ㄴ’ 첨가 후 교체(비음화)이고, ㄴ의 ‘발이랑[바치랑]’의 음운 변동은 교체(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선행 형태소의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ㅈ, ㅊ’으로 변하는 것이므로, ㄴ에만 일어난다.

black label 특강 하나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형태소

형태소를 분석할 때에는 하나의 음운으로 된 형태소를 놓치지 않고 분석해 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형태소는 대표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으)ㄹ’, 명사형 어미 ‘-(으)ㅁ’, 이와 동일한 형태의 명사 파생 접미사 등이 있다.

일례로, <보기> (다)의 ‘비빔밥’은 ‘비비-+-(으)ㅁ+밥’으로 분석되고 묶음밥은 ‘볶-+-(으)ㅁ+밥’으로 분석된다.

10

정답 ①

정답 해설 ④의 접사 ‘군-’은 명사 앞에 붙어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고 있다. 반면 ⑥의 접사 ‘-이’는 ‘길-, 높-’과 같은 형용사 어간이나 ‘떡-’과 같은 동사 어간, ‘절름발’과 같은 명사, ‘팔랑’과 같은 부사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품사의 어근과 결합하는 접사는 ④의 ‘군-’뿐이다.

오답 해설 ② ④의 접사 ‘군-’과 ⑥의 접사 ‘-님’은 모두 명사와 결합하여 품사를 바꾸지 않으므로, 한정적 접사이다.

③ ⑥의 접사 ‘-이’는 어근의 품사를 명사로 바꾸고, ④의 접사 ‘-하다’는 어근의 품사를 동사 또는 형용사로 바꾸므로, 모두 지배적 접사이다.

④ ⑥와 ⑥의 접사 ‘-이’는 어근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사라는 점에서 기능이나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⑤ ‘좁다’는 형용사인데 ‘좁히다’는 동사이므로, ⑥의 접사 ‘-히-’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이다.

11

정답 ③

정답 해설 | ‘뜨개질’은 ‘(어근+접미사)+접미사’의 구조를 지닌 파생어로 어근은 ‘뜨-’이고, ‘-개’와 ‘-질’은 접미사이다. 이와 동일한 구조의 단어로는 ‘싸움꾼’을 들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은 ‘팔죽’에 ‘달다’의 어근이 결합한 형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은 ‘떡’과 ‘볶이’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의 직접 구성 성분은 ‘게으른’이 ‘토끼와 거북이’를 수식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고, ‘토끼와 거북이’는 각각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있다.

⑤ ㉣은 ‘게으른’이 수식하는 범위가 ‘토끼’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 구성 성분을 나누어야 한다.

12

정답 ②

정답 해설 | 우리나라 사람들은 [ɾ]과 [l]을 모두 [ㄹ]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제 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라마다 음운의 개수가 다르다는 근거가 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동일한 음운을 다른 방식으로 발음하는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ㄹ’의 발음은 음성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들이 코감기에 걸린 영수의 비음 발음을 무리없이 이해하는 것은 음성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음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③ ‘국’의 초성은 무성음 [k]로 종성은 단음소리 [k̚]로 발음되므로 두 소리는 교체 불가능한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④ 문장의 끝을 내리거나 평조로 발음할 때와 문장의 끝을 높여 발음할 때 같은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높낮이도 음운의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⑤ 모음 하나, 자음 하나에 의해 의미의 변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단어의 모음 두 개와 자음 두 개는 음운의 자격을 갖는다.

13

정답 ④

정답 해설 | ‘상호작용’에서 ‘용’의 초성은 ‘ㅇ’은 음가가 없다. 따라서 ‘용’을 이루는 음운은 ‘ㅇ’과 ‘ㅇ’ 두 개다. 따라서 표기를 기준으로 하면 ‘상호작용’의 음운의 개수는 10개이다.

오답 해설 | ① ‘봄바람’은 발음으로 하면 ‘ㅂ, ㄱ, ㅁ, ㅃ, ㅈ, ㄹ, ㅊ, ㅁ’이며, 표기로 하면 ‘ㅂ, ㄱ, ㅁ, ㅂ, ㅈ, ㅈ, ㅁ’으로 분석되므로 음운의 개수는 동일하다.

② ‘선생님’은 각 음절당 3개씩의 음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9개의 음운으로 분석된다.

③ ‘첫인상’은 ‘철인상’으로 바뀐 다음 [처딘상]으로 발음되므로, ‘ㅈ, ㄴ, ㄷ, ㅌ, ㄴ, ㅅ, ㅈ, ㅇ’으로 분석된다.

⑤ 훌이불’은 [흔니불]로 발음되므로 ‘ㅎ, ㄱ, ㄴ, ㄴ, ㅌ, ㅂ, ㅈ, ㄹ’ 8개의 음운을 가지고 있으나, 표기로 하면 ‘ㅎ, ㄱ, ㅌ, ㅌ, ㅂ, ㅈ, ㄹ’ 7개의 음운을 가지게 된다.

blacklabel



memo

blacklabel



memo